

하나님의 말씀

이성의 연구와 영적인 지식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5744 하나님이 이성의 사람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7
세상 사람.....	10
1580 사람의 생각에 미치는 거짓 권세자의 영향.....	10
4560 세상에서 나온 사상. 진리. 오류.....	11
5154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것의 허무함. 변화.....	12
5911 세상 사람들의 불신.....	13
이성의 지혜와 세상 지식.....	15
0595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힘.... 이해.... 발명품.....	15
0854 하나님의 영. 계시. 과학과 진정한 학습.....	17
2438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식.....	17
5754 영의 은사에 대한 이성의 사람의 자세.....	18
이성의 탐구가 진리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20
0587 세상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을 통한 진리.....	20
6931 세상의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	21
1918 이성을 통한 연구. 진리.....	22
1965 세속 연구자.....	23
2806 이성을 통한 연구. 영의 사역. 심장.....	25
2823 이성을 통한 연구. 하나님과의 연합.....	26
3502 자유의지로 얻는 믿음. 선물이 아님. 이성으로 연구하는 일.....	27
4497 연구를 통해 영의 영역을 헤아려 볼 수 없다.....	29
5569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순수한 진리가 언제 보장을 받는가?.....	30
8424 진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이성에서 나온 지식을 버리는 것이다.....	31
오류와 영적인 교만의 위험.....	34
6031 혼란의 영. 사랑없으면 진리가 없다.....	34
6476 오류와 거짓을 통한 영적인 쇠퇴.....	35
7368 잘못 된 가르침이 주는 나쁜 효과.....	36
3641 영적 교만.....	37
6830 영적인 월등함과 영적인 교만.....	38
8281 거만의 위험.....	40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리라”.....	42
2375 “현명하다는 사람의 이성은 거부를 당할 것이다.”.....	42
4744 “나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파괴하기를 원한다.”.....	43

5890 살아 있는 지식 또는 죽은 지식.....	44
6488 이성을 통한 지식. 교육. 계시들.....	45
8069 가르치는 직분. “내가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46
심장의 생각과 이성의 생각.....	49
2111 생각의 근원은 사람의 심장.....	49
6375 생각하는 일.....	50
6961 올바른 생각과 잘못 된 생각.....	52
4541 하나님의 존재.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심장과 이성.....	54
2302 심장에서 나오는 생각과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 진리.....	55
6680 생각의 파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일.....	56
영적으로 탐구하는 일.....	58
0782 하나님의 영의 발전과 결과... 자연의 법칙... 입법자.....	58
2249 영적인 지식. 교육. 혼을 위해 일하라.....	59
4537 영적인 지식에 비해 세상 지식은 의미가 없다.....	60
4713 세상 지혜와 영적인 지식.....	60
6519 이 땅의 과학과 영적인 지식.....	62
영적인 지식은 순수한 진리를 아는 지식.....	64
8056 영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	64
1489 영적 지식의 가치. 세상 지식.....	65
3140 지혜는 영적인 지식이다.....	66
2124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결과이다.....	67
5784 영적인 지식은 성숙도에 달려있다.....	69
8924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69
9003 영적인 지식은 위로부터 전해진 말씀과 일치되어야 한다. I.....	71
9004 영적인 지식을 위로부터 전해진 말씀과 일치되어야 한다. II.....	73
7843 영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일.....	74
사랑은 지혜와 깨달음에 도달하는 열쇠.....	76
2446a 사랑이 없으면 지혜는 생각할 수 없다. 불멸의 지식.....	76
2446b 사랑이 없으면 지혜는 생각할 수 없다. 불멸하는 지식.....	77
3518 지혜를 얻는 것. 양보하며 골똘히 생각하는 것.....	77
4384 연구하는 일. 진리. 삶의 형태.....	78
7251 사랑이 지혜에 도달하는 열쇠이다.....	79
7650 사랑의 불로부터 지혜의 빛이 발산 된다.....	81

1735 사랑. 지혜. 깨달을 수 있는 능력.....	82
7183 지식은 아직 깨달음이 아니다.....	83
8239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깨달음과 지식이다.....	84
8666 단지 사랑이 깨달음과 축복에 도달하게 도와준다.....	85
영적인 생각의 교제.....	88
3160 생각을 교환하는 일의 축복.....	88
4710 영적인 생각의 교류.....	89
지식의 한계.....	90
5702 지식의 한계.....	90
6633 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91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일부 연구자와 과학자의 오류와 무지.....	93
1388 새로운 세계관. 기초 벽. 기초.....	93
1446 영의 상태. 사악한 행위.....	94
4069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	95
성경의 잘못된 해석.....	97
2529 종교. 논쟁의 대상. 서로 다른 교파.....	97
5164 성경 연구. 이성으로 얻은 지식. (여호와 증인의 강연 후에 받은 말씀).....	98
6929 책 중의 책인 성경. 이성을 이용한 연구.....	99
8054 성경은 종료되었는가?.....	101
8963 복음서는 진리에 합당한가?.....	102
8731 구속사역에 대한 올바른 설명.....	103
5604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적은 수가 택함을 받는다.....	105
연구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	107
0254 별들.... 자연의 법칙.... 헛된 연구.....	107
0832 빈 공간.....	108
0945 이 땅과 태양의 충돌. 연구하는 사람. 이 땅의 내부.....	108
0957 분화. 창조의 역사. 과학자.....	109
1119 창조물의 다양성.....	110
1120 연구 작업.....	111
1821 태양 빛의 광도.....	112
1824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힘이 빛을 발생시킨다.....	113
2744 연구되지 않은 자연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의 원소적인 역사.....	114
7957 우주. 달.....	115

6323 행성의 고립.....	116
우주선의 오류 (UFO).....	118
6065 세상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 다른 별에 거하는 거주자.....	118
7208 별들 사이의 통신. (UFO).....	119
8698 우주비행체에 대한 설명.....	120
종말에 대한 불신.....	123
5807 세상의 전환은 세상의 끝이 아니다.....	123
6675 확실한 멸망. 예언은 성취 된다.....	124
7040 이 땅이 계속 존재함을 더 잘 믿는다.....	125
우주의 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부적절한 설명.....	127
4073 하늘에서 나타나는 빛. 그리스도의 십자가.....	127
6134 수수께끼와 같이 빛이 나타나는 현상.....	128
6313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129
6405 별자리의 변화.....	130
8780 우주의 변화.....	131
8781 우주 안의 변화.....	133
자연의 힘의 초법적인 역사에 대한 과학자들의 무지.....	135
4348 지구의 자전. 이 땅의 흔들림.....	135
4355 4348 에 대한 추가 및 설명.....	136
3950 이 땅을 분해시키는 원인과 능력..... (원자력).....	137
3951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 자연 법칙에 대한 무지와 자연의 법칙의 영향.....	138
4472 자연의 법칙이 무력화되는 일. 종말의 때의 사탄의 권세.....	140
4708 무책임한 실험이 이 땅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141
4731 이 땅의 종말의 때에 이뤄지는 실험. 세력들을 풀어주는 역사.....	143
6081 이 땅의 구원시대 끝에 이루는 성공. 과학자.....	144
6971 대적자의 목적은 파괴이다.....	145
8712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 사랑없음. 자기 사랑.....	147
5029 "하늘나라의 세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는 일. 휴거.....	149
6681 휴거.....	150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 올바른 연구가 가능하다.....	153
0242 하나님의 진리.... 학문.....	153
0589 이성의 한계.... 세상의 현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	154
1011 발명품. 자연의 힘. 믿음.....	155

1609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연구와 도움이 없이 하는 연구. 진리.....	156
3137	올 바르게 사용된 이성. 의지.....	157
6456	깨달음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	158
6628	세상의 지혜와 거짓 빛. 진리를 구하라.....	160
6942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이 없이 하는 학문적인 연구 1.....	161
6943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이 없이 하는 학문적인 연구 2.....	162
448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164
저세상에 대한 지식.....		165
1966	저세상의 영적인 지식과 이 땅의 지식의 가치.....	165
4795	이 땅의 삶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또는 저세상에 들어간 후 얻은 깨달음.....	166
5801	세상 지식이 저 세상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	167
8959	날카로운 이성이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된다.....	168
5554	영적 지식이 저 세상에서 주는 축복.....	170
영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일.....		171
3192	세속 연구자들이 영적인 결과를 검토하는 일.....	171
5770	하나님의 부름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일.....	173
7029	깨달음의 빛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	174
8828	영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데는 먼저 하나님과 내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175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		178
1603	이해력, 이성, 자유의지. 선입견. 책임.....	178
3455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 진리.....	179
3550	생각의 방향에 대한 책임.....	180
5463	의지가 생각을 정한다. 책임.....	181
7222	세상적인 또는 영적인 생각의 파장.....	182
5407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안에서 강해진다.....	183
6469	고린도 전서 1 장 19-21 절에 대해.....	184

하나님이 이성의 사람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B.D. No. 5744

1953년 8월 11일

나는 아직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믿기를 원하지 않고, 아직 확신 있게 나를 인정할 수 없고, 이 땅의 내 대변자들이 설명해주기 원하는 지식에 그들의 이성의 지식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원한다. 나는 모든 것을 먼저 증명하기를 원하고, 예리한 이성의 사

고로 헤아려보거나 반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원한다. 그들의 지식은 심장을 죽인다. 더 높은 진리라고 불리는 내용은 세상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이다. 왜냐면 이 땅의 삶에서 믿어야만 한다는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사람의 예리한 이성도 영의 영역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창조물 중에 어떤 범주로 분류하느냐? 너희가 유일하게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반면에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이런 생각할 능력과 생각할 자유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느냐? 유일하게 이 점으로도 너희는 이미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권세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고, 그가 단지 무한하게 권세가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 자신은 너희의 생각하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각할 능력을 가진 존재를 생성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창조하지 않은 너희 후손을 증거로 제시할 수 없고, 너희 후손은 기존의 자연의 법칙이 너희에게 준 것이고, 자연의 법칙이 너희에게 한 입법자를 증명한다.

더 나아가 다음을 생각하라: 자연의 힘에게 생각할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자연의 힘이 생각할 수 있고, 존재의 생물체가 가장 큰 지혜를 증거하는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느냐? 이런 자연의 힘 자체를 최고의 지혜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고 그러므로 창조하고 목적에 합당한 형체를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존재로 깨닫고, 인정해야만 하지 않느냐? 창조의 작품이 가장 예리한 이성을 가진 사상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너희가 존재가 "존재하지 않음" 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 힘이 사람의 의지 안에서 힘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너희가 단지 근사하게라도 한 힘이 질서에 합당하게 창조물들을 생성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한 힘이 멈출 수 없게 활동하게 하면, 너희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창조물의 합목적성과 질서 때문에 감탄할 수 있는 창조물을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이성 덕택에 너희는 이미 너희가 영원한 창조주로 여겨야만 하는 가장 높은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너희가 이런 존재를 부인하기 원하고, 너희가 그의 창조물에서 너희가 볼 수 있는 그의 역사를 단지 인도받지 않은 힘의 효력으로 설명하고, 이로써 너희가 아직 의식하지 못하고 눈이 먼 상태로 역사하는 어떤 존재가 창조물을 생성되게 한 기원이라고 여기기를 원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설명은 진실로 올바르게 사용한 이성의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너희가 구하는 반항적인 도피처이다. 왜냐면 단지 설명하려는 작은 의지가 있는 사람은 먼저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후에 사람이 이미 창조물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존재하는 힘을 거부하기보다는 반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신성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일의 결과가 너희의 혼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안다면, 너희는 또한 내가 왜 너희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왜 너희가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자극해주시기를 원하는 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를 통해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잘못된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너희가 단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너희가 이성으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필요하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일이 실제 이 땅

의 삶의 목적과 목표이다. 이 땅은 단지 인간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난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할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런 일은 너희가 아직 나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의지로 새롭게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은 저세상에서 너희에게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하거나 또는 이 땅의 종말이 임하면, 물질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받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무 늦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세상 지식이 아주 클지라도,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이제 도울 수 있기 위해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분에게 너희 자신을 맡기면, 너희는 훨씬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사람의 생각에 미치는 거짓 권세자의 영향.

B.D. No. 1580

1940년 8월 24일

인류의 행동거지를 보라. 거짓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거짓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혼돈을 일으킨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더욱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짓을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를 깨달을 만한 자신의 판단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의 느낌도 잘못된 길로 인도받는다.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를 둘러싼 걸 형체가 갈수록 더욱 두터워지는 일은 이제 이해할 만한 일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항상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 안의 영이 더 이상 자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혼이 진리를 영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영의 음성은 항상 더 작아 지고, 결국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 이의 결과는 인류가 원래 인류에게 주어진 목표가 아닌, 전혀 다른 목표를 추구하며, 전적인 무지함 가운데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이 땅의 과정이 전적으로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오류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가 결별해야 할 권세를 향해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모든 연결을 끊게 하고, 그를 자신의 전적인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 이러한 상태를 이제 인류 가운데 눈에 띄게 볼 수 있다.

이 땅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단지 아주 희귀하게,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을 생각하거나 또는 모든 영적인 생각을 두려워하며 숨긴다. 비록 하나님을 생각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세력들의 드러나게 나타나는 역사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갈수록 영원한 신성으로부터 항상 멀어 지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들의 힘은 항상 줄어든다. 반면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에게 힘을 주어, 그가 모든 세상적인 추구를 하도록 지원한다. 세상적인 성공은 항상 바로 이런 힘에 의해 보장이 된다. 세상적인 성공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다시 멀어지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대적자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자신의 권세아래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누가 승리하도록 허용할지 자유로운 존재에 대해 승리자가 된다. 존재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잘못되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세상적으로 추구할 만하게 보이는 것들이 자신의 권세아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파괴의 역사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무계획적으로 파괴시키는 역사가 아니고, 이런 파괴의 역사는 영적으로 볼 때 수많은 존재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역사이다. 파괴되는 역사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깊은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다시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추구할 것인가 또는 그것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제는 쇠하지 않는 것을 모을 것인가 결정하는 기로에 선다. 대적자는 파괴되는 역사의 순간에 권세를 잃는다. 사람들이 대적자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때, 자기 위의 다른 주인을 깨닫고, 이 주인에게 향할 기회가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

세상 재물은 악한 권세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구속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머물러 있고, 사람 자신이 그 안에서 영원에 영원한 기간을 걸쳐 머물렀던 장소였던 것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가 극복하기 위해 끝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파괴의 역사를 통해 그에게 세상적인 것의 가치 없음을 볼 수 있게 증명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그가 세상 재물과 거리를 두고 자신 뒤에, 이 땅을 떠난 뒤에 다가오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마지막 형체를 극복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진리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것은 쇠하는 것으로, 어두움의 나라에, 거짓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 안에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파문을 받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만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상 재물을 탐하고, 이런 탐욕으로 거짓 권세자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절대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없다. 그가 세상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동안에 그는 거짓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잘못된 생각에 머물러야만 한다. 왜냐하면 거짓 권세자가 그의 생각에 먼저 역사해서, 그가 진리로부터 전적으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태는 아주 걱정스러운 상태이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소유물을 파괴하면서 대적자의 권세를 꺾을 때, 단지 이 상태가 해결될 수 있다.

아멘

세상에서 나온 사상. 진리. 오류.

B.D. No. 4560

1949년 2월 7일

세상은 사람들과 나 사이를 격리시키고 있다. 비록 내가 분명하게 힘을 나타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희생자가 된다. 그들이 나를 깨달았을 지라도 그들은 나를 떠나고, 내가 그들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단지 즐기는 것이나 물질적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적자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대적자의 오류 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그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라는 가장 아래 말하게 하여, 위로부터 제공된 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생각을 혼돈시킨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배워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그의 판단력은 자신의 잘못으로 약해진다. 말씀이 전해지는 사람에게는 나의 은혜의 선물이 제공된 것이고 그는 이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그에게 귀한 것이 주어지면, 그는 가치 없는 것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하고, 그는 가치 없는 것을 나의 선물과 바꾸기 위해 주저할 것 없이 버려야 한다. 그가 이렇게 할 자세가 없으면, 그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11/186

는 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선물은 그에게서 다시 거두어 진다. 세상은 더 힘이 세다. 왜냐면 거짓과 오류가 있는 곳에는 세상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로부터 오는 진리는 세상 변두리에 있다. 그래서 단지 더 이상 세상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갈망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의 심장이 세상 유혹과 세상에서 나온 모든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근원지가 내가 아닌 사상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순수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너희가 나로부터 선물을 받으려면, 세상과 세상의 대리자들을 멀리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나의 은혜의 선물이 전해지면, 이를 받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주라. 왜냐면 나의 선물은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받는 최고로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선물을 물리치면, 너희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제공할 때, 너희들은 이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고, 이로써 너희는 판단력을 잃는다. 이는 너희가 책임져야 할 너희 자신의 잘못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너희는 너희에게 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없는 자들과 나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 선물은 너희로부터 다시 거둬지고, 진실로 그렇게 쉽게 두 번째로 너희에게 선물이 제공되지 않는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너희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계산해보라. 그런 후 너희에게 주어지는 경고와 권면을 받아들이라. 왜냐면 너희는 끝없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가치가 없는 것을, 세상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러므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것의 허무함. 변화.

B.D. No. 5154

1951년 6월 19일

세상을 향한 열광 속에서 사람들이 모든 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느낌을 잃었다. 감각을 넘어서는 모든 일은 그들에게 비현실적인 일이고, 허황된 상상이고 병적인 자기 암시이다. 내 종들이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원하면, 내 종들은 적게 성공할 수 있다. 두가지의 세계가 서로 대응하고 있고, 한 세계의 주민이 다른 세계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영적인 것을 진지하게 여길 수 없는 허황된 것으로 여기고 거부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에게 나온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 복음은 나에게 증거하고 내 사랑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내 뜻과 내 사랑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종들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줄 때, 그들은 어떤 것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귀한 선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내 피조물이고, 나는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경배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아직 내 대적자에게 속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은 자유의지로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냐면 다가오는 환란이 그들에게 세상

적인 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들이 단지 진지하게 원한다면, 이런 일이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사람들이 온갖 파괴하는 일을 하도록 이끌고, 그는 이를 통해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를 물질로부터 해방시켜 위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추종자들이 깨어나게 하는 일에 기여를 하고, 세상이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는 일에 기여를 한다. 깨달음이 의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것이 무상한 것임을 깨달으면, 어떤 불멸한 것을 구하고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내 대적자의 역사가 심지어 성공을 돕고, 나를 떠난 사람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추종자들을 단지 희귀하게 포기한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대적자의 말을 듣고, 내 대적자가 세상 재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도 또한 세상의 자녀들을 나 자신을 위해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주 아주 민감한 고난을 맞이하게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공허하고, 단지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 남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내 종들은 가능한 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왜냐면 그들이 들은 것을 거부할지라도 그들이 들은 내용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다가오는 때에 그들이 내 일꾼에게 들었지만 거부했던 말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들 안에 작은 빛이 빛나는 것처럼 될 것이고, 그들이 올바른 자세를 갖는다면, 빛나는 화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시대가 시대에 합당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난이 사람을 내 나라를 위해 얻기 위한 내 계획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자유한 가운데 머물고, 사람의 의지에 따라 언젠가 영원 가운데 그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불신.

B.D. No. 5911

1954년 3월 22일

세상에 이미 희생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역사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단지 옳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영의 영역을 설명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전혀 믿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에게 열려야 할 세계와 다른 세계에서 살고 그들에게 열려야 할 세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영의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 영의 세계의 실체를 증명해주었을 것을 정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땅의 세계가 인간과 영의 나라를 분리시키고 이 땅의 세계가 항상 더 많이 관철이 된다. 왜냐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도록 요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항상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들은 믿을 수 없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믿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은 항상 더 커진다. 왜냐면 그들에게 진실로 유일하게 실제적인 것으로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일을 통해 그들이 항상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

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와 이 땅의 세상을 향한 자세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이 드러날 것이다.

사람들이 신적이고 영적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을 단지 희귀하게 믿게 될 것이고 듣는 사람들이 이를 전하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우월하다고 느끼고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작아질 것이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완전히 죽은 인류 가운데 영적인 사막 가운데 올바른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현상들은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가까이 다가온 종말을 증명한다. 왜냐면 상태가 이와 같지 않다면, 이 땅의 종말과 이 땅이 파괴되고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히 세속적이 된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비록 인류가 이런 이유와 예언을 알지 못할지라도, 이 땅을 변형시키는 이유이고 종말이 오고 심판을 받는 이유이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영을 향한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 듣기를 원하지 않고 이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로 영으로 향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었고 그들의 눈이 먼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을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해방시켜 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일을 변화시키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이 비록 아주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계속해서 자극해주고 그들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게 돼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류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 지를 알려줘야 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가 결정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힘.... 이해.... 발명품....

B.D. No. 0595

1938년 9월 25일

이 귀중한 시간에 주님은 그의 중요한 통해 너에게 말씀하시고 상식을 초월하는 깨달음에 도움을 주는 계시를 너에게 준다. 하늘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해 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즉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존재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모든 도구들은 위에서 주어진 말씀을 순수한 형태로 받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기간에 이 땅에 전해진 계시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축복으로 머문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가르침이 주 하나님이 친히 세우려는 것을 파괴하려는 대적자에 대항한다. 이제 대적자의 편으로부터 위험이 닥치면 주님은 이런 역사에 대항하는, 이로써 하나님 자신의 순수한 말씀에 대항하는 계획을 막기 위해 미리 깨닫게 할 것이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모든 깨달음이 단지 세상적인 힘에만 의존하고 모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해 부족에 대항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단결하여 모든 영적인 힘을 부정하는 세상의 사상가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부터 거리를 두기 때문에 날카로운 경계선이 그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힘의 증거를 요구하고 명백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마찬가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멀리서 역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권세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은 모든 면에서 성공했고, 이런 성공이 항상 더욱 믿음을 점점 더 물리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이런 사람들의 성공이 크거나 적게 영적인 힘에 의해 이뤄졌고,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만든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이런 영적 힘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람이 단순할수록 믿음에 더 깊게 자신을 빠져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도 또한 자신의 영리함을 최고로 높으신 신성의 선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적게 주는 영적인 힘의 나타남으로 깨달아야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영은 사람을 자극한다.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더 강렬하게 흘러 갈수록 그러한 사람의 창조하는 일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로써 영과 하나님의 힘이 이 땅의 모든 발명의 원인이다. 그러나 순전히 하나님의 산물로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성취한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동안에는 단지 세상과 이 땅의 추종자들에게 유용한 이 모든 것은 죽음의 시작이다.

각 사람은 단지 그에게 위임된 일을 수행한다. 위임을 해준 존재가 항상 영원한 신성이다. 신성은 자신의 뜻으로 모든 창조될 것을 관장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뿐이다. 오직 그 사람만이 자신의 의지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창조력과 창조의 권세를 사용하여 인류의 공동의 선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

낸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의 손을 통해 만들어 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모든 것이 항상 선한 생각에 부합하기 원한다면, 그러한 작품은 진정으로 오랫동안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 작품에 계속하여 항상 단지 좋은 일만이 일어나고 유지가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을 채우고 이 땅의 물건을 만들 수 있게 했을지라도 단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발명품은 결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힘은 모든 사람에게 구별없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이 힘을 선하게 또는 악하게 이용한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인간이 그런 영향력을 자원하여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악을 따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그들의 오만함으로 모든 성공을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한다. 깊고 진지한 성찰이 그를 가르쳐야만 한다. 이로써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능이 더 높은 권세의 선물이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 지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기 다르게 갖춰주고 각자가 자신의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사를 준다. 영적인 노력이 그에게 눈에 보이는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긴급한 필요성을 제쳐 둔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활용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그에게 준 은사가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조그마한 존재인 그에게 그토록 자신의 풍성한 사랑을 베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명예를 드리는 대신 자신을 더 높인다.

지칠 줄 모르게 행하는 영적인 일이 인간에게 영원 가운데 최고의 상급을 준다. 그러나 세상적인 작품은 이 땅에서 사는 데 매우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영원을 위해서는 주목할 만한 유익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중요한 작품이 죽음 앞에서 무효가 되고, 이웃사람들을 향한 아주 큰 사랑이 만들어내려는 자극을 주고, 작품이 순전히 긍휼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혼이 이 땅에서 혼이 만든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하나님은 작품을 평가하지 않고 만들어 낸 사람의 사랑의 정도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성의 지혜는 이웃사람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도 이성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고 깊은 겸손과 감사로 받은 곳에서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하늘의 아버지와 어린 자녀와 같은 관계가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아주 긴밀하게 이뤄지고, 이로써 인간의 지식이 많은 축복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에서 이 은사를 항상 증가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 빛이 항상 선명하게 빛나고,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을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절대로 이 땅의 소유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아멘

가장 다양한 기회가 사람들에게 제공이 된다. 사람은 모든 기회를 가장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영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을 받아 드리라: 영원한 신성이 허용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중심으로 움직이라. 단지 분산되지 않은 주의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활동의 장을 만든 곳에서, 단지 생명으로 깨어난 하나님의 영만이 올바른 설명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이 무엇인지 스스로 풀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랑 안에 서게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인간 경험의 가장 특이한 복잡성을 해결하고, 지적으로 설명하는 법을 알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영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최후통첩이 주어진다. 주님은 자신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남김 없는 복종을 요구한다. 주님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더 높은 깨달음을 보장한다. 이로써 약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 모든 사람이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에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따라서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쇠퇴하는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정체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위로부터 온 은사에 눈과 귀를 닫는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를 더 좋아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모든 암시는 인간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를 반박하는 과학적 설명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반면에 진리는 고의로 거부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것이 과학이라는 명분 아래에 있고,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지 못한 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연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순수한 진실을 지나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항상 오류에 빠져 있고, 모순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한계가 나타나고, 진정한 배움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정되는 곳에서, 이로써 영원한 신성 자신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탐구의 결과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실제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돕고, 그들이 잘못에 빠지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떠나는 사람들과는 당연히 멀어질 것이다. 그들은 이 땅의 과정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 그들의 영은 생명으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을 피해 도망치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반면에 그는 의심하지 않고 세상지식을 받아드린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향해 있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감각으로 영원한 신성

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에게 주는 지식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은 그에게 그가 가진 가장 큰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 그의 가장 큰 질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와, 창조의 목적과 의미와,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목표에 대해 어떤 것도 모르는 것이 없는 한 분이 단지 답을 줄 수 있다.

이런 질문에 세상의 현자들이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관점에 근거를 댈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단지 순수한 세상적인 생각에서 발생하고, 순수한 진리에서 크게 벗어난 결론을 추측하고 도출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완전하게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질문자도 응답자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의 대답에 만족한다. 왜냐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의 대답이 그에게 호소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그런 대답이 그에게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사랑의 역사를 통해 이미 영원한 신성이 가까워졌고, 따라서 신적인 기원이나 또는 인간적인 기원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떤 것도 모르는 것이 없는 한 분을 고백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 안에 섰다는 것을, 그들의 지식이 단편적이지 않고, 전적으로 일관되고, 상호 보완적임을 완전히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 관철이 될 것이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지식을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영적 지식은 적은 호응을 얻고,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판단할 능력이 없고, 그러므로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이런 무능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순수한 진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성공을 즉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을 오류에 빠지게 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고, 갑자기 깨달음이 그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실제 진리를 진리로 잘 느끼고, 더 이상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면 세상의 현자들이 그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단지 부족한 일부분이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순수한 진리가 사람이 구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게 하고, 그가 진리를 발견하면, 그가 진리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이제 자신이 진리 안에 서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영의 은사에 대한 이성의 사람의 자세.

B.D. No. 5754

1953년 8월 25일

나와 내 가르침을 위해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의 이성을 아주 많이 사용하지만, 이성보다 나를 더 빨리 알아보는 그들의 심장이 적게 말하게 하고, 내 대적자가 이성을 통해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시도하는 반면에 심장은 내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실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심장이 이미 나를 깨달았을 때 이성은 단지 나를 깨달을 수 있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지만 유기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영의 은사, 능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성의 사람은 영이 깨어난 사람과는 다른 길을 가고, 서로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도 또한 다르다. 한 목표는 빛이 충만하고, 다른 목표는 섬뜩하고 어둡다. 사람들이 이성의 길을 통해 진리를 구하면, 그들 자신의 이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를 긋는 반면에 심장은 모든 경계를 넘어설 수 있고, 그에게 모든 영역이 열리게 된다. 그러므로 순전히 단지 이성적으로 연구하지만 그러나 아직 영을 깨어나게 하지 않은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여길 수 없다. 그가 영의 역사를 얻은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그의 이성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나는 그와 그의 영적인 연약함에 인내한다. 왜냐면 그가 최종적인 지식이 그에게 닫힌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자신의 이성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달으면, 그가 비로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지식은 결국에는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증가시킬 수 없다. 왜냐면 지식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제공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식을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지식과 빛을 영접하고, 적합하지 않은 세상 지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받아들인다. 그를 채울 수 있기 위해 그는 자신을 비워야만 하고,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세상 지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하고, 빛을 찾기 위해 빛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내 가르침의 출처가 그에게 증명될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그가 내 나라를 추구할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내 영이 그에게 역사할 수 있고, 심장과 이성이 영접하는 지식을 그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을 통한 진리....

B.D. No. 0587

1938년 9월 18일

세상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위에 두고 이성이 가장 높은 분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성을 또한 좋은 의미로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단지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너희가 공창에 있는 수백만 개의 별들이 어떤 목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지 알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너희는 항상 단지 위에서 이에 관해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설명으로 받아 드릴 수 있지만,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모든 별은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 눈은 작은 점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창조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라. 모든 창조의 작품이 지혜로운 예견으로 모든 창조물에게 정해진 사명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가장 작은 지식도 없이 이 모든 창조 작품 앞에 직면해 있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아마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지혜의 부족함이 분명해질 것이다. 너희는 주님이 너희에게 준 순전히 지적인 은사로 세상의 어떤 것도 자세히 헤아릴 수 없음을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실제 짐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안의 영에게 너희를 위해 일할 자유를 주지 않는 한 너희는 항상 무지한 가운데 머문다. 영에게 자유를 준다면, 이 영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너희가 단지 영적으로 계속되는 성장을 위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에게 모든 영역을 남김없이 알려줄 것이다.

너희는 자연에서 매일 너희가 받아드리는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들을 보고, 아마도 그것들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질문을 할 것이다. 너희가 이를 순전히 이성으로 헤아려보려고 하면, 자세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창조주께 직접 물으라. 진심 어린 기도를 한 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도하는 내면의 음성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면, 창조주는 너희에게 응답을 보류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모든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안전을 아주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사람의 혼을 구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의 말이 사람이 쉽게 연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개인의 운명을 그의 손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을 비교할 수 있고, 바로 자신의 판단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아는 분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연구하고 생각할 가시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것의 내부와 주위와 그 자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해답을 보관하고 있고, 그는 자녀

로서 아버지에게 깨우침을 간청하는 사람에게 해답을 준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고 어린 자녀처럼 해답을 구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해답을 주지 않는다.

창조의 문제에 관한 일이라면 이에 대한 너희의 자만심을 버리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은 세상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성이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은 종종 영적 지식과의 격차가 훨씬 더 넓다. 왜냐하면 높은 위치에서 내려오는 일이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의 자녀들보다 그들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자녀들은 쉽게 간격을 극복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단지 간격을 넓히는 데 기여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인 주 하나님을 내적으로 순수하게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의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

B.D. No. 6931

1957년 9월 30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영을 밝혀 주는 내 빛을 비취줄 수 없는 동안에는 너희는 지혜롭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으로 여기는 것이 비록 이 지식이 진리에 가까이 다가갔다 할지라도 너희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단지 세상적인 지식이고 이 땅의 삶을 위해 가질 만한 지식에 해당되는 모든 지식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일 너희의 삶을 마치고 어떠한 영적인 성장을 나타낼 수 없으면, 이런 지식은 너희에게 소용이 없다. 그러나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 너희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지혜는 단지 나로부터 나오고 긴밀하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쇠하지 않는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항상 단지 이성의 결과만을 활용한다. 너희는 영적으로 얻은 결과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로써 너희는 단지 너희 내면이 아주 어둡다는 것을 너희 안에 빛이 비치고 있지 않음을 너희가 불쌍하게 여길 만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이 헛된 시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얻은 단지 세상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는 영적으로 볼 때 가치가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깨달음으로 만족하면, 너희는 잘못 된 재물을 추구한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목적은 유일하게 영적인 어두움을 바꾸는 일이고 너희 혼이 거하고 있고 빛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너희의 걸형체를 해제하는 일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조차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과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세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너희가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단지 순전히 세상적인 방향으로 연구하고 생각하는데 사용하면, 너희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는다.

너희는 이 땅에서 높은 명성에 도달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이웃들에 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지혜롭다고 일컬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의 이성의 능력으로 너희 사람들이 사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의식적으로 너희에게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으면,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의 성공을 생각해본다면, 너희는 너희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가졌던 자신감이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아마도 너희의 노력이 헛됨을 의식할 것이다. 너희가 아직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목적에 관한 작은 빛의 여명에 대해 너희는 감사할 것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이 너희에게 제공되면, 너희는 스스로 거만한 가운데 이 빛을 무시한다. 왜냐면 역광의 영향을 받는 너희는 부드러운 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빛이라 할지라도 이 빛은 너의 심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역광인 너희의 이성의 지식은 어떠한 내적인 밝음을 주지 못한다. 빛이 너희에게 특별하게 비치면, 너희는 이 빛을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빛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역광을 통해 이미 약해진 눈을 감아야 하고 올바른 빛이 너희 심장 안에 비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는 언젠가 지혜로운 말이 너희 귀에 도달하면, 너희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뒤로 하고 단지 조용한 가운데 들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야 하고 이에 관한 해명을 얻기를 갈망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너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너희가 추구했던 세상 지식보다 진실로 더 큰 성공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세상 지식은 너희 자신의 육체가 쇠하는 것처럼 쇠하게 되고 혼에게 가장 적은 성장이라도 줄 수 없다. 세상 지식은 혼이 인간으로 이 땅에 들어섰을 때와 같은 어두움에 머물게 한다.

아멘

이성을 통한 연구. 진리.

B.D. No. 1918

1941년 5월 15일

연구를 통해 순수한 진리에 도달하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면 진리는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순수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영원한 신성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신성 자신처럼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순전히 육체적 기능을 통해 절대로 영적인 것을 파악할 수 없고,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날카로운 생각으로, 유일하게 이성이 문제가 되는 창조의 위대한 수수께끼나 세상 밖의 모든 것, 질문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순전히 육체적 기능을 하는 일이다.

그런 연구의 결과는 진리와 일치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는 진리가 있을 수 없다. 진리는 어떤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단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공된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진리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제공될 수 있다. 하나님은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아직 오류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달되기 원하지만, 그들이 자원하여 진리를 영접해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힘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 진리에 대항하여 싸우는 권세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권세는 순수한 진리를 거부하도록 사람의 의지를 정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권세의 재촉을 따라 하나님이 없이 살고, 그런 구원을 막는 영향력을 알게 해주는 증거를 가지고 순수한 진리에 대항하여 완강하게 대항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진리를 훼손하려는 추구를 하는 거짓의 권세자에게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 자체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다. 다시 말해 생각은 인간의 의지에 합당하는 결과를 산출한다. 사람이 순수하게 이성으로 연구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알고 있는 선한 세력과 접촉하지 않고 연구한다면, 자신의 의지가 일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의지는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는 대적자의 세력과 더 많이 접촉한다. 그러므로 대적자의 세력에 의해,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힘에 의해 붙잡힘을 받고, 인도를 받는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는 항상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인도하는 자가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세력을 자신의 인도자로 선택할 지는 완전히 그의 자유이다. 인간은 스스로, 다시 말해 영의 세력의 도움이 없이는, 진리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럴지라도 그에게 영의 세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

지원이 필요 없다는 믿음도 이미 악한 세력의 영향이다. 이는 영적인 교만이고, 악한 세력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영적인 교만을 통해 그는 이미 악한 세력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영원한 신성에게 의탁하고,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에게 제공되는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수 있기 위해, 선한 영의 세력을 요구할 때,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다.

아멘

세속 연구자.

B.D. No. 1965

1941년 6월 23일

세상의 현자들은 자주 그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 합당한 결과는 유일하게 영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세상적인 증거는 단지 이 땅의 연구와 관련된 경우에만 항상 유효하다. 그러나 이 땅의 영역 밖에 있는 창조물에 대한 경우에는 근거가 없는 결과이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가 그런 창조물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연구와 인간의 지식에 하나님에 의해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 한계는 단지 하나님의 동의아래 넘어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을 풍부하게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승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하나님 자신이 이런 선물을 나눠주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을 지식으로 인도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깊은 믿음과 진리를 향한 열망을 요구한다. 그러면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제 눈에 띄려는 열심이 있다. 다시 말해 지식 면에서 이웃 사람을 능가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은 그가 연구하려는 동기가 고귀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그에 따라 성공할 확율이 낮다. 진리를 위해, 진리를 헤아리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 진리를 헤아리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확실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희귀하게 믿을 수 있다. 오히려 자주 오류가 전파되어, 그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엄청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가 순수한 진리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서 그런 오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

(1941년 6월 23일) 단지 높은 곳에서 오는 것만을, 즉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로 주는 것만을, 진리로 평가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망상 가운데 자신에게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 그의 모든 생각과 연구는 완전히 잘못된 생물학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는 자신의 결론의 정확성을 너무 확신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생각의 전체 구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권세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사람의 생각을 실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얼마나 작은가! 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가! 이 땅의 모든 지혜는 그 자체로 초자연적인 것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의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 지에 관계없이 초자연적인 것이다. 영에는 한계가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 순전히 이성적인 연구는, 연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에게 요청하지 않는 한, 오류로 인도하는 일로 평가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열쇠를 찾았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런 지혜가 이 땅에 잘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비록 모태가 되는 행성과 이 땅이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런 지혜는 이 세상 밖의 창조물과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인간 연구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사람 안의 영이 동시에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것은 인간의 두뇌가 실패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연구자들이 수년간 공부한 것보다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순수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밖에 있는 것은 단지 영적인 것이다. 인간의 눈에는 단지 빛이 있는 또는 빛이 없는 형체로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붙잡을 수 있는, 육체적인 물질로 되어 있지 않고, 단지 크거나 적게 영적인 형체로 발산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설명은 세상의 모든 연구자들에게 거의 받아들일 수 없게 보인다. 따라서 그들이 순수한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거의 헛된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진리를 이 땅에 전해줘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겉보기의 지혜를 통해, 항상 더욱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이로써 또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더 많이 탐험하기를 원할수록, 영원한 신성을 더 많이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힘을 분석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항상 더 깊은 오류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진리를 위해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아멘

이성을 통한 연구. 영의 사역. 심장.

B.D. No. 2806

1943년 7월 10일

연구를 통해 영의 세계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 방식으로는 영적인 지식을 영접할 수 없다. 왜냐면 지식과 진리의 근원을 탐구하는 일은 심장이 역사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지식은 세상지식과 전혀 다르다. 세상지식을 적게 가진 사람도 영적인 지식을 훨씬 더 잘 영접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단지 사람의 심장을 통해 들리는 영의 음성과 영적인 지식을 대부분 거부하는 이성의 지식에서 나온 반감을 적게 가질수록 영접하기 쉬운 영의 음성을 통해, 영적인 지식을 받기 때문이다.

이성은 좋은 세력의 또는 나쁜 세력의 모든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세력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이성은 많은 지혜를 가질지라도 항상 진리는 아니다. 단지 이성을 통해 얻은 것으로 사람의 생각을 채우는 것은 인간의 지혜이다. 그러나 순수한 진리라는 증거는 단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심장에서 오고, 그러므로 단지 자신 안으로 침잠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 절대로 진리가 외부에서 그에게 임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그 사람 안의 하나님의 영이 생명력 있게 된 진리의 전달자를 통해 받는 경우는 제외이다.

세상적으로 진리를 연구하는 일을 부정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엄청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도 가능하다. 이는 만약에 그가 먼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지식과 세상지식을 줄 때이다. 그러면 그는 단지 지식을 가진 존재에게 길을 열어주고, 이 존재로부터 진리에 합당한 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을 받는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부터 나온 영적 지식은 자신의 이웃을 위해 활용해야, 더욱 깊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이성을 이용한 탐구자가, 이성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동시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생각이 심장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생각이 영적인 세계에 머문다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생각은, 다시 말해 진리에 합당한 생각은 그의 느낌과 의지가 선하고, 고귀할 때 가능하다. 즉 진리에 합당한 생각은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

고, 사랑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가능하다. 왜냐면 그의 생각은 그 안에 있는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은 단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안의 영이 자기 밖의 하나님 사랑의 발산인 영으로부터, 그러므로 이 영은 신적인 영이어서 모든 것을 아는 영으로부터 진리를 받는다. 반면에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발산을 받을 수 없고, 그의 생각이 영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면, 그의 생각은 영의 세계의 지식이 없는 영들로부터 오거나, 또는 세상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생각하는 기관의 작용으로 오고, 이런 결과는 항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 받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은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진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왜냐면 둘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심장의 일부분이므로, 진리도 심장에서 나온다. 진리는 느껴져야만 하고, 심장이 진리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성이 진리를 영접하고, 숙고해서, 사람 자신의 생각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은 연구하고, 고민하고, 탐구하며 모든 것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한, 그의 심장은 침묵하고, 느낌이 없고, 전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결론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유추가 옳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다른 이성을 통한 연구하는 자가 다른 결론에도 달하면, 다시 다른 결론이 유일하게 옳은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간단하고, 선명하게,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해주어,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심장이, 그의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그에게 깨달을 능력이 주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해하기 쉬워져, 믿을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진리 안에 선 것을 알고, 진리를 절대로 반론할 수 없고, 진리는 항상 언제나 똑같다는 것을 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는 진리를 주시는 분이므로써 하나님이 영원히 동일한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이성을 통한 연구. 하나님과의 연합.

B.D. No. 2823

1943년 7월 24일

 든 원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는 영의 양식을 통해 자신의 영이 밝아지면서,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사람이 알게 해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지식이 진리와 일치하는 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생각을 통해 자신의 소유로 만든 것을 옹호할 것이다. 비록 그 것이 순수한 진리일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넘겨 받은 지식이고, 그러므로 그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람들이 그에게 전해준 생각이다.

그런 지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자신의 영적인 재산으로 만들지 않는 동안에는, 그런 지식은 스스로 얻은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깊이 생각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에게 올바른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분리해주시기를, 사람이 옳고 것과 그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를 구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많은 주장을 한

다. 이 모든 것은 이성의 생각을 통해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다르고, 어떤 사람에게도 잘못된 추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면에 순수한 진리를 향한 갈망은 그의 크기가 아주 서로 다를 것이다. 여기에 이성을 이용해서 하는 일의 모든 결과가 서로 다른 원인이 있다. 단지 진리를 향한 열망이 순수한 진리라는 보장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할 수 있고, 계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를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지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진실로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 없이 연구하는 사람의 생각은 진리 안에 머물 수 없다. 왜냐면 진리는 단지 하나님에게 있고, 다른 곳에는 없기 때문이다. 비록 세상의 현자들이 연구를 통해 올바른 지식을 얻는 일을 그들의 삶의 과제로 만들지라도, 올바른 생각은, 즉 진리에 해당하는 지식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그의 지식은 이 땅에서 검증되고 입증할 수 있는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와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지, 인간이 보고, 인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께 이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 응답을 받을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실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달을 것이고, 응답을 진리로 여길 것이다. 진리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진리는 어떤 신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또한 행복하게 하고, 만족을 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런 지식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고, 받은 것을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이성을 이용한 연구자는 자신의 고민과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에게 내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가 의심이 없이 머물지 못하게 되고, 생각이 그의 심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면, 항상 새로운 생각이 옛 생각을 버리게 한다. 그러나 그가 이웃사람들로부터 생각을 받았다면, 그의 확신은 단지 약하고, 그가 진리를 진지하게 갈망한다면, 그런 생각은 곧 흔들리게 될 것이다.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수한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를 향한 의지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자유의지로 얻는 믿음. 선물이 아님. 이성으로 연구하는 일.

B.D. No. 3502

1945년 7월 30일

영계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혼이 빛에 대한 갈망을 갖으면, 깊은 어두움은 밝은 빛 앞에 물러나야만 한다. 왜냐면 혼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것에 대한 혼의 소원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소원에 맞는 빛의 정도에 도달한다. 그는 생각으로 진리나 오류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진리를 추구하면, 그가 비로소 진리와 오류를 있는 그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즉 진리를 진리로, 오류를 오류로 깨닫는 일은 그가 올바르게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나 그가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는 이를 믿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믿음은 자기의 수고로 얻는다. 왜냐면 그가 진리 안에 서려는 의지를, 진리를 진리로 깨달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면, 그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게 되는 일은 선물이거나 은혜가 아니다. 왜냐면 믿음은 항상 진리를 갈망하는 의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치가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다. 즉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총만한 가장 높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단지 이런 믿음을 요구한다. 왜냐면 이런 믿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선행하는 조건이고, 이런 믿음이 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누구든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언제나 영원한 신성에게 조언을 구하고, 생각으로 그와 연결되어 있으며, 의식적으로 최고로 온전하신 존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 사랑이 그에게 준 은혜를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이로써 그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시킨다.

만약에 그가 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올바른 것을 깨달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주 사랑이 총만하고 지혜롭고 전능한 존재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는 단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의 인생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가 이 땅의 안락한 삶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가 진리를 구하고, 단지 이성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즉 학교 교육방식으로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의 목적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이 가장 깊은 심장에서 나오는 갈망이라면, 창조물들이 계속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명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성의 생각은 순수한 진리임을 보장할 수 없다. 왜냐면 진리 자체인 하나님이 깊은 내면의 열망으로 자기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숨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성이 날카로운 사람보다 단순한 사람이 더 쉽게 믿을 수 있다. 왜냐면 이성이 날카로운 사람은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받기 위해 영원한 창조주에게 깊은 질문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곳에서 대신에 고민하고 연구하기 때문이다. 깊은 내면의 열망으로 진리 자체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유일하게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성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설명을 구함으로 당연히 올바른 성공을 할 것이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날카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한 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이성에서 구하지 않을 때, 어린아이처럼 믿을 수 있다. 왜냐면 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심장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도, 만약에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 규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고 지혜와 사랑이 총만한 하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창조물의 기적에 감동을 받으면, 그는 영원한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마주보는 가운데 설수 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을 높인다. 왜냐면 심장의 겸손이 깊은 믿음을 갖게 해주고, 거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막는 방해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겸손한 또는 거만한 영 가운데 있을지는 유일하게 자신을 굽히거나 또는 그를 창조하고 자신이 창조한 존재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존재 앞에 반발하는 가운데 머물려는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다. 믿음은 절대로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질 수 없고, 사람이 스

스로 믿음을 획득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었고, 그가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가 진리를 사모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생각에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빛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갖는다면, 그가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아멘

연구를 통해 영의 영역을 헤아려 볼 수 없다.

B.D. No. 4497

1948년 11월 27일

연구를 통해 영의 영역을 헤아려 볼 수 없다. 이 땅 너머의 세상에 대한 진실된 개념을 잡으려는 일은 헛된 노력이 될 것이다. 너희는 실제 연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인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는 일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길을 통해서 도달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닫힌 영역으로 너희가 들어서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는 영적인 주장이 진리임을 절대로 대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순수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창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관 관계를 찾는다면, 그들은 이런 연관 관계를 영원부터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인간의 성장과정이나 인간의 혼의 성장과정을 연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단지 추측할 수 있고, 그들의 영적인 자세에 따라 크거나 적게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하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지식은 깊은 믿음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지식이고,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고, 이성의 활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식이다. 따라서 이 지식은 연구를 통해 얻지 못하고, 온전하기 되기 위해 자신을 형성하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나 얻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성이 활동해야만 한다.

창조물의 존재 의미와 목적과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단지 이성의 사고를 통해 이해할 수 없다. 가장 많은 배움은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략적이라도 볼 수 없다. 반면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러나 그러면 이성이 아니라 심장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연구자는 먼저 자신의 심장을 형성해 느낌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어야 한다. 즉 그는 이성이 역사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할 수는 없는 지식을 받고, 그럴지라도 이를 진리로 인식하고 대변하게 되어야 한다. 왜냐면 진리를 가진 사람은 또한 진리 안에 섰다는 전적인 확신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성찰이나 예리한 이성의 활동을 통해 결과에 도달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오히려 세상 앞에 자신의 주장이나 가정을 정당화할 증거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심장의 음성을 통해 설명을 받았다면, 그 자신이 설명을 믿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가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동안에는, 즉 그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진리를 제공하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그는 절대로 내면으로부터 연구를 통해 자신이 얻은 생각의 내용을 굳은 진리로 대변할 수 없게 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순수한 진리가 언제 보장을 받는가?

B.D. No. 5569

1953년 1월 3일

너희는 진리가 너희에게 전달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면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자신이 이 기록이 된대로 너희가 진리 안에 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너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진리를 구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전에는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 너희 자신의 소유가 된 지식이 외부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깊이와 지혜면에서 모든 이성을 통한 지식을 능가하게 되는 일이 너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 한다.

너희는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세력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부름에 직접적으로 또는 빛의 사자를 통해 응답하고, 빛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활동하고, 단지 신적인 지식인 순수한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또한 역사한다. 이런 세력들은 잘못된 지식에 집착하고 그러므로 전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가르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르치도록 권리를 이런 세력들에게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가르침이 전파될 수 있게 된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씨는 영원한 아버지 영과 끊을 수 없게 연결되어 있고, 영의 불씨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불씨가 너희를 가르치게 하라. 너희 자신에게서 오는 지식을 받아드리라. 이 지식은 너희가 절대로 이성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지식이다. 영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빛을 주는 지식을 너희 자신으로부터 받아드리라. 이 지식은 너희에게 신적인 영적인 존재에 대해 선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이런 지식의 원천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한다. 이런 원천은 이 땅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부인 너희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불씨가 바로 원천이고, 이런 원천에서 진리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이성은 세력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인간이 순전히 이성적으로 영의 나라에 침투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마찬가지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즉 생각의 물결이 그 주위에서 배회할 수 있고, 실제 이런 생각의 물결이 영의 나라에서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의 물결이 어느 나라에서 흘러나왔는지 제어할 수 없고, 세상 지식이 영적인 발산과 결합될 수 있고, 인간의 이성이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의지에 따라 세력들이 개입하고 의지를 강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견해나 이전의 지식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고, 영의 세력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역사하도록 허용하면, 항상 위험하게 된다.

(1953년 1월 3일) 항상 자신의 의지를 뒤로하는 일을 요구하는 무조건적으로 순수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일이 전제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한다면, 이런 영의 나라의 계시가 항상 높은 빛의 존재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절대로 여길 수 없다. 선한 영적인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고, 항상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가 그

런 세력들에게 무한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세력들이 나서서는 안 되고, 그들은 인간의 의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인간 자신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 부르는 세력들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지식에 집착하는 일은 항상 악한 세력에게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순수한 진리에 관한 일이면, 아무리 심하게 너희 자신을 비판해도 충분하지 않고,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 자신이 너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하기 원하고, 너희에게 약속을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순수한 진리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설명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의 깨달음을 구하라. 하나님께 질문과 염려를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로 너희가 요청한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또한 빛의 사자를 통해 순수한 진리를 전해줄 것이고, 빛의 사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은 빛의 전달자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전달자이고, 그러므로 어떤 오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부름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진리는 하나뿐이고, 진리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나 빛과 어둠 사이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주의해야만 하고, 검토해야만 한다. 대적자는 은신처를 찾은 곳으로 몰래 들어가 혼란을 일으키려고 시도한다.

대적자가 추구하는 일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역사를 알아보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구속 역사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구속 역사를 제시하는 일이고, 사람은 주님이 없으면 영원한 축복이 없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게 하는 방식으로 구속 역사를 제시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하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념을 혼동시키려고 시도한다. 너희의 모든 사랑과 너희의 모든 갈망과 모든 의심과 필요와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오류로부터 보호하고, 자신의 사랑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진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이성에서 나온 지식을 버리는 것이다.

B.D. No. 8424

1963년 2월 28일

오 바른 진리를 체험하려는 의지 만이 그가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는데 결정적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진리에 저항을 하는 동안 그가 자신이 가진 진리라는 증거가 되지 않은 지식을 버릴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동안 그는 자신이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왜냐면 진리는 오류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받기 위해 전적으로 빈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심장이 이미 그가 이성을 통해 얻은 또는 출처를 점검하지 않고 받아들인 영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에게 지식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

그렇지라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성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해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시도해야 한다. 왜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은 강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자신에게 제공되는 영적인 내용을 저항하지 않고 받으려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가 이를 영접할지 또는 거절할지는 그의 자유이다. 나는 이 땅이 단지 약한 빛만 비치고 있는 어두운 영역이라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기 위해 이런 빛이 비치는 영역에 거해야만 함을 항상 또 다시 강조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믿느냐?

그들은 이제 그들 자신의 생각의 내용을 이웃에게 주장하고 이로써 항상 더욱 사람들 가운데 많은 오류가 퍼지게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실함이 항상 자신의 이성의 날카로움을 의심해야 한다. 왜냐면 이런 모든 의심은 축복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적으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순수한 진리에 자신을 닫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가능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서로 다른 영적인 방향이 있다는 것이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한 진리가 있어야만 하고 이 진리는 단지 영원한 진리 자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이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야 한다.

이제 진리를 향한 직접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진리에 도달한다는 보장을 받을 것이다. 위로부터 한 사람에게 지식이 직접 전해지면, 다시 말해 영원한 아버지의 영이 사람 안의 영의 불씨에게 지식을 전하면, 그러면 이런 지식에 반론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의 이성이 이 지식에 반론을 펼 수 없다.

왜냐면 이 지식이 모든 것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빛을 비추어 주고 어두움이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일은 스스로 이성을 통해 얻은 영적인 내용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을 요구한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진리를 구하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첫 번째로 하는 역사는 항상 사람들의 생각에 혼돈을 주는 것이다. 왜냐면 그가 단지 어두움 안에서 들키지 않고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진리에 대항해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 안에 거하느냐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이 제공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 무엇을 영접할지 무엇을 거절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너희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게 너희의 생각을 그 아래에 둘 때에 단지 올바른 결정을 알 수 있다. 이런 기도는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드러져야만 한다.

너희가 모아둔 영적인 내용을 버리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너희는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거나 진리를 갈망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단지 영원한 진리 자신만이 너희에게 전적으로 진리에 합당한 영적인 내용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전에 작은 쌀알 같은

진리라도 가지고 있으면 진리는 너희에게 확실하게 남아 있거나 또는 너희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러나 신적이고 영적인 생각에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 너희 심장을 비우려는 자세는 상급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 상급은 영원한 진리 자신인 진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전할 수 없는 영이 너희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런 가르침을 영접하느냐? 누가 상급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일을 행하느냐?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 가운데 가장 큰 오류를 진리로 대변하고 있다. 그는 이를 쉽게 믿고 영접하는 이웃에게 전하려고 시도한다. 어두움은 더욱 강할 것이다. 그리고 반짝이는 빛의 불씨를 깨닫지 못한다. 빛을 갈망하는 사람은 빛을 향해 추구해야만 한다.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영원한 진리를 향해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진리 자신이 이 땅이 빛을 비추어주어서 그와 연결을 시킨, 하나님을 단지 그 만이 진리를 전달해줄 수 있고 전달해 줄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일깨워 그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사람들 자신을 한때 생성되게 한 분에게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깨닫게 된다.

아멘

혼란의 영. 사랑없으면 진리가 없다.

B.D. No. 6031

1954년 8월 22일

혼란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한다. 진리가 왜곡되고 잘못 된 견해가 유일한 진리로 간주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모든 의견은 지지자들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런 모든 가르침과 세계관에서 옳은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일을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 그들이 진리를 찾는 일이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는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었고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사랑이 더욱 차가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가 점점 더 적게 대변될 것이고 전에 전혀 없었던 혼란이 인간의 생각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잘못 된 견해가 과잉 된 열심으로 대변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자신의 권세를 강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 빛과 영원한 진리에 대항해 싸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우월하고 사람들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에 성공을 한다. 그러나 밝은 빛의 섬광이 밤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뚫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이런 밝은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고 몇몇의 빛의 전달자들이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한다. 이 길은 광야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는 진리의 길이고 오류와 혼란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빛의 전달자들이 진리인 모든 것을 밝혀주어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진리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고 사랑을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이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이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빛의 전달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빛의 전달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쳤을 것이다. 종말의 때에 많은 오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곳에 아주 밝은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어두움의 권세자로서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빛이고 가장 강한 어두움을 돌파할 수 있고 진실로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두움 속에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어두움을 다스리는 주님이고 빛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선물한다.

아멘

너희 사람들이 오류와 거짓에 단지 사람들의 영적인 쇠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진리가 유일하게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희는 오류와 거짓이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탄의 그물이고 그가 항상 진리가 너희에게 전달되는 일을 막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모른다. 순수한 진리는 생명이 깨어나게 하는 생수이고 반면에 진리가 아닌 것은 이를 통해 너희가 죽게 되는 독이 있는 음료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 한대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면,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제공해야만 하고 너희가 오류와 거짓과 진리와 모순되는 거짓 가르침을 받아드림으로 처하게 되는 재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만 한다. 나는 이런 잘못 된 가르침에 빠질 위험에 대해 너희에게 경고해야만 한다.

너희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독이든 음료를 주면, 너희 사람들은 절대로 너희의 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고 이로써 너희의 상태는 점점 더 비참해질 것이다. 유일하게 사탄이 목표로 하는 일은 너희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일이고 너희가 너무 약해서 위로 올라 가려는 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이고 그가 너희를 확실하게 깊은 곳에 묶어둘 수 있게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주고 진리를 전하는 일을 돌보게 될 것이다. 진리는 나로부터 나왔고 전적인 힘으로 항상 너희에게 역사하고 너희를 높은 곳으로 끌어드린다.

사람들이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잘못 된 생각과 나로부터 온 진리와 모순되는 가르침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들은 독약을 점점 더 탐욕스럽게 마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인해 순수한 진리의 생명수보다 독약을 더 많이 즐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아직 오류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또한 빛의 혜택을 느낄 수 없다. 그들이 또한 아직 대적자가 그들에게 제시한 대로 잘못 된 개념을 갖는 동안에는 그들은 나를 아직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서지 못한 모든 사람은 내 사랑뿐만 아니라 내 지혜와 전능함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은 모순에 부딪힐 것이다. 반면에 순수한 진리는 전혀 모순이 없다. 사람들의 생각이 동일한 경우는 단지 드물다. 여러 의견이 있다는 일이 너희가 아직 진리와 거리가 멀다는 증거가 돼야 한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모든 견해가 만나고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지킨다.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없고 조화가 없고 더 이상 선명함도 없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모든 곳에서 내 대적자가 자신의 손을 펼쳐 역사한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의 생각을 혼동시키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유일하게 진리를 체험하려는 진지한 갈망이 없는 동안에는 내 대적자는 자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좋은 번식지를 찾게 될 것이다. 단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그의 영향력과 독이든 입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착상과 지식을 더 사랑하고 추파를 던진다. 그들의 지식은 자신이 받았고 더 이상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은 지식이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항상 순수한 진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출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 대적자가 항상 더 많은 오류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방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은 또한 절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된다. 높은 곳은 단지 진리를 통해 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오류와 의식적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통해서도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위험을 알아야 한다. 이 위험은 대적자가 너희를 아래에 묶어두기를 원하고 항상 너희의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어둡게 하려는 위험이다. 너희는 또한 너희가 아직 나와의 긴밀한 유대와 진리를 향한 진지한 갈망을 통해 그의 영향력에 대항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아직 너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그를 상대로 너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방어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순수한 진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갈망하지 말아야만 하고 이런 갈망으로 나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이로써 내가 너희를 오류와 잘못 된 생각과 내 대적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게 해야 한다.

이런 진지한 갈망이 너희에게 가장 안전한 보호이고 또한 너희에게 진리가 전달되는 일을 보장하고 너희가 이제 이런 진리를 통해 무엇이 모순이 되는 지를 빛이 충만하게 보게 되는 일을 보장한다. 너희가 진리를 갈망하면, 너희는 나를 갈망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죽음을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생명은 단지 진리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잘못 된 가르침이 주는 나쁜 효과.

B.D. No. 7368

1959년 5월 20일

너희의 사람들은 잘못 된 가르침을 통해 잘못 된 생각에 빠진다. 잘못 된 가르침을 항상 잘못 된 결론을 내리게 하고 다시 새롭게 잘못 된 생각으로 인도한다. 잘못 된 가르침은 정당하게 사탄의 술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생각의 성은 항상 커지고 결국에 가서는 혼란을 막을 수 없고 사람 자신이 이 가운데 올바른 것을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류와 거짓이 절대로 빛과 선명함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잘못 된 가르침에 대항해야만 한다. 잘못 된 가르침이 전파되어 사람들의 생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전에 초기에 즉시로 수정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기를 추구했으면, 그들은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은 잘못 된 가르침으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은 단지 모든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실제 깨달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체가 사랑과 지혜와 권세인 하나님의 성품을 단지 가장 적게라도 의심스럽게 하는 가르침이면, 이는 잘못 된 가르침이다. 이런 진리성을 시험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지혜와 권세를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재빠르게 잘못 된 가르침으로 버릴 수 있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이 끈질기게 주장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자신이 오류에 거하는지 진리 안에서 거하는지 무관심하고 마찬가지로 절대로 진리를 끈질기게 대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류는 더 잘 대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더 많이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데 더 많이 반발하는 일이 가까운 종말의

징조이고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기를 더 좋아하고 빛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 가까운 종말의 징조이다.

비록 여러가지 가르침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에 대한 모든 해명을 거부한다. 그들은 그들의 영의 상태를 항상 더욱 어두워지게 한다. 그들 자신이 진리를 향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항상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지는 강요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잘못 된 가르침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진 사탄의 역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자신에게 올바른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를 잘못 된 가르침으로 여기게 하기 힘든 많은 잘못 된 가르침들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 된 개념을 주었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수를 통해 또는 전통을 통해 받아들인 이제 복음으로 주장이 되는 많은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권세를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는 하나님 지혜를 의심스럽게 만드는데 기여하면, 사람들이 가장 높은 존재로 가장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을 모든 심장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고 절대로 자녀와 아버지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에게 믿게 요구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에게 복음의 형태로 전해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함과 일치되는지 시험해봐야 한다.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시험하면, 너희는 어떠한 가르침이 너희에게 의심스럽게 보이고 의심스러운지 놀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내면이 빛이 되게 스스로 많이 기여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진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영을 깨우쳐주기를 너희가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기를 너희를 도와서 잘못 된 가르침을 잘못 된 가르침으로 깨닫게 해주고 너희가 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단지 진리 만이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든 잘못 된 가르침은 너희의 생각에 혼란을 주고 결국에 가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지혜이다. 하나님은 권세이다. 한 가르침이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증거하지 않으면, 이 가르침은 정당하게 잘못 된 가르침으로 버릴 수 있다. 사람이 해명을 진지하게 갈망하면, 해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영적 교만.

B.D. No. 3641

1945년 12월 30일

영적 교만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일을 방해한다. 단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가운데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의 깊은 겸손을 통해, 긴밀하게 진리를 구하기 전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의 깊은 겸손을 통해, 사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모두가

생각해야만 한다. 사람은 실제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여 지식을 얻는다. 또는 그가 동의하는 외부로부터 온 지식을 받고, 그는 이를 굳게 붙잡는다. 이 지식이 그의 소원과 관점에 맞으면, 이 지식은 그에게 대부분 충분하고, 그는 모든 제공되는 지식이 자신의 지식에 합당하지 않다면, 자신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이를 거부한다. 그는 다르게 생각하는 자신의 이웃 사람들을 거만하게 대하고, 그들 편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은 어렵다. 왜냐면 단지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여기고, 자신의 능력으로 영적인 지식을 깨닫기에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하게 진리를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푼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원한다. 사람이 아직 오류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는 믿음이 사람들이 진리를 구하는 일을 막는다. 왜냐면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가장 풍성한 지식을 갖고도 내적으로 겸손하게 머물고, 자신의 지식을 증가시켜 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나중에 지식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거대하심 앞에 자신을 끝없이 작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는 항상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빠르게 중단한다. 왜냐면 그는 가르침 받기를 원하지 않고, 대신에 항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거만함으로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꾼을, 그에게 진리를 전해주려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왜냐면 그가 영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이성의 생각으로 그에게 반박하는 모든 것을 이기려고 시도하고, 영의 역사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는 자신이 성숙하고, 현명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일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진리의 제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는 하나님 자신에게 영을 깨우쳐 주기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순복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만한 영이 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는 진리에 도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영의 영역을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깨달음이 비로소 그로 하여금 질문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겸손하게 진리를 구한다면, 비로소 그에게 진리가 전해질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러나 거만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계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월등함과 영적인 교만.

B.D. No. 6830

1957년 5월 14일

너희는 영적인 우월과 영적인 교만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실제 이 지식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고 영적으로 월등하다는 느낌을 주는 올바른 지식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적인 교만은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이 현명하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의 이성의 결과를 대변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특별하게 부족한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은 실제 자신의 지식을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대변한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으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칭함 받는다. 단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번 깨달은 진리를 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진리가 사람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전적인 확신을 주고 그러므로 영적인 월등함을 주는 것이 진리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서 서있다는 확실한 느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의 선물이다. 이 영의 선물을 날카로운 이성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없고 이 때문에 이에 관해 말로 논쟁할 수 없다. 영적인 우월과 영적인 교만의 각각의 개념에 특징이 있다. 영적인 우월은 절대적인 진리를 향한 갈망과 영적인 추구를 전제로 한다. 반면에 영적인 교만은 그 사람에게 진리에 도달하는 일이 진지하지 않고 단지 자기 율음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다. 왜냐면 진리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아주 빠르게 그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월하게 만드는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은 순수한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작아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이다. 이 것이 그가 깨달은 진리를 열심을 가지고 확신 있게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여기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 실제 알려는 갈망이 있는지 그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이나 또는 이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깨우쳐 주기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이성을 통해 생각해 낸 것으로 자신이 만족하지 않는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는 항상 오류가 진리 곁에 함께 간다는 것을 염두해야 하고 사람의 이성만으로 점검해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그는 더 나아가 단지 저항하려는 영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가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말해야만 한다. 반면에 영적인 우월은 하나님과 가장 깊이 연결된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에 조건이 없이 복종하는 일을 전제로 하고 그러므로 그가 비로소 진리에 합당한 진리를 갖게 해주는 겸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사람을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해주고 그에게 아주 확실한 느낌을 준다. 그는 오류를 밝고 선명하게 깨닫고 그가 이런 영적인 우월감의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는 확신을 가지고 지식을 대변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그는 아주 빠르게 대적자에게 놀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말하도록 요청을 받는 곳에서 침묵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진리의 대변자로서 합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책망을 들어야만 하고 그는 그가 깨달은 오류에 관용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는 세상에 오류를 심고 전하는 자들에게 입술의 검으로 대항해야 할 주님을 위한 전사가 아니다. 왜냐면 진리를 받은 일은 진리를 대변해야 하는 의무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류를 대변하는 사람은 진리를 긴밀하게 갈망하는 가운데 이를 얻었다고 절대로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전적으로 솔직하게 진지하게 진리를 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변했다면, 그는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어디에 오류가 있는 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교만은 자신의 이성에서 나온 지식을 아주 확신하고

있어 이를 버리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로써 그가 진리에 도달하는 일은 어렵게 될 것이다.

아멘

거만의 위험.

B.D. No. 8281

1962년 9월 24일

내 말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말을 심장에 영접하면, 그는 깊은 겸손가운데 남게 된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가혹한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 자기 자신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깨달음이 자기가 항상 연약하고 힘과 능력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것이다. 그는 겸손한 심장으로 나에게 와서 힘과 능력을 구할 것이다. 반면에 자신과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며 그는 이웃들 앞에서 교만해질 것이다.

이 교만은 남을 낮게 보고 사랑이 없는 판단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이나 영적인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거만한 사람은 이웃들을 낮추어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항상 믿는다. 이러 거만함은 그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내 대적자의 요소이다.

대적자는 사람들과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큰 무리의 피조물들을 자기와 같이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했다.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그가 인간으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봐야 할 때에 거만한 영의 것들이 아직 많이 달라붙어 있다. 거만함은 온전하지 못한 걱정스러운 증거이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와 싸워야만 하고 깊은 겸손으로 나에게 나와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이웃들에 대해 자기를 높이지 않게 되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 전적인 이해심을 가지게 된다. 그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깊은 겸손은 나와 의 올바른 관계에 속한 것이다. 깊은 겸손은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고 그에게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만든다. 겸손은 예수님께 진지하게 부르짖게 하고 그는 예수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나는 내 은혜를 베푼다" 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그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자신 스스로 온전 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는 높은 정도의 지식을 소유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를 계속 겸손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주는 것으로 피조물 들을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하며 그러나 거만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거만은 항상 그의 깨달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대적자는 빛을 흐리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대적자의 일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가 대적자와 대적자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아직 이런 죄악과 열심히 싸워야 한다. 내 대적자가 항상 너희에게 잘못 된 존귀감을 불어넣어 주고 너희 안에서 자만한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공격할 만한 요소 찾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해야 하고 모든 거만한 생각을 싹부터 없애려고 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구원자요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교만으로 타락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깊은 겸손의 길을 간 것을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 속죄하기 위해 그에게 요구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교만으로 인해 일어난 깊은 타락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길은 단지 겸손의 길을 통해 이뤄진다. 너희는 인생의 길에서 너희에게 너희가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존재라는 깨달음과 다시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단지 내 도움을 부탁하기만 된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아직 거만한 영에 있는 자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는 나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서 이웃을 포함하는 올바른 사랑이 발전되어 나올 수가 없고 그는 자신의 거만 때문에 사랑을 선물하려는 나를 멀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의 삶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만함은 영적인 성장을 주지 못하고 내 대적자가 그를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더 타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이 죄악과 싸우라. 너희 자신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하라 그러면 너희의 실수를 찾게 될 것이고 이 실수를 작게 만들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자신을 잘못 평가해 스스로 새운 권좌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겸손만이 너희를 성장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이로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겸손 가운데 나에게 오고 너희의 기도가 진실되고 헌신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를 내 자녀로 나에게 이끌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최종적으로 내 대적자와 결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창조한 능력보다 자신을 더 높임으로 내 대적자가 된 것이다.

아멘

“현명하다는 사람의 이성은 거부를 당할 것이다.”

B.D. No. 2375

1942년 6월 20일

세상의 현명한 사람의 무기는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고, 그는 이런 무기로 항상 세상에서 자신을 관철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가 얻은 지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의 지혜는 불가침 하게 된다. 이런 지식을 의심하는 사람은 바보로 간주된다. 반면에 영적 지식은 증거로 입증할 수 없고,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없고, 계획에 따라 이웃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 지식은 사람의 이성을 통한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심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 지식은 이 땅의 지혜와 공통점이 없다. 이로써 세상의 현자들이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 지식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아는 사람들의 모임에 속하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전혀 비판을 할 수 없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영적 진리를 반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결점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세상 지식이 영의 영역에 침투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얻은 영적인 내용이, 세상의 지혜가 이 땅의 밖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런 세상 지혜를 뒤집게 될 것이다. 영적인 지식은 세상의 지혜로 얻은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모든 증거를 반박하고, 이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지식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지식을 부적절한 것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이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소한의 기여도 하지 않고, 세상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들을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상 현자들의 지혜가 제시하는 것은 세상 현자들의 지혜가 제시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고, 생각이 절대로 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식면에서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와 연구의 결과에 모순이 되는 것을 진리로 깨달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이성의 활동으로는 올바른 지혜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세상적인 연구자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영의 깨달음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진리 안에 거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깨우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이런 깨우침은 하나님의 힘이 흘러가는 일이고, 이런 일은 단지 이런 힘의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그릇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

고, 그렇지 않으면 힘의 흐름이 받아드리는 그릇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요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나온 모든 영적인 내용들은 가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은, 이성을 통한 사고가 결과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항상 또 다시 추월을 당하거나, 버려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진리임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함으로 나온 영적인 결과는 유지가 되고, 항상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들은 진리와 일치하고, 진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를 진리로 깨닫기 때문이다. 단지 이성적인 생각만을 가진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는 진리를 갈망하지 않고, 진리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현명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로써 그의 무기인 증거를 그의 손에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발산해준 영적 결과 앞에서 증거가 견뎌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의 대적자들은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로 싸우기 때문이다.

영의 역사를 통해 선포된 일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곳에 진리가 있고, 이 진리가 세상 현자의 지식을 훨씬 능가하다는 증거가 주어질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이 지혜가 인간의 이성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입장과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단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게 되고 또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파괴하기를 원한다."

B.D. No. 4744

1949년 9월 20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파괴하고, 이해하는 사람의 이성을 버리고, 세상 지식은 없지만 사랑으로 나를 향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세상이 이런 지식을 통해 자신이 부정하고 원하는 권세가 계시해준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의 현자들이 놀라게 되어야 한다. 나는 또한 세상을 통해 영적인 지식을 받고 이런 지식을 이성적으로 활용하지만 나 자신에게 영적인 지식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의 현자라고 칭한다. 나는 또한 나의 가르침을 대변하지만, 내가 준 모든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대변할 수 있기에는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진 그러므로 내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나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현자라고 칭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들을 축복되게 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또한 나의 말씀을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은혜의 선물로 깨닫는다. 세상 앞에서 현명하게 보이는 사람은, 이성이 말하게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머물 것이고, 나에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은밀하게 심장 안에 나의 임재를 허용하는 곳에서 내가 역사하고, 그의 영을 밝게 해주면서 눈에 띄게 나를 나타낸다. 이로써 그가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게 되어, 세상적인 이성

과 세상적인 지혜가 헤아려 볼 수 없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내가 그들의 심장을 아직 세상으로 향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섭리할지라도, 나는 항상 은밀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단순한 지장을 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 기울이도록 해주기를 원한다.

화려함과 광택이 있는 곳에 지혜가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면 지혜는 신적인 것이고, 나로부터 나와 영적으로 준비된 합당한 그릇을 찾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나에게 의해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기 위해 세상적인 장점이 필요하지 않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진리에도 달하는 열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해한다는 사람들의 이성은 진리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소유한 것으로 믿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의 열쇠는 사랑이고 사랑으로 머문다. 이 사랑은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의 심장 안에서 가장 밝은 불길로 타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심장은 영원한 진리를 끌어들이고, 영원한 진리가 이제 사람의 심장 안에서 들을 수 있게 자신을 표현하고 그를 진리로 인도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고, 모든 심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제단을 쌓을 것이다. 사람은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선물을 나눠줄 것이다. 사람은 받아들이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깊은 지혜와 가장 밝은 지식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설교를 듣고 이 땅에서 이미 축복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영의 나라에서 축복되게 될 것이다.

아멘

살아 있는 지식 또는 죽은 지식.

B.D. No. 5890

1954년 2월 28일

지혜로운 사람에게 숨겨진 내용이 단순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그가 어린애 같은 겸손으로 나에게 헌신하면, 그는 내 은혜의 선물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받지 못한다. 왜냐면 그가 단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그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에는 한계가 있고 단지 특정한 조건 아래서 이성이 한계를 초과할 수 있고 지혜로운 이성의 사람은 이런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무지하고 단순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조건을 성취할 수 있고 이로써 영적 지식에서 상당히 앞서갈 수 있다. 그러므로 광범위하게 공부하는 일이 내가 나 자신을 계시해줄 수 있게 하는 깊이 겸손한 믿는 사람이 소유하는 깨달음을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

공부하는 사람은 실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가 나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관계에 이루지 못한 동안에는 항상 죽은 지식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가 나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관계를 갖는 일이 내가 그에게 설명해주게 하고 이로써 그의 지식이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가 그의 지식을 확신을 가지고 대변할 수 있게 되고 그는 훨씬 더 먼 길에 도달한다. 그는 먼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높은 지식에서 내려와 자신이 이성으로 영접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는 진리때문에 자신

이 진리를 얻도록 도와주기를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비로소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비로소 그를 제대로 도울 수 있게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 전혀 공부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만나게 하면서 이런 사람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이로써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위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내 계시가 주는 축복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그가 생명력이 있게 내 가르침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내가 주는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자신이 무지하다고 느끼고 단순히 내가 그의 영을 깨우쳐 주도록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기를 원한다. 그는 나 자신이 모든 진리의 출처이고 내가 빛의 근원이고 나에게서 직접 지혜를 받는 사람이 단지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겸손하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뢰로 나에게 직접 가는 길이 비로소 그가 올바른 지식을 얻게 하고 그는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공부를 통해 얻은 영적 지식은 다른 세상 지식보다 더 높게 평가할 수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단지 세상적인 인상을 준다. 예외로는 듣는 사람이 나와 올바르게 연결이 되어 내가 그런 사람에게 부족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모든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그에게 가르쳐주는 경우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제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항상 또 다시 모든 단순함과 겸손함으로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고 그가 진정으로 지혜롭게 될 것이다.

아멘

이성을 통한 지식. 교육. 계시들.

B.D. No. 6488

1956년 2월 29일

사 람들은 자신의 이성을 너무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영의 역사와 영의 역사의 결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길을 통해 얻은 지식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이런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에 이성적인 사고가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이 이성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증거를 인정해야만 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이성의 활동이 없이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깨어난 이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과대 평가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이 유일하게 지혜로운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과대 평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성을 평가하지 않고 유일하게 심장의 사랑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은 지혜에 도달하는 열쇠이다. 사랑은 가장 숨겨진 것들에 대한 가장 밝은 깨달음을 제공하고 사랑은 전에는 닫혀 있던 영역을 개관해볼 수 있게 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보장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깊은 지혜를 탐구한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유일하게 이성만으로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세상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분리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 자신에게 아직 사랑이 없이 단지 인간의 이성만으로 분석하는 동안에는 신학도 또

한 세상 지식에 속한다. 신학은 사랑을 통해 비로소 영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비로소 진리에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는 사람이 진리에 합당하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교육 과정을 아주 높게 평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곳에서 단지 진리가 입증 된 것으로 여기는 동안에는 진리로 인도하는 문이 그에게 닫혀 있게 된다. 이성이 탐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사랑이 이성의 생각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하게 도달한다. 왜냐면 사람의 생각이 이제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이런 일은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밝고 선명하게 깨닫고 자신 안에 전적인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의 이성을 버리고 현명한 자의 현명함이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랑을 통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교육 과정을 거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 겸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만하고 자신의 이성을 너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없이는 영과 생명이 없는 단지 죽은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그는 단지 세상 지식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식도 또한 사랑이 없이는 오류가 없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단지 이성을 통해 얻은 것과는 다르게 얻은 영적인 내용을 의심하고 저항하는 모든 사람이 심장에 염두해둬야 한다. 이런 사실을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한다고 믿는 단지 이성으로 그들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단지 세상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염두해둬야 하고 사랑이 비로소 그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에 적합하게 만든다는 것을 염두해둬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진리로 인도 받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순수한 진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이성은 가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사랑을 통해 깨우침을 얻고 영을 통해 밝아지는 일을 체험한 사람이 이 땅에서 아주 크게 축복이 되게 역사할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장 깊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공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아멘

가르치는 직분. “내가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

B.D. No. 8069

1961년 12월 28일

너희 자신 스스로 올바른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너희는 가르치는 직분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다. 너희가 이웃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면, 바로 이런 가르칠 내용을 너희는 진지하게 시험을 해보아야 한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온 순수한 진리가 단지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험을 대부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진리라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당연하게 영접을 하고 (1961년 12월 28일) 근원을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않고 전하려고 한다. 그러나 가르치는 직분은 책임이 있다. 왜냐면 그는 큰 축복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들의 심장에 독을 넣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만이 혼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류는 혼에게 진정한 독약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진리를 위해 대변할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나는 그의 생각을 일깨워 주어서 그가 오류에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내 도움을 체험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그를 진리 안에서 인도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왜냐면 그럴 때 너희가 나와 동행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류는 너희들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의 빛에 도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내 대적자를 동행자로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전하면, 큰 책임을 지게 된다. 너희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너희는 이성을 통해 영적인 내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너희는 충만하게 이성의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에게만 단지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진리로 인정할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느냐? 너희가 나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나에게서 진리를 받기를 갈망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순수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때문이다. 왜냐면 진리를 영접할만 한지 누가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지 나만이 알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성숙도는 내 의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의 진지한 의지에 달려 있다. 내 사랑의 흐름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진리 안에서 영으로 나와 연결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사랑의 흐름은 진리인 내 말이 생각의 형태로나 들을 수 있게 전해진 말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보장을 받을 것이다. 그의 생각은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는 오류에 빠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와 연결과 진리를 향한 갈망이 그를 이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아직 영적인 연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로부터 진리가 전해질 정도가 되기 위해 어떠한 선행조건을 성취시켜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서 이런 갈망을 찾을 수 있느냐?

무관심하게 전통에 따라 영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를 영접하고 어두움에 빠지게 된다. 또는 그들이 거하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못한다. 왜냐면 잘못 된 가르침은 빛을 전할 수 없고 어두움을 더욱 깊게 하기 때문이다. 혼은 영적인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그들은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빛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이 너희 사람들에게 내 계시의 긴급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한다.


왜냐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고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을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 빛은 단지 위로부터 올 수 있다.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은 스스로 빛으로 충만하게 비추임 받기 위해 영원한 빛과 연결이 되어 한다. 진리가 사람들에게 도달하면, 영적인 위험은 진실로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진실로 행할 것이다. 왜냐면 단지 진리가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진리가 너희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단지 진리를 통해 너희 사람들이 축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생각의 근원은 사람의 심장.

B.D. No. 2111

1941년 10월 13일

 든 생각은 깊은 심장에서 나와, 이제 먼저 생각을 생각으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신체 내부 기관으로 전달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을 의식하려면, 먼저 사람의 심장 즉 자기 내면의 깊고도 깊은 곳에서 생성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를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심장에서 느끼는 것이다. 이 느낌이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 느낌을 심장에서 감지 못하지만, 이 느낌은 느낌의 세계에서 나온 것이며, 두뇌로 전달이 되어, 생각으로 영접이 되고, 인간의 의식의 세계에 나타날 때까지 어느정도 붙잡아 둔다. 사람들은 생각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신체기관의 생물학적 작용으로 두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생각의 근원이 심장인 것을 믿을만 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느끼는 중심지를 심장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생각을 하나의 느낌으로 여기려고 노력한다면, 이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영접하는 기관 안에 번개같이 영적인 흐름이 불어 넣어 준 것을 사람의 의지가 붙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영적인 힘이고, 심장을 통해 두뇌로 전달되어, 두뇌에서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만약에 의지가 약할 때에는 인간의 의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사라진다.

한 생각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인체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는 항상 그의 의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면, 신체의 기관이 작동하기 시작해, 심장으로 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런 생각은 이미 존재하는 생각과 어울린다. 다시 말해 이 생각은 즉시 존재하는 생각에 정리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 생각을 받아들여지거나, 버린다. 사람의 생각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은 심장에서 오는 모든 느낌이 그림처럼 반영되도록 만들어졌다. (1941년 10월 13일)

사람의 의지로 이런 그림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런 그림은 이를 위해 지어진 세밀한 신경막에 각인이 되어, 그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바로 기억력이라고 한다. 받은 인상이나 그림들이 아주 나중에 인간의 의식세계에 다시 나타나면, 생각을 위한 기관이 활동한다. 생각하는 기관은 수많은 그림들이 저장된 신경막에서 사람의 의지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골라낸다.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인상이나, 생각으로 형성되기 전에, 사람의 심장을 움직였던 일들을 다시 기억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로 영접해서 인상으로 남은 인상은, 수도 없이 많은 인상이 이 그림들을 약화시킬 때까지, 다시 말해 기억력이 약해져, 더 이상 의식의 세계에 떠올릴 수 없게 될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적 인상들이 이제 세상적인 인상과 그림들을 물리칠 것이다. 만약에 심장이 영의 세계에서 오는 힘의 흐름을 받을 준비가 됐다면, 인간의 의지도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 생성된 생각을 두뇌로 보내고, 붙잡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힘의 흐름을 유익하

게 생각해, 이를 통해 생성된 그림들을 아주 자주 선명하게 보는 일이 그가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들은 특별하게 세밀하게 새겨져, 곧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채운다. 그러므로 힘과 생각은 하나의 같은 개념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에게 임하는 생명력이 생각의 근원인지, 영의 세계에서 받은 힘이 생각의 근원인지의 차이이다. 항상 생각은 심장에서 생성된다. 왜냐하면 모든 힘의 흐름은 먼저 심정으로 향하고, 심장에서부터 다시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단지 사람의 의지를 통해 생각이 두뇌로 전달되는 것을 막거나, 또는 생각이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기 전에 물리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생각에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의지가 어떤 생각에 깊은 인상을 받을지를 결정하고, 어떤 생각을 의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멘

생각하는 일.

B.D. No. 6375

1955년 10월 12일

생각이란 무엇인가? 연구자 스스로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가 단지 순수하게 이성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너희는 절대로 이 질문에 대한 학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의 근원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영의 세계에서 발산되어 너희 사람들 주위에 전파와 같이 맴돌고 너희가 너희의 의지로 영접할 수 있고 또는 물리칠 수 있다. 생각은 생각하는 기관에 접촉하려는 발산이다. 생각은 생각하는 기관이 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시 말해 너희가 의지적으로 너희에게 발산해주려는 존재와 접촉하기 원하면, 생각하는 기관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는 힘을 주고받는 일이고 양쪽이 참여하여 이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쪽과 접촉을 하느냐는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신체기관이 정해진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도록 너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모든 기능을 위해 정해진 특별한 기관이 있고 이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일하고 일부는 자연의 법칙 아래 있다. 왜냐하면 이 일부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더 나가서 너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런 사실의 의미는 어느 특정한 신체 기관의 기능은 너희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가 인생을 사는 동안 시험을 받아 입증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속하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생각할 능력으로 주어진 이성의 활동이고 너희 자신이 이성의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성의 활동은 발전시키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단지 너희에게 주어지고 너희를 감싸고 있는 전파와 같은 영적인 것을 생각할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하게 하는 일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흘러 들어오는 생각을 영접해야만 하고 이제 너희의 이성을 활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을 선택할지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는 전적으로 너희의 자유이지만 의지와 선택하는 일이 너의 혼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생각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한 빛으로 나오는 영적인 힘의 발산이다. 먼저 빛의 존재가 영적인 힘의 발산을 영접하고 이를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쉬지 않고 전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 현재의 어두움의 권세자는 한때 빛과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도 자신으로부터 나온 영향력을 존재들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서 양쪽으로부터 생각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영향력은 항상 생각의 파장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의지에 합당한 생각을 영접한다. 생각은 절 대로 강요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의 의지와 성품에 따라 영접을 받거나 거부 된다.

사람 자신이 생각의 근원자가 절 대로 아니다. 비록 그가 자주 자신의 이성의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이 자신의 영적인 산물이라는 확신을 가질 지라도 그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는 단지 그에게 다가와 맴돌고 있는 생각의 파장을 이용한 것이다. 그는 창조주가 그에게 부여한 생각하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어두운 생각의 흐름에 더 많이 향하는 사람에게 빛이 충만한 생각이 항상 자주 그 안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그의 생각하는 기관 안에 머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방향이 절 대로 사람의 의지와 반 대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가 어떤 생각하기 원할지 선택하는 일은 그의 고유의 기능이다.

생각하는 능력이란 생각으로 사람에게 접촉해오는 흐름을 분석할 수 있고 그의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각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다. (1955년 10월 12일)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 왜냐면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생각의 흐름에 자신을 열도록 강요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으로 인해 생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또한 아래로부터 다가오는 악하고 내용에 가치가 없는 생각을 붙잡을 수 있다. 생각의 방향과 근원지를 정하는 일은 항상 그의 의지다.

빛의 세계에서 온 생각의 흐름은 사람에게 이를 영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동시에 힘으로 역사한다. 이로써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을 날카롭게 해주고 깨우쳐준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영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질문을 동시에 빛의 나라의 존재가 받아드리고 사람의 혼 안에 생각의 파장을 일으켜 설명을 받으려는 갈망을 넣어 준다. 이런 갈망을 생각하는 기관이 붙잡는 순간부터 인간의 이성이 이를 의식한다. 그는 이제 그에게 발산해주는 존재와 연결을 이루고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빛을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사명을 받아 어두움을 전하는 자신의 일을 행하게 된다.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에게서 온 것이거나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 선 존재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절 대로 아니다. 왜냐면 언젠가 영의 나라에서 온 전한 상태가 되어도 그는 단지 근원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받았고 최고의 지혜가 들어있는 사랑의 능력을 전한다.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통해 영적인 존재들에게 구분할 수 있는 끝 없이 많은 서로 다른 지식의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존재들 모두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면 오류가 있고 부족한 영적인 생각으로부터 사람의 의지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표와 목적 대로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는 같은 권한을 자신의 대적자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서로 다른 생각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하고 사람이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결론지은 대로 첫 번째로 갔던 방향에서 되돌릴 수 있고 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이성엔 진리가 아닌 사상에 대항할 수 있다. 왜냐면 전적인 진리 안에 선 빛의 존재에게 섬기도록 맡겨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부어주려는 빛의 존재의 노력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의 사명은 빛과 진리를 양심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빛과 진리를 전파하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심장을 열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반응하는 풍성한 생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빛의 나라에서 온 발산은 그 안에서 점화되어 밝은 빛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결과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전에 자신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자신의 영적인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전에 자신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그에게 이제 그의 소유물로 남고 그가 영의 나라에게 복된 사역을 하도록 허용을 받게 되면, 그는 또한 그의 소유물을 다시 발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올바른 생각과 잘못 된 생각.

B.D. No. 6961

1957년 11월 5일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사람은 이 능력을 통해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을 활용해 추론할 수 있고 자신의 추론이나 경험에 근거해 세워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은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가 만들어 내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전에 그가 창조한 것이 목적에 합당하게 되게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잘못 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그의 결과가 사람에게 해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다시 올바르게 향하게 할 가능성이 그에게 있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자신이 올바르게 그리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그가 자신의 생각이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원하면, 그는 잘못 된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을 헤아려 보려고 해야만 한다. 그들의 이성이 높게 발전 된 사람들 가운데 서로 다른 관점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이성의 결과가 진리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세상의 영역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논쟁하는 문제가 있는 동안에는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다른 평가를 받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단지 자연적으로 임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고 이 재능을 발전시키는 일은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면, 실제로 이성은 항상 더욱 많은 일을 하려는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이성은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주의 권세가 그에게 선물해준 것으로 여기면, 그는 이런 창조주의 권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 그는 그의 생각은 인도받아 이성이 진리 합당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러면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특별하게 사용해야 하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인정하는 창조주의 권세에 자신을 의탁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결과는 일치할 것이다.

그러면 한 작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조된 작품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 작품들은 섬기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섬기는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의 권세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대적하는 세력이 자신이 창조주의 권세와 멀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참여하여 이 대적하는 권세는 축복된 창조의 작품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생각을 잘못 인도하려고 한다.

왜냐면 사람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만드려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은 영의 나라로부터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작업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생각하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증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적자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목표가 대적자가 정해준 목표라면, 피할 수 없게 언젠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성공이나 모든 연구의 결과가 권세있고 확신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결과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잘못 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 만약에 그가 의식적으로 그에게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준 분에게 자신을 드리면, 그가 이 땅에서 자신이 정함 받은 바에 합당하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기를 창조주의 권세에게 구하면, 그는 잘못 된 결론을 내릴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는 얻은 깨달음을 확장시키고 항상 또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모을 수 있다. 그는 인류를 위해 축복이 되게 일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이제 행하는 일은 그가 인도해주기를 구한 창조주의 권세의 의지와 합당하기 때문이다. 학문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해야만 한다. 왜냐면 지혜 자체인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가장 날카로운 이성도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 혼돈을 일으키기 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 하나님의 질서라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가 하는 역사는 절대로 인류에게 축복을 주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다시 그들의 심장 안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곳에서 피할 수 없게 그의 역사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의 영역에 아직 여전히 진전을 볼 수 있을 지라도 단지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너희 사람들이 비로소 이런 진전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

이 사람이 혼자 역사해 나온 결과를 너희는 두려워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혼자서 역사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가 속하게 된 자와 함께 역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파괴와 죽음을 준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심장과 이성.

B.D. No. 4541

1949년 1월 15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신성을 믿는 일은 자주 어렵다. 왜냐면 그의 이성이 전적으로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지식을 통해, 다른 결론을 내리도록 강요받고 때문이다. 이 땅의 발전 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이미 잘못된 생각으로 이끈다. 그러면 영원한 창조주를 인정하기 어렵다.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실제 창조주를 깨달아야만 하지만, 그럴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지 않는다.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과학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은 잘못된 관점 위에 세워진다. 결국 영원한 신성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신성을 찾는 일이 아주 어렵다.

모든 연구는 비록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적인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연구는 빠르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확신을 가진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은 자신의 날카로운 이성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성을 제외시켜야만 하고, 심장의 느낌에 몰두해야만 한다. 그는 모든 과학을 곁으로 치우고, 어린 아이와 같이 내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그의 느낌을 통해 생각하거나 또는 원하는 것을 진리로 영접해야만 한다. 그는 어느 정도 깨어난 눈으로 꿈을 꿴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신성이, 사람이 신성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아른거리게 될 것이다.

사람의 가장 깊은 소원이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가진 상태로 머문다. 단지 세상의 이성이 가장 깊은 소원을 없애려고 한다. 왜냐면 신성을 몰아내려는 그러나 사람의 심장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악하게 사람의 이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자가 이성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심장을 통해 표현한다. 심장이 더 강하여 이성을 심장의 편으로 끌어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성을 통해 표현한다. 그러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심장과 이성은 영원한 신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과학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다. 과학은 진실로 잘못된 결론이 아닌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다. 연구가 한 분의 신성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면, 이 연구는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이 연구가 어느 영역에 수행되던지 간에 진리에 가까이 다가 갈 것이다. 그러면 과학과 믿음이 더 이상 모순이 되지 않고 단지 서로 간을 채워줄 것이다. 지식이, 존재했던 것과 존재하는 것과 모든 영원에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것 위에 있는, 전능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조화를 이루면, 비로소 지식이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아멘

 든 사람은 자신이 이성으로 쌓아 올린 관점을 가지고, 자신이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고 여긴다. 그럴지라도 그의 관점이 항상 진리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심장을 주었다. 심장이 없이 이성만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아주 어렵게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직 물질인 육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사고는 단지 육체의 기능이다. 그러나 심장이 모든 느낌을 받는 곳이다. 심장 안에는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불씨가 있다. 즉 하나님의 일부분인 영이 있다. 심장에서부터 나온 생각은, 그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의 불씨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라는 신뢰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영은 단지 순수한 진리를 주기 때문이다. 생각이 심장에서부터 왔는지, 이성으로부터 왔는지는, 심장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사람이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될수록, 다시 말해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할수록, 더 선명하게 심장에서부터 생각이 올라와, 사람의 의식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능력이고, 동시에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룬 사람의 심장으로 흘러가는 영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생각은 단지 신체기관의 기능에서 오고,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도, 즉 심장에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장에서 오는 생각과 이성에서 오는 생각을 분리해야만 한다. 심장에서 나오는 생각은 항상 진리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성에서 나온 생각은 아무리 잘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진리가 아니다. 진리인지에 대해 결정적인 것은,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람들이 생각의 본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 차이를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심장에서 나온 생각과 이성에서 나온 영적 지식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두 뇌에 전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두뇌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즉 이성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의 생각의 내용은, 다시 말해 그의 삶이 언제나 사랑을 해온 사람의 생각의 내용은, 적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해야만 한다.

첫 번째 사람은 진리에 가까워지지만, 두 번째 사람이 진리에 합당한 지식에 도달한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가, 단지 자신을 인정하고, 간절히 찾고, 사랑의 삶으로 이를 증명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심장에서 오는 것은 의심없이 진리로 받아드려도 된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지식을 가진 영적인 존재에 의해 확실하게 점검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생각을 전하는 일을 맡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 가운데 머물도록 양심적으로 지키는 존재들이다. 사람은 사랑의 삶을 통해, 빛의 존재들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얻고, 빛의 존재들은 진리와 부합되지 않은 생각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

너희는 영의 나라가 그의 기원이고 대체로 선한 영의 나라나 또는 악한 영의 나라에서 즉 빛의 나라나 어두움의 나라에서 발산 된 생각의 파장에 의해 지속적으로 둘러 쌓여 있다. 이런 생각의 파장은 저항에 부딪히거나 열린 심장을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진실되고 선하거나 또는 잘못되고 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 생각의 종류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끊임없이 생각의 파장을 받거나 또는 존재가 하는 말을 듣는다.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가 자신의 생각의 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실제 시도할 것이고 그러므로 생각의 힘이 거부되거나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람의 내면의 성품이 이런 생각의 물결이 그를 둘러쌀 때 자신을 열거나 닫는다.

그러므로 그의 성품이 이미 변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을 구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흐름에 아주 쉽게 영향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내주는 생각에 항상 자원하여 자신을 열 것이다. 그의 혼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내주는 생각을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깨닫고 영접하고 이성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 이성이 그런 생각을 다루고 이로써 생각을 통해 그를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존재와 이제 접촉하게 된다.

영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상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도 이와 똑같고 어두운 세상의 생각은 저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에게 전해지는 생각의 내용은 완전히 반대이다. 그러므로 아주 다르게 평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이 정반대인 것처럼 각각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의 흐름도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흐름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고 이로써 이런 흐름을 차단하거나 거부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와 또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의 파장이 끊임없이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고 빛의 세계와 어두움의 세계가 끊임없이 사람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그의 세상적인 감각이 항상 세상적인 것과 접촉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훨씬 더 많이 세상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존재에게서 나오는 생각의 파장을 붙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인간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즉 세상적인 것의 가치를 밝혀주고 사람이 빛의 나라에서 오는 생각의 흐름에 자신을 열게 하는 효력을 가진 생각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로써 인간의 생각이 세상 속에서 사는 가운데도 건강하게 될 수 있고 인간의 의지가 주로 이 땅의 밖에 있는 나라로 향하면, 빛의 나라에서 오는 영적인 내용에 대한 갈망이 우세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심장은 끊임없이 자신을 열고 빛의 나라에서 그에게 보내는 생각의 파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세상을 향한 생각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만 세상을 향한 생각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것이고 부정적인 세력은 단지 희귀하게 그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왜냐면 인간의 의지가 이런 접근을 막고 그가 단지 특별하게 연약한 경우에만 굴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하게 된 의지가 항상 다시 보상한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는 두 세력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싸움이 있고 의지의 표현이 계속될 것이다. 의지가 약한 동안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영향을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선한 세력들이나 또는 악한 세력들의 영향 아래 있고 사람의 의지가 유일하게 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는 지에 의존되어 있다. 왜냐면 모든 생각은 영의 나라에서 오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단지 열린 심장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서 온 생각을 거부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의 발전과 결과.... 자연의 법칙.... 입법자....

B.D. No. 0782

1939년 2월 20일

모든 생각이 오직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인간 안에서 최고로 확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장벽이 사라지고, 영이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계속되는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 영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요구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왜냐하면 베풀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영과 기꺼이 받으려는 이 땅의 자녀 사이의 접촉이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가 없는 하나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기적인 영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뤄지는 성장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사물에 대한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계시에 작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이런 계시는 실질적인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암시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러나 이 암시들은 그들에게 다시 영역을 열어줄 수 있었고, 또한 세상 지식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그들이 모든 존재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개척이 되지 않은 자연 법칙과 살아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연관시키는 일에 관심을 돌렸다. 모든 생명체의 생성이 자연의 법칙에 기초해서 이루어 졌고, 이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항상 단지 소위, 두 번째 단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신성이 자연의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만한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아래에 있다. 이로써 자연의 법칙이 모든 창조물들을 생성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는 질서에 따라 생성되었고, 인류는 이런 질서를 자연 법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단지 현존하는 법을 인정하고, 그러나 영원한 법을 세운 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인간에게 이제 창조에 관한 오류에 대한 해명을 해주려면, 이 일은 단지 한가지의 영적인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영적인 연구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을 사용한다면, 사람이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 신적 능력 자체를 활용할 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진정으로 반박할 수 없고, 추가 개발 작업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이 땅의 지혜와 동일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가치가 있다. 가장 고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 방법을 통해 힘이 드리지 않고 탐구할 수 있다. 수년 간의 연구가 필요한 일이 가능한 짧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가장 선명하게 전달이 될 것이고, 어떤 의심도 할 필요가 없이 가장 순수한 진리로 받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 편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증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무너트릴 수 없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종 성취는 하늘과 이 땅의 주님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지식. 교육. 혼을 위해 일하라.

B.D. No. 2249

1942년 3월 3일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람편에서 제공하는 지식으로 만족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해야 하고, 순수한 진리를 원하자마자 그들에게 순수하게 제공해주는 영의 나라로부터 이런 영적인 지식을 직접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만이 그들에게 영적인 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든 이 땅의 지식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영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그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영적인 성숙이고, 하나님은 이에 필요한 가능성을 충분히 그에게 주고, 그는 단지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영적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 중의 하나가 순전히 영적인 생각을 교환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희귀하게 이런 은혜를 갈망하고, 그러므로 단지 희귀하게 그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사자를 통해, 자신과 같은 의지를 가진, 따라서 단지 자신의 뜻을 수행하는, 자신의 빛으로 충만한 영의 존재를 통해, 이 땅의 자녀에게 진리를 전한다면, 이런 방법 외에 같은 영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다른 방법은 없고, 이는 진실로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다. 이런 영의 존재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위해 그들에게 유용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영적인 존재는 모든 격차를 채울 것이다. 왜냐하면 저세상의 선생님들은 진정으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그런 지혜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지 부족한 지식만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단지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숭고하게 생각하고, 영적 지식을 중요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거부하기를 원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는 부족하게 머물기 때문이다.

영적 지식은 자신의 혼을 합당하게 형성하는 사람들만이 단지 영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혼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영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고, 아무리 부지런히 연구할지라도, 이런 연구가 혼에 대한 작업을 대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추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이 유일하게 영원 가운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지식만이 그에게 영적인 부를 주고,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혼이 영원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지식에 비해 세상 지식은 의미가 없다.

B.D. No. 4537

1949년 1월 11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영이 학문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갈망하면, 너희는 절대로 오류를 영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지혜가 없이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세상 지혜가 너희에게 적은 유익을 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주 빠르게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영이 너희의 삶의 실제 의미와 목적을 너희가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지식을 갖게 되면, 다른 모든 지식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너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지식보다 세상 지식을 더 선호할지라도, 너희 자신을 부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남는 반면에 세상 지식은 죽음의 순간에 사라진다.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영적인 지식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그가 심장과 이성으로 두가지 지식을 함께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한 지식이 다른 지식을 물리치려고 하고, 두 지식이 함께 하면 사람에게 짐이 되고, 생각의 세계가 선명하지 못하게 되고, 혼란스러움이 생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가르침으로 만족하라. 너희가 아주 빠르게 성장해야 하고, 나로부터 온 영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라. 마지막 큰 싸움이 시작되고, 마지막 단계가 시작이 되면, 세상 지식은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의 영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의 영적 생명과 또한 이 땅의 생명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 지식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세상의 학문을 필요로 하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이 이웃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럴지라도 영적인 진리가 혼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준다. 내 영의 음성은 진실로 대체될 수 없다. 그러나 세상 학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 예외적으로 세상 학문이 나를 믿는 믿음을 훼손하는 오류로부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해명을 한다면 필요하다. 그러면 세상의 과학자들도 이미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는 나로부터 그의 깨달음을 얻고, 내가 또한 이 땅의 일에도 그를 지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나의 영은 뒤로 물러나 조용하고 기다린다. 그러면 내 영이 너희를 가르치는 일을 지속할지는, 내영이 너희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해줄지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너희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또한 너희에게 부여된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자주 너희 안의 영이 역사하게 해야 한다. 너희 안의 영은 한 시간 내에 너희가 세상의 교사로부터 일찍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준다.

아멘

세상 지혜와 영적인 지식.

B.D. No. 4713

1949년 8월 14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상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즉 세상 밖에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하는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증명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60/186

은 할 수 없는 지식을 대체할 수 없다. 세상에서 즉 이 땅 위에서 아주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세상 밖의 영역에 대해 전혀 무지할 수 있고, 그의 지혜는 죽음의 순간에 사라진다. 그는 단지 어떤 의미에서 제한된 영역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고,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혼은 더 이상 탐구할 가치가 없는 것을 지나치고, 혼이 완전히 탐구했던 부분적으로만 탐구했던 이에 관계없이 혼이 연구한 것을 두고 간다.

혼은 이제 완전히 다른 연구를 할 가치가 있는 영역에 들어간다. 혼의 부와 빈곤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고, 고통이 충만하거나 축복될 수 있는 혼의 새로운 활동 영역의 상태를 정한다. 이제 이 땅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 깨달음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운명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히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고 도움에 의존하는 다른 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이 땅에서 단지 희귀하게 추구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 지식때문에 잊기 때문이다.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자신이 관찰할 수 있고 그의 이성의 날카로움에 따라 관찰하고 계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존재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지식"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지식은 단지 전체 창조물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지식이고, 그는 이 지식을 이성을 통한 연구와 생각을 통해 얻는다. 그러나 그의 혼이 육체의 걸형체를 떠나면, 이 지식은 의미가 없고, 영의 나라에서 그는 그의 지식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영의 나라에서는 단지 영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지식이 가치가 있다. 혼은 가장 최소한의 영적인 재물을 즉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지식과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자신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지식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깊이 영적 지식 안으로 들어갈지에 더 이상 이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심장이 즉 혼의 느낌의 삶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혼이 이제 연구하여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영원히 새로운 것을 얻고 또한 혼을 계속하여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일은 끊임없는 성장이고, 영적인 깨달음이 증가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또한 더욱 열심히 일하고 활동의 영역이 끊임없이 증가될 것이다. 반면에 세상의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단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일을 통해 모든 연구가 중단되고 그에게 쓸모가 없게 된다. 세상 지식은 단지 이 땅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저세상의 혼이 그의 활동을 위해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세상 지식은 단지 순전히 실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모든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세상 지식은 만약에 동시에 영적인 추구를 한다면, 이웃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세상 지식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일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세상 지식을 바탕으로 죽음 후에 사라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로써 사람이 다른 영역을 인정하고, 이성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영역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 지식은 영적 지식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단지 영적인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영적인 지식이 결정적이기 때문이고, 유일하게 영적인 지식에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추구할 만한 가

치가 있고, 영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의 과학과 영적인 지식.

B.D. No. 6519

1956년 4월 9일

과학은 하나님의 영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절대로 헤아려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이성이 영의 역사를 측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성으로 얻은 결과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한 결과와 비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이성을 통해 얻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준 지식과 비교할 수 없고 같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비록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할지라도 이성은 육체의 기능이고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육체를 벗어난 혼은 계속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어둡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은 더 이상 선명한 생각을 할 수 없고 혼이 이 땅에서 얻은 풍부한 이성의 결과물을 가지고는 항상 혼의 성숙 상태에 따라 단지 아주 적게 또는 전혀 보여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의 역사를 통해 얻은 지식은 혼에게 머문다. 왜냐면 혼이 이미 빛의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혼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빛의 정도는 깨달음을 의미하고 이 깨달음은 끊임없이 증가될 수 있다.

영의 나라에서는 단지 영적인 지식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의 상태가 저조하면, 세상 지식은 가치가 없다. 그럴지라도 영의 세계는 이 땅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이 원하면, 세상적인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그들의 이성이 또한 활동하지만 그러나 그의 올바른 생각을 구하는 기도가 그가 이제는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한다. 왜냐면 이제 영이 동시에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 사람의 의지에 강요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개입할 권리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이 항상 자신의 생각을 통해 즉 이성의 활동을 통해 올바른 결과를 얻었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연관 관계와 올바른 생각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을 알아야만 하고 이성의 생각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 안의 영이 절대적으로 역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런 사람은 또한 자신의 이 땅의 지식의 대부분을 저세상의 나라로 가져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제 생각을 통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는 동일한 전제 조건을 갖추고 그들이 또한 세상의 연구를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들의 일이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단지 이성으로 얻은 지식과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통해 영이 역사하도록 허용한 지식을 구별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저세상의 어떤 존재가 순전히 영적인 지식이든 세상적인 지식이든 상관없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게 된다. 빛의 존재가 세상 지식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수 없다. 왜냐면 빛의 존재는

모든 것에 대해 밝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위한 투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 세상 지식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은 인간으로서 그들이 또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상가였을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적응할 수 없고 생각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들이 그들과 성품이 같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원하면, 그들이 실제 악한 세력들의 도움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진리와 반대가 되는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들은 항상 단지 스스로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유일하게 자신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헤아려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된다.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하나님 자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진리와 올바른 깨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오만한 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것이고 이런 혼들의 상태는 저세상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빛을 비출 수 없는 사람과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영의 나라에도 또한 어둡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둠 속으로 빛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빛을 영접하고 빛의 불씨를 따르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빛을 요청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영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

B.D. No. 8056

1961년 12월 6일

나는 너희에게 이성의 사고영역 밖에 있는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너희가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영적인 지식은 이성으로는 헤아려 볼 수 없다. 이 지식이 너희에게 전해질지라도 이성 만으로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 너희가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내가 먼저 내 영을 통해 너희 안에서 역사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제 실제로 이런 지식이 이 땅의 삶을 위해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너희가 세상적으로 누리기 위해 단지 육체가 안락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을 단지 너희의 육체가 이루기 위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오래가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인 그러나 아는 것에 합당하게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너희가 알려고 해야 하는 나라인 영의 나라의 삶과 바꾸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에 관한 지식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이제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지 죽은 지식으로 남게 되고 너희의 이성으로는 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세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는 너희에게 남는 두 번째 삶을 살아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이 두 번째 삶은 혼의 삶이다.

영적인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혼이 성장하는 것이 육체에 적게 관심을 두는 것이 혼이 영적인 재물을 모으는 것이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실제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에 관한 공허한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희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게 이에 합당하게 너희의 삶을 살 수 있게 너희에게 이 지식을 알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의 이성은 너희에게 충분히 설명해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심장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게 된 원인과 목표에 관한 지식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 단지 너희의 의지라면, 너희는 진실로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이미 이 세상에서 오지 않은 나라와 연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 밖의 세상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 관해서 알려주면, 그의 이성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비록 내가 사람의 의지를 항상 존중할지라도 그에게 해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의 흐름을 영접하게 강요하면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진지한 생각이 이미 내가 조용하게 역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이 땅의 세상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한 가지는 확실 하다. 단지

이 한 가지 생각을 사람들이 자신 안에 가져야 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계속되는 설명을 받기를 원할 것이고 답변을 받게 될 사람들은 혼을 위해 진실로 성공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나 자신만이 너희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알게 해줄 수 있다. 나 자신은 제외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없이 너희는 단지 너희 이성만이 일하는 것을 그리고 너희에게 빛을 전해주지 않고 너희를 영의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 두기를 원하는 내 대적자로부터 이성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성의 생각은 그러므로 단지 이 땅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육체의 안락함을 섬기고 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지식을 만들어 낼 것이고 항상 단지 물질적인 문제에만 대답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너희가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너희가 다시 들어가게 될 영의 나라에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나라에 관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너희는 나와 연결을 이루려는 소원을 가지고 지식을 갈망해야 한다. 나는 모든 영을 향한 생각을 인식하고 동시에 만약에 내가 그의 의지가 선하다고 해답을 얻기 위한 그의 갈망이 진지하다고 판단하면, 생각으로 답변을 한다.

그러면 너희 안의 내 영이 행동을 취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 일꾼이 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들 편에서는 너희에게 줄 수 없는 지식을 너희에게 알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삶의 의미와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삶을 살게 너희의 혼이 성장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영적 지식의 가치. 세상 지식.

B.D. No. 1489

1940년 6월 24일

사람은 아직 영적인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동안에는 그에게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 이 땅의 지식은 확실히 이 땅의 삶을 다스리고, 삶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혼의 상태에는 지극히 작은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육체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동일한 주의를 혼의 상태에게 기울여야 하지만, 이 땅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영적인 지식은 혼에게 양식이다. 영적 지식은 유일하게 혼에게 유익한 것이고, 혼에게 삶의 과제를 위해 힘을 준다. 영적 지식을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혼이 이제 자신의 더 높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충분히 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 지식은 단지 육체에게 성공을 주고, 세상적인 행복을 돕는다.

인간은 이 땅의 삶의 모든 노력을 유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 지식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목적이 얼마나 인간의 갈망에 부합하는지, 다시 말해 목적이 갈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야만 한다. 이 땅의 지식은 이 땅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일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 땅의 행복이 증가되는 일은 혼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혼이 육체의 욕망을 따른다면, 즉 육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을 원하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혼의 위협은 영적인 정지 상태에 머

무는 일이다. 이런 일은 유일하게 육체만을 존중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육체는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하고, 그 후에 혼은 영원의 문에서 공허하고, 공덕이 없이 서게 된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저세상에서 혼에게 지극히 적게라도 수월하게 해주지 못하는 세상 지식을 추구 한 잘못된 의지의 결과이다.

그러나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높은 성숙도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전해진 영적 지식이 혼이 더 높은 성장을 하도록 재촉하기 때문이다. 혼은 육체를 존중하지 않고 영적 지식에 합당하게 이 땅의 삶을 활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이미 가장 큰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고, 저세상에서 말할 수 없게 구속받는 느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 안에 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힘의 흐름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과 지혜에 대해, 하나님의 영의 발산에 대해, 모든 창조물의 목적과 의미와, 사람이 단지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은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영적 지식은 혼의 상태를 지원하고, 사람이 이 땅에서 이미 자신을 빛의 존재로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영적 지식은 먼저 혼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육체를 부주의하게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을 먼저 생각하고, 혼을 위해 육체적 욕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제 육체가 필요한 것을 육체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 땅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될 것이고, 혼은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이제 말할 수 없게 부유한 가운데 건너 가기 때문이다. 혼이 영적 지식을 통해 이 땅에서 얻은 모든 보물을 그대로 가져 가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으로부터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혼에게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지혜는 영적인 지식이다.

B.D. No. 3140

1944년 5월 30일

지혜는 진리에 전적으로 합당한 영적인 지식이다. 지혜는 지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지식이고, 사람들을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지혜는 반박하는 어떤 지식에도 견디고, 어떤 것도 지혜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신적인 근원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단지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것을, 그러므로 부족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온전하다는 권리를 가진 지식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식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고, 논쟁의 대상으로 머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지식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지식이 될 수 없고, 이 지식은 이 지식을 이성을 통해 얻은 사람이 변화됨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연구를 마치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지, 진리에 합당한 것인지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 세상 편에서 세상 지식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 지식은 근거가 없는 것 아니고, 사람에게 알고 있다고 믿을 권리가 있다. 그럴지라도 이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66/186

세상 지식은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인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또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로 전해주지 않는, 알고 있는 세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해준 진리가 지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지식이 더 이상 갈망할 만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갈망을 항상 높여 주기 때문이다. 지혜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지혜를 버릴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이 지혜를 대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지식이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지식이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 지식의 성공이 다시 단지 세상 재물과 영광과 부유함을 준다는 것을 아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마지막 목표인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어, 빛의 존재로서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체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혜는 사람을 일깨워 주고,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수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이 지혜는 그가 다시 영적인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고,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알려줄 수 있게 한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모든 존재들을 다시 지혜 자체인 하나님께 인도한다.

아멘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결과이다.

B.D. No. 2124

1941년 10월 23일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 삶의 결과이고,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추구가 전혀 없이, 인간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를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가장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머리를 통해 올바른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기를 원하면, 심장과 심장의 느낌이 결정적임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사람은 분명히 이성의 길을 통해 인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단지 이 땅의 삶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또한 단지 이 땅의 삶에만 유익을 준다. 그러나 절대로 영적인 지식을 가장 적게라도 증가시킬 수 없다. 영적인 지식은 세상적인 노력과는, 세상적인 배우려는 열망과 이런 방식으로 달성한 성공이나 결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랑에 기반하지 않고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그의 모든 삶을 이성의 연구에 드릴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영의 나라의 밖에 머물고, 영의 나라에 대한 그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영의 나라의 영역은 그가 깨닫지 못한 영역으로 머물고, 그는 자신의 어두움으로 영의 영역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영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탐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는 영적인 지식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지식을 갈망하지 않고, 영접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성품을 고상하게 만들거나,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이웃 사람이 그에게 영적인 지혜를 전해준다면, 그의 심장은 또한 영적인 지혜를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선하고, 고귀한 느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의 모든 생각은 이웃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이, 자기 사랑으로 평생을 보내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선하고, 고귀한 느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그는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주변과 자신 위의 한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이 권세와 접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단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삶이 그를 영원한 신성에 더 가깝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도 또한 지식의 형태로 그를 만나러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항상 사람이 갖는 지식을 정한다. 비록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는 세상 밖에 있는 영적인 것에 관한 한, 육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혼과 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한, 올바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할 것이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에 합당한 것으로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이웃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그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생각의 교환은 완전한 합의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이미 그들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형성하기 위해, 즉 혼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그들은 영적 지식에 더 깊이 침투하게 된다. 머지 않아 그들에게 불분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잘 형성이 된 혼은 끊임없이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끌어드리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증거로 영원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그들은 진정으로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이 땅의 지혜를 얻고, 인간이 얻은 지혜를 받아드리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 안에 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진리가 또한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진리가 절대로 이성의 깊은 사고를 통해, 또는 연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의 삶의 방식이 그에게 진리를 향한 지식을 준다.

인간은 이런 지식을 그와 함께 영원으로 가져간다. 반면에 이 땅의 지식은 남아 있거나 또는 사라지게 된다. 이 땅에서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세상 지식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 땅에 그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인 재물이 없이 가난한 가운데 저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전적인 영적인 무지는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대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은 인간의 이성이나 이웃을 통해 얻은 지식에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의 혼이 성숙한 정도와 그의 영적인 성장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의 혼이 사랑을 행하는 삶을 통해 어느 정도 혼의 성장을 이룬 가장 단순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합당한 개념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의 목적에 대한 개념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에 합당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는 느낌을 통해 단지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영접하고, 그는 아마도 그의 세상지식으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가장 단순한 사람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분야에서는 올바르게 생각한다. 이런 작은 깨달음이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에 충분하고, 그는 죽음 후에 영의 세계에서 순간적으로 가장 밝은 빛을 받게 한다.

전적인 세상 지식이 혼의 높은 영적인 수준을 증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을 사람의 이성을 이용하여 습득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지식은 사람의 삶에 따라 영적인 지식이라기 보다, 이성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지식은 아직 영적인 지식이라 할 수 없고, 사람이 단지 이성으로 영접하고, 심장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면, 죽음의 순간에 이런 지식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성장 정도가 아직 낮고, 혼을 성장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만, 반면에 이성을 높게 발달되어 영적인 영역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여 영적인 지식을 순수한 이성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는 빛이 부족하고, 그가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을 얻을 지라도, 이 지식이 그에게 선명하고 투명하게 연관관계를 깨닫게 하는 빛과 그의 지식으로 인해 기쁨을 얻게 하는 빛을 주지 않는다. 이 빛은 단지 사랑의 삶을 산 결과로 내면으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빛은 단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고, 비로소 이성의 지식에 올바른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지식을 영적인 재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재물은 쇠하지 않는 재물이고, 영의 나라로 가지고 갈수 있는 재물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 이를 수 있는 혼의 성장을 어느 정도 이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깨우쳐, 그가 비로소 순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사람이 죽은 후에 혼이 이룬 성장에 합당하게 그의 빛의 정도와 그의 깨달음의 정도가 정해진다. 저 세상으로 들어 갈 때, 영적인 지식을 가졌지만 사랑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 보다 이 땅에서 아는 것이 많지 않고, 선하고, 순수한 사람이 광채나는 빛으로 둘러 쌓여 들어 갈수 있게 된다.

아멘

너희의 혼의 성장 정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너희에게 창조의 비밀이 알려지게 된 일은 내 큰 사랑의 증거이다. 이 사랑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 원한다. 그래서 너

희가 내 안의 속성을 통해 나를 깨닫고 나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비록 이 지식은 항상 부분적인 지식이지만 너희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데 충분하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가 내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창조한 것을 알면, 만약에 너희가 모든 창조물들이 너희를 최대한으로 섬기고 섬겼음을 알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너희의 모든 사랑은 나에게 속해야만 한다. 내가 이를 너희에게 요구한다.

만약에 너희가 모든 창조가 단지 내 사랑과 지혜의 작품이고 내 전능함이 실행에 옮겨 졌음을 한번 생각하면, 이 모든 창조의 작품들이 단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너희 안에 사랑 외에는 어떤 빈 공간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런 큰 사랑의 증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너희는 나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를 위해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기원과 너희의 목표를 설명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서서히 너희가 원래 초기에 내 모든 사랑의 힘이 너희에게 비추일 때 처했던 상태로 돌아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내가 내 사랑을 비추어 줄 수 있게 너희 심장을 조금 여는 것이지만 이 작은 사랑이 빛이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가 항상 너희를 더 열어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나에게 지극히 작은 저항하지 않고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계속하여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는 일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된다. 곧 너희들 안에 밝은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깊은 영적인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여 내 사랑의 비추임에 자신을 열수 있기까지 모든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왜냐면 내가 절대로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선물하는 심장을 얻는 것이 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한 지식이 선물로 주어지면, 너희는 이로써 단지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너희를 스스로 가르치시는 한 분만이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의 너희를 향한 제한이 없는 사랑과 이 모든 지식으로부터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가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성취시켜야 한다. 너희가 내 요구를 성취시킴으로써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을 나에게 향하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 원래 초기에는 너희도 깨달음의 빛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의 타락한 죄로 인해 이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원래 초기에 가졌던 상태에 다시 도달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면 된다. 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얻기를 원한다. 나는 이 사랑을 얻기 위한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축복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사랑을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만약에 너희에게 무한한 내 역사와 사역을 파악할 수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으로부터 내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면, 너희가 단지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런 창조를 하게 했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 모든 긴밀한 심장으로 사랑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너희가 자신을 너희의 아버지로 깨닫기를 원하는 온전한 존재임을 너희에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내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제한이 없는 사랑을 나에게 드리게 하는 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한 구원의 시대를 끝낼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존재들이 다시 한번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복종하는 종을 통해 전할 수 있는 항상 내 사랑과 지혜를 증거할 지식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그들이 자신을 계시하는 최고로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게 된다. 단지이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알게 하고 그들이 진실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될 지식을 전한다. 이 종말은 가까이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특별한 일을 행하게 한다. 왜냐면 내가 그들의 사랑을 나에게 드리는 모든 혼들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지식은 위로부터 전해진 말씀과 일치되어야 한다. I

B.D. No. 9003

1965년 6월 28일

알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얻은 영적인 지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 다른 모든 것은 거절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럴지라도 이런 시도를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나로부터 직접 나온 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요점은 서로 다른 빛의 수준에 있는 존재들이 항상 또 다시 자신을 표현하고 진리를 깨닫는 일이 사람들에게 어려운데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점검해야 할 영의 나라에서 오는 모든 내용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내용이 위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직접 보낸 말씀과 일치할 때 너희는 아무 문제가 없는 빛의 영들로부터 온 역사로 영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직접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매체를 통해 전해진 모든 내용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런 매체는 실제 영의 나라에서 오는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영의 나라로부터 소식을 받을 수 있기 위해 내가 그에게 조건으로 세운 성장 정도에 도달했는지가 유일하게 너희에게 전해진 계시의 진리에 합당한 정도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영의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른다. 너희는 대적자가 너희를 현혹시키기 위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른다. 나는 대적자를 방해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에게 진리에 대한 소원이 없고 이 소원이 너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내 말씀과 일치하는 진리를 받는 일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실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육체의 죽음 후의 삶에 대해 지식을 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한다. 나는 진리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단지 해당되는 증거를 그들이 받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존재가 부름 받은 자처럼 자신의 성장 정도에 맞는 계시를 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빛의 영들은 매체를 통해 최면상태에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받는 일을 너희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비록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할지라도 내 영으로부터

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일을 보장하는 너희가 거짓 일거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영적인 계시를 의식적으로 받게 항상 자극한다.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전해진 모든 내용이 거짓이고 오류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가 이를 시험해보려고 하는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곳에서 많은 악한 영들이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너희가 단지 실제 영의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계시를 신뢰하면, 너희에게 전적인 진리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단지 하느님으로부터 온 영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순수한 진리이다. 이 진리는 모든 영역에서 너희가 위와 같은 계시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설명을 너희에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빛의 영은 너희 자신을 내 영을 부여 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자신에 작업하게 너희에게 자극한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순수한 진리를 보유했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비로소 더 깊은 지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식은 모든 것의 연관관계와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원인과 전에 일어났던 너희의 나로부터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큰 의미에 대한 지식이다. 왜냐면 비록 높은 빛의 일꾼을 통해 이 지식을 위로부터 직접 이 땅에 보내 전할지라도 이 일꾼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말이 들리게 하지만 나 자신이 단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한때 타락한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귀환하는 역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너희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대적하는 세력을 밝힌다. 이런 대적하는 역사는 단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저세상에서 아직 자기 의식을 가진 아직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에게 까지 이어진다. 그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일은 항상 대적하는 세력의 의지이고 그의 의지로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그들이 도달하려는 최고의 목표임을 염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을 부인하는 모든 말을 그의 역사로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을 안다.

왜냐면 너희가 이에 대해 잘못 알면, 대적자가 너희를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거짓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불가능하게 한다. 왜냐면 위로부터 너희에게 직접 전해진 계시는 이와 다른 설명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한때 지은 죄 짐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로부터 구속받는 일에 너희의 나중의 축복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주 중요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얻지 못했으면, 너희는 모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너희는 최고로 높은 분에게 나가 그분 자신이 너희를 가르쳐 주기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 하리라"고 약속한 것처럼 모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나 자신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준 한가지만이 순수한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것과 일치해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하나의 진리만이 있고 이 진리는 나로부터 나오고 진리 된 생각에 서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직접 받은 지식과 배치되는 것들은 진리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진리에 대한 평가기준이 항상 같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지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의심하게 하는 지식이 전해지면, 너희는 첫째로 다음을 질문해야만 한다. 이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너희는 위로부터 구속사역이 전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선명한 설명을 받았다. 너희는 이와 다른 모든 지식들을 무시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전혀 주지 못하면, 순수한 진리라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속사역의 이유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영들이 타락한 원죄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져야만 한다. 너희 자신들이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사후에도 계속 산다는 확신을 주려고 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에게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를 알려 주지 못하면, 단지 사후에도 계속 산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으로 다시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너희에게 빛의 나라가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의 혼들이 저세상에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잘못 된 생각으로 살아 영접하려고 하지 않은 지식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 동안 저세상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영에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지 사랑으로만 이런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이 사랑은 그를 밝게 비춰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빛이 그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때는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수가 맑고 선명하게 흘러나오는 그릇의 주변으로 모여야 한다. 그들은 이에 최소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자신을 굽히고 이 지식을 통해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 왜냐면 이 지식은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원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 삶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값을 대신 지불한 인간 예수의 사명은 일회적인 사명이다. 이에 관해 깨달음을 항상 또 다시 너희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단지 최고로 온전한 삶으로만 여길 수 없다. 그런 면도 실제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일회적인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완성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깊은 영적인 이유를 모른다. 왜냐면 그의 구속사역을 죄를 지은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가장 큰

그의 공훈의 역사로 인정하는 일과 용서를 구하는 일이 비로소 빛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의 타락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절한 죄를 속죄했기 때문이다. 이 죄는 단지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일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설교한 사랑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그의 구속역사의 은혜는 원죄로부터 죄사함 받기를 위해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영접해야만 한다. 이 지식이 항상 또 다시 너희 사람들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너희가 그의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로 충분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너희의 원죄가 사함 받기를 원해야 함을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깨닫게 해줘야만 한다. 사랑으로 사는 삶이 너희가 원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일을 도울 것이다. 왜냐면 사랑의 삶의 성공이 너희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원죄의 큰 짐을 덜어준 너희에게 다시 빛과 축복의 나라의 문을 열어준 구세주를 찾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영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일.

B.D. No. 7843

1961년 3월 6일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일은 단지 어느 정도 혼이 성장했을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 혼이 사랑의 삶을 통해 그에게 이제 영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자신 안의 영의 불씨를 불타오르게 (영이 깨어나게)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단지 그에게 어떤 빛도 제공해주지 않는 죽은 문자를 읽는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것은 그가 높은 곳을 향하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가 이미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된 그의 영의 불씨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이런 지식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그의 지식을 활용할 것이다. 그는 계속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추구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가 올바른 지식을 대변함을 이 지식이 진리임을 이 지식이 자신과 자신의 이웃에게 축복을 줄 것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사람들 편에서 그에게 대답해줄 수 없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된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찬양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단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은 이제 자주 영적인 방향을 향하고 그의 삶의 방식은 전적으로 이런 영적인 지식에 합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는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경시하기 시작한다.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 세상의 재물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는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초기에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한다.

그는 먼저 자신의 이성을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지식이 심장으로 들어가게 해서 뿌리를 내리게 할지는 그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런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될 수 있고 증가될 수 있다. 그럴지라도 항상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하여 그러나 내적으로 동인이 되어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이에 합당하게 이제 불씨로써 모든 사람의 혼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 내면으로부터 그의 지식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전적으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는 지금까지의 이 땅의 삶을 헛되게 살았다. 그는 어떠한 영적인 성공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어떠한 영적인 성장 정도에 도달할 수 없다. 그는 아직 전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다. 왜냐면 빛이 아직 그의 내면을 비출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의 불씨가 불타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내면이 아직 어둡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사람에게 염려스러운 상태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영적인 저조한 상태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지금까지 이 땅의 삶이 소용이 없었음을 증거하고 그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가 처하는 위험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단지 그가 사랑 안에서 삶을 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사랑은 빛이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한다. 사랑은 영의 불씨를 생명으로 깨어 나게 한다. 사랑은 사람을 그러므로 그의 영을 하나님과 연결한다. 이로써 사랑은 그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항상 사랑의 삶을 살라는 권면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서 거할 때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항상 너희에게 제시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의 성장을 이루기 원하면, 이 계명이 너희에게 항상 가장 긴급한 것이 될 것이다.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진리에 합당한 영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사랑이 없이는 이 땅을 떠난 후에 빛과 축복에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자신을 만들어야 할 혼이 성장할 수 없다. 왜냐면 혼은 이 땅에서 깨달음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혼은 이 땅에서 이미 자신으로부터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쳐야 한다. 혼은 빛에 도달해야 한다. 혼은 자신에게 모든 연관 관계를 설명해주고 혼이 이제 비로소 원래 초기에 거했던 상태에 다시 도달하기 때문에 혼을 행복하게 해줄, 지식을 얻어야 한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지혜는 생각할 수 없다. 불멸의 지식.

B.D. No. 2446a

1942년 8월 11일

지혜롭게 되려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그들은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점이, 이웃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지식이 가치가 있는지 또는 가치가 없는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자할 때,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점이다. 지혜를 제공자 자신이 지혜로운 곳에서, 주는 자 자신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줄 수 있는 곳에서 단지 지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로운 생각은 자신이 사랑인 분의 발산이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은 사랑을 행하는 심장에 의해 다시 영접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혜로 깨달음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어떤 영적인 것이고, 단지 사람 안의 영에 의해 다시 영접받을 수 있고, 그러나 사람 안의 영이 사랑을 행함을 통해 영접하도록 자극을 받으면, 역사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은 것이고, 또한 소위 지식이라는 지식은 영적인 가치 없이 이 땅의 것들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거나 또는 절대로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오류가 들어 있는 지식이다.

사람들은 또한 지혜에 합당한 세상지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혼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다시 말해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지식은 죽음의 순간에 사라지고, 그러므로 헛된 것이고, 영원을 위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식만이 증거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즉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지식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그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 지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지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지식을 영원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사랑이 그가 지혜를 얻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과 지혜 둘 다 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절대로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될수록, 그는 더 많이 알게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그가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제한되게 제공되지 않고,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그에게 흐르기 때문이다.

아멘

결 과적으로 진리의 길은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진리와 멀어지는 잘못된 길을 걷는다. 왜냐면 지혜를 가진 것은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가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것은 또한 불멸의 지식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지식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면, 그런 지식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멸하는 지식은 단지 세상 밖에 있는 것들에 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을 적게 추구한다. 반면에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헤아려보려고 하고,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 받는 명예를 위해 일한다.

이런 지식은 이런 지식을 통해 사람들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한, 축복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식은 사람이 이 지식을 이웃사람을 돕고, 사랑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자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또한 비록 그가 이런 지식을 영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세상의 지식으로 영원을 위한 재물을 얻고, 이런 재물은 불멸한 재물이다. 그러나 영적 지식도 마찬가지로 이웃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영적인 지식은 혼에게 직접 영적 재물을 나눠준다. 다시 말해 영적인 지식은 자신을 위해 또한 그가 영적인 재물을 전해주는 이웃 사람을 위해 마찬가지로 불멸한 재물을 모으게 한다.

영원을 위해 일하고 역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적인 일에 대해 선명함을 얻고, 이런 깨달음을 따라 그의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지식은, 비록 사람들이 그들의 무지로 인해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지만, 파괴될 수 없는 아주 큰 가치가 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단지 세상 재물을 증가시키는 일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은, 이런 지식이 이웃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사랑으로 이웃사람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혼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과도한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으로 알게 되려면, 또는 세상지식이 그에게 영적인 성공을 주려면, 사랑이 항상 동시에 그를 지배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사랑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의 지식은 진리로부터 거리가 멀다.

아멘

지혜를 얻는 것. 양보하며 골똥히 생각하는 것.

B.D. No. 3518

1945년 8월 20일

너 희가 지혜롭게 되기 원하면, 연구하며, 골똥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너희 안에 귀를 기울여라. 왜냐면 지혜는 진리에 부합된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혜는 연구하고 골똥히 생각해서 얻을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부분인 너희 안의 영을 통해 기꺼이 충만하게 제공된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영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들고, 다시 말해 사랑의 삶을 통해 영이 깨어나게 하고, 영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주의하여 귀를 기울임으로 너희 안의 영과 연결을 이루라.

이를 체험한 사람만이,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인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세상과 단절하고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면에 귀를 기

울임으로, 자기 안에서 영의 음성이 표현하는 것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랑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의 삶이 없이,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의 영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큰 성공을 약속해주는 시도를 하지 않는 한, 그는 진정한 지식을 전달받는 과정을 불가능한 일로 여길 것이다.

진리에 합당한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 영과 연결을 이루는 일이 회복돼야만 한다. 영적인 지식이 유일하게 귀하다. 영적인 지식이 유일하게 지속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식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한다. 그가 먼저 지혜와 세상을 초월하여 유효한 지식을 구할 때,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에 따라 그에게 주어진다. 그가 세상에서 책임 맡은 일에 따라 그에게 세상 지식이 전해진다. 왜냐면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역사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영이 그의 모든 생각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대가를 바라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심장의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요구는 성취시켜야만 한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전혀 방해받지 않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심장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이 없고, 세상의 성공이 그를 더 이상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은 이제 세상적인 성공을 단지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큰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지식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신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면, 그는 축복을 받고 그에게 영적인 지식도 보장이 된다. 그러면 그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제공한 지혜를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연구하고, 골똘한 생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세웠다. 누구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진실로 지혜의 원천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것이고, 지식에 대한 갈증을 만족시킬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웃사람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웃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이웃사람들에게 영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가지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

아멘

연구하는 일. 진리. 삶의 형태.

B.D. No. 4384

1948년 7월 23일

연 구자 자신이 내 뜻을 따를 때, 즉 그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나에게 종속시키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연구에 따른 결과를 단지 진리로 받아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연구 결과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나의 영의 도움으로 자신의 연구에 착수했고, 그의 생각의 과정은 나의 영에 의해 올바르게 인도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점을 고려할 수 있고, 정직하게 진실 안에 서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이로써 너희가 분명하게 내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희에게 가져온 것을 최소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탐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전혀 절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사로서 적합하지 못한 동안에는 그들은 이웃사람을 가르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올바른 삶의 방식은 그의 이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역사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고 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모든 문재들을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연구는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내 앞에서 올바르면, 그런 모든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너희에게 진리라고 가져온,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검토해야 할 인간의 생각의 내용을 더 쉽게 판단하게 만들 것이다. 가장 예리한 이성이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사랑과 짝을 이루지 않으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성은 실제 이성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다. 사랑은 더 명확하게 보고, 이성이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선 사람의 판단을 더 존중해야만 한다. 느낌으로 받아들일만 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 심장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롭다. 왜냐하면 그가 진리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진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사랑은 지혜의 열쇠이고, 사랑 밖에서는 가장 예리한 이성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진리를 찾을 때,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너희 사람들은 너희에게 오류가 제공될 것에 대해 경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 빛으로 가득 찬 지식에 의해 눈이 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지식은 기만적인 빛으로서 절대로 엄격한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확인해보기 원하면,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항상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라. 그러면 너희의 판단이 올바른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의심없이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점검할 수 있고,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설명을 해주고, 너희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한다.

아멘

사랑이 지혜에 도달하는 열쇠이다.

B.D. No. 7251

1959년 1월 10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무시하는 동안에는 너희 모두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주 많이 연구하고 생각할지라도 이런 일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의 연구는 항상 실패할 것이다. 즉 진리와 일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시험해볼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생각이 바뀌는 일과 어떻게 바뀌는 지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의 심장 안에 넣어주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대부분 자신의 의지로 인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해보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무한히 행복하게 하는 증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장 안이 갑자기 빛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달음의 빛인 지혜가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장의 충동과 그들의 이성의 활동을 결합할 수 없고 그들이 느끼는 삶을 날카로운 이성의 사고와 연결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지혜의 열쇠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는 어떤 사람도 진리 안에 머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고 또한 사랑 자체라는 설명은 아주 단순한 설명이다. 불이 자연법칙에 따라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사랑의 불에서 지혜의 빛이 발산되어야 하고 하나는 다른 하나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사랑과 함께 하는 이성은 가장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한다. 이 말이 너희 사람들에게 아주 오만하게 보일지라도 너희가 단지 진리 안에서 사는 일이 너희의 진지한 의지라면, 너희가 스스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비밀에 도달하려는 너희의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즉 세상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내려는 너희의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초기에 주로 자기 사랑을 알았던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바꾸면, 그의 생각이 진리에 합당하거나 또는 그가 사랑이 없는 이성의 사람보다 훨씬 더 진리에 가까운 생각을 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믿고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의 너희의 임무를 완수했고 이 땅에서 이미 밝은 깨달음의 빛이 너희의 보상이 될 것이고 너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산 후에 다시 들어가는 저세상의 나라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세상은 너희가 한때 거했던 너희의 진정한 고향이고 저세상은 너희 자신이 너희 안의 사랑의 빛을 끄는 일을 통해 어둠 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의지로 떠난 고향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너희는 영적인 연관 관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 없음이 너희가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한 요인이었다. 너희가 자기 사랑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너희가 다시 자체가 사랑이고 너희를 다시 되찾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 너희의 내면이 다시 빛이 될 수 있다. 너희의 생각이 선명해지고 너희의 이 땅의 과제와 연관이 있는 연관 관계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려면, 너희는 다시 너희 안의 사랑이 타오르게 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고 자체가 사랑인 분과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 다시 빛과 힘과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너희는 가장 밝은 빛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축복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충만하게 채워주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만이 지혜에 도달하는 열쇠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그 자신이 진리 밖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에게 진리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있으면, 사랑이 주는 효과를 알면, 그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랑은 빛 자체이다. 사랑을 자원하여 행하려는 심장은 내면의 빛의 비추임을 받는다. 왜냐면 사랑은 영원한 아버지의 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이 모든 지혜를 이제 내면으로부터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불이 지혜의 빛을 발산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사랑의 심장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진리에 합당한 지식이 즉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깊은 진리를 이해하길 원하면, 얼마나 좋은가. 왜냐면 단지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깊고도 깊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이웃들의 지식을 훨씬 능가하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거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원래의 상태에서는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전적인 깨달음 가운데 있었고 그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깨달음이 버려져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고 이제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 안의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면, 언제든지 전적인 깨달음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오류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질문에 관련 된 논쟁하는 질문이 있으면, 그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내용이 진리인지 판단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영을 깨어나게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이 깨어난 사람들에 속한다고 여길 것이다.

그는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의 내용을 진리로 대변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르면, 이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될 수 없다. 사람들 스스로 이웃들의 사랑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진리 자신인 하나님 자신에게 다가가 그에게 설명을 구하는 한가지 길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도 사랑이라는 구호 아래 자신을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 줘야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대부분의 이웃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지혜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랑의 불로부터 나오는 빛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시험해보고 너희가 영접하기 어렵게 생각되는 가르침에 의해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내적으로 경고받을 것이다. 왜냐면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오류에 빠질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가끔 영적인 내용이 제공되면, 그는 방어하기 위한

올바른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대적자가 개입할 수 있는 곳에서 개입하면, 그는 이를 깨달을 것이다. 그는 단지 더욱 긴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에게 오류로부터 보호를 구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생각은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판단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 지혜. 깨달을 수 있는 능력.

B.D. No. 1735

1940년 12월 11일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게 보이는 것을 사람은 영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적인 길을 통해 그에게 선명함을 주는 일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의 생각이 비로소 그가 하나씩 연이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이전에 받아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긍정으로 자신을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랑이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생성되었고,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해 살 있고,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한 열쇠이다.

사랑이 출처인 것처럼 사랑은 영원을 향한 문이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왔고, 영원한 사랑에서 분리된 모든 것이 다시 사랑이 되어야 한다. 만약 사람이 이제 깨달음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진리에 대해, 신적인 일에 대해, 영적인 질문에 대해, 창조물과 관련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그는 거부할 수 없게 자신을 먼저 사랑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사람의 사랑의 정도에 달려 있다. 모든 진리가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사람이 알기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는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고, 이를 가장 큰 오류로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깨달음의 빛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깨달음의 빛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먼저 그 안에서 불이 붙어 있는 잔해와 재 가운데 이 작은 불씨가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하고, 사람은 사랑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영원한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진리를 받기 위해 동시에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랑은 영적인 것이다. 사랑은 느낌의 삶에서 자신을 표현한다. 사랑이 영의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랑은 또한 영의 나라로 다시 인도한다. 사람이 이런 영적인 활동을 이 땅의 활동과 연결시킨다면, 그 안의 느낌이 그가 이제 세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면, 그는 다시 어떤 영적인 것을 받고, 저세상의 존재들이 사랑을 행하는 일이 이제 나타난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지식을 얻도록 인도를 받는다. 그는 이제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영적인 연결이 시작되기 전에 절대적으로 사랑이 역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는 내면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자세를 갖는다. 그들은 이 땅 밖의 세상이 어떤 지를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순히 이 땅 밖의 세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영의 나라에서 계속 사

는 일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단지 그들 자신과 이 땅에서 증가된 안락한 삶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삶이 무가치함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에게 제시되면,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들의 자기사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의 삶 밖의 삶을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과 이웃 사람을 향한 사랑은 항상 영의 상태를 밝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영적인 어두움에 빛을 비추기 원하는 모든 빛을 끄기를 원하고, 사람의 깨달음도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전달받을 것이고, 진리와 함께 동시에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비록 그에게 아주 선명하게 제공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자신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 인간은 영의 존재의 사랑을 활용해야만 한다. 영의 존재들은 그들과 같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결과적으로 그의 지식이 증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저세상과 이 땅의 연결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된다.

아멘

지식은 아직 깨달음이 아니다.

B.D. No. 7183

1958년 8월 6일

트 별히 영의 영역에 관한 사람들의 관점이 아주 서로 다르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아주 부족한 지식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주 이 지식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기보다 모든 것을 버리려는 경향이 더 많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성장에 어떠한 정지 상태에 머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성을 그들이 소유한 지식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이 땅의 삶을 통해 얻기보다 잃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항상 또 다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할 기회가 부여 된다. 그들은 항상 또 다시 운명적일이나 또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생각해보게 된다.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내적인 자세이다. 사랑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전에는 거부하였을지라도 서서히 올바른 생각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항상 더욱 이성을 강조하고 항상 더욱 선명함 대신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영의 불씨가 나타나게 해주지 않으면, 영의 불씨는 뒤로 물러서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 사랑하려는 의지가 서로 다르게 발전되어 있을수록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점은 서로 달라지게 돼야만 한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진리에 합당한 생각을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사랑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항상 더욱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에 사람에게 전해진 지식은 단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도움의 사다리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설교되기 때문이다. 또는 사랑이 없는 행동이 어떤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반면에 사랑이 행복을

가져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이 이런 깨달음을 따라야만 한다.

이에 합당하게 이제 진리에 대한 자세가 결정될 것이고 이에 합당하게 이제 지식의 깊이가 정해질 것이다. 지식은 생명력이 있는 지식이 되거나 또는 죽은 지식으로 남을 것이다. 지식이 사람 안에서 생명력 있게 되면, 사람은 비로소 깨달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이 깨달음을 향한 열쇠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도 이성이 아주 활발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성의 결과는 항상 진리를 벗어난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지 못하고 단지 더 강한 어두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없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에게서 순수한 진리는 저항과 반발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사랑을 행하기 원하는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진리는 자원해 행복해하며 영접을 받을 것이다.

빛의 상태가 항상 사람의 사랑의 상태에 따라 가고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들이 같은 사랑의 정도를 갖지 못한 동안에는 영적인 일에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너희 사람들에게 해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또 다시 사랑 안의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를 수 있게 운명적으로 역사한다. 위험한 상태가 그에게 도움을 간청하게 만들면서 아주 자주 일어난다. 이로써 그가 내면으로부터 도움을 주려는 자극을 받게 하고 이로써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하게 그의 심장이 불타오르게 한다. 그리고 빛의 불씨가 빛나게 해 사람들을 밝혀주고 이 밝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의 생각이 이제 변화되게 한다.

그러나 어떤 일도 강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불씨를 불타오르게 하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일치 지배하면, 이는 아주 행복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불씨가 역사하고 이 불씨가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밝혀주고 이 빛이 확실하게 목표로 인도하는 길을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아버지집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게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깨달음과 지식이다.

B.D. No. 8239

1962년 8월 13일

항상 위로부터 빛이 전해질 수 있는 곳에서는 내 대적자가 이 땅에 전파시킨 어두움이 물러날 것이다. 자신 안에 내 사랑의 빛이 흘러가게 허용하는 사람들은 이로써 위로부터 너희에게 전해진 내 말을 읽고 심장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안에 빛이 빛나고 가장 밝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전에 그들에게 숨겨져 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관한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의 빛은 단지 저항을 받지 않으면 강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단지 나에게서 듣기를 원하고 내 말이 너희 심장 안에 들어가게 허용하면, 너희는 영의 어두움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너희들 대부분은 이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일꾼을 통해 내 말을 받으면, 너희는 귀한 것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나로부터 대화의 요청을 받는 것으로 느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한 것이고 심장은 내 음성으로 감동을 받게 되고 너희는 너희가 영적인 깨달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너희의 운명이었던 여명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러나 내 말씀의 형태 안에서 깨달음이 너희에게 제공이 되면,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 너희가 너희를 생명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성취시키기를 원하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너희는 단지 너희의 땅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너희에게 깨달음이 전해지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너희 안에 빛이 되고 너희는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내가 너희가 빛을 갈망함을 본다면 나 자신이 너희의 생각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물질에 대한 갈망을 벗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높은 목표를 깨달았고 너희는 이 목표를 추구하고 목표에 도달하려고 할 것이고 이제 비로소 너희에게 삶이 살만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내 뜻은 단지 너희가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너희가 빛을 갈망하는 것이고 너희가 전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안에 스스로 빛을 밝히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단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희 심장 안에 빛을 비추어 주면 내가 너희에게 빛을 의미하는 지식을 전하면, 너희가 이 빛을 나로부터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제 이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밝고 선명하게 깨닫는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출처를 의식하고 너희의 나와 하나가 되는데 있는 이 땅에 과제와 목표를 의식하며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위로부터 온 내 말을 듣고 실행하면, 너희가 단지 듣는 자가 되지 않고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나로부터 이런 지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고 너희에게 모든 연관관계가 선명하고 분명할 것이다. 너희는 내 성품에 관한 깨달음을 얻는다. 너희는 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너희는 이제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드리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의 밤 가운데 머물 수 없다. 너희는 스스로 빛을 갈망한다.

나는 너희 안을 밝게 비추어질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어두움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다가가고 너희 심장 안을 비추어 주는 나 자신은 너희를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이제 너희가 자원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영원한 빛이다.

아멘

단지 사랑이 깨달음과 축복에 도달하게 도와준다.

B.D. No. 8666

1963년 11월 7일

너희가 나에게 너희 사랑을 받친다면, 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게 강요하면, 너희 사람들이 나 자신이 내 사랑을 나타내게 만든 것이다. 그러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85/186

면 내 임재는 너희에게 내 지속적인 사랑의 비추임을 보장해 줘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의 사랑을 통해 너희가 모든 저항을 포기하여 내 사랑이 너희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비추임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너희가 깊은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너희가 비록 너희 안에 잠 자고 있지만 너희의 이성에게 사랑이 너희 생각을 밝게 해줄 때까지 숨겨져 있던, 전에는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지식을 모든 선명함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영적인 성장과 너희 혼을 비추어 주는 모든 빛은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의 결과이다. 나를 향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함으로 표현이 된다. 모든 사랑의 사역을 통해 너희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끌어 들인다. 나는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의 사랑을 얻는 것이 나에게서 축복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은 자신을 선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사랑을 통해 내가 나를 선물할 수 있고 너희를 영적인 선물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단지 내 손에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내 마지막 목표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너희가 이제 사랑 안에서 역사하면, 너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된다. 사랑을 통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 너희가 나와 아주 긴밀하게 결합이 되면서 내 사랑의 힘이 방해받지 않고 너희 안에 비쳐질 수 있게 되면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너희는 빛으로 비추어져 있었다. 다시 말해 너희에게는 어떤 것도 숨겨진 것이 없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너희에게 모든 연관 관계가 선명했다. 이런 깊은 깨달음과 나 자신에 관한 내 존재에 관한 내 역사에 관한 내 사역에 관한 지식이 너희를 아주 깊게 행복하게 했다. 그래서 너희는 축복 되었다. 이런 축복은 제한을 알지 못했다.

너희가 스스로 이런 온전한 상태를 바꾼,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랑의 빛의 흐름을 거절한 이유는 너희가 온전하다는 인식이 너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존재인 루시퍼의 영향으로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고 믿고 볼 수 있는 존재에게 속하게 된 것이 너희를 깊은 곳으로 빠지게 했다. 왜냐면 내 사랑의 빛의 비추임을 거절하는 것은 사랑의 빛이 너희가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미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빛을 모든 깨달음을 그리고 너희를 한때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너희를 축복되게 했던 모든 능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가장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끝 없이 긴 과정을 거쳐서 다시 내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너희 고유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이다.

너희가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내가 항상 너희에게 다시 비추어 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단지 너희 자신이 나에게 사랑을 드릴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비추어지는 사랑의 정도를 정한다. 너희 스스로 인간으로써 너희 자신을 사랑 안에서 나에게 드리면, 너희가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강요를 나에게 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런다면 나는 너희에게 임재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열어 내 사랑의 흐름이 너희 심장 안에 비추게 할 수 있으면, 나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더 이상 담을 수 없다. 나는 이런 강요받기를 자원한다. 나는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내 자녀들을 다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왜냐면 내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자신을 선물해 주려고 한다. 사랑은 너희를 영원히 나에게 끌어 들이기를 원한다.

사랑은 너희가 너희의 온전함에 다시 도달하기를 원한다. 이는 단지 너희가 다시 빛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빛과 능력은 다시 내 사랑의 비추임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이다. 사랑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 나로부터 너희에게 진실로 어떤 제한도 가해지지 않았다. 단지 너희 자신이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행하면서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면, 나 자신이 모든 사랑의 역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내 임재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를 나타내야만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빛의 정도는 항상 높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내 사역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아주 깊은 지혜들이 제공될 것이다. 너희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벗어날 것이다.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너희들로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다. 피조물을 자녀로 만드는 목표에 너희는 안전하게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 심장에 항상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사랑이 나를 끌어 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에 앞에서는 무능력하다.

왜냐면 사랑이 내 근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도 너희가 나로부터 창조 되었을 때 너희의 성품에 있어 똑 같았었다. 너희는 같은 원래의 성품을 다시 영접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는 사랑을 통해 나와 긴밀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가장 깊은 연합은 가장 큰 축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아멘

생각을 교환하는 일의 축복.

B.D. No. 3160

1944년 6월 17일

영적인 생각을 교환하는 일은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면 진지하게 영적인 생각을 교환하는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단지 영적인 생각을 교환할 것이고, 따라서 진리에 합당한 영적인 생각을 전해주는 영의 세력의 지원과 조언을 받기 때문이다. 영의 세력은 항상 계속하여 사람을 돕고, 사람의 지식을 증가시키고,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게 한다. 이런 일은 항상 사람에게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빛의 존재는 또한 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한다. 이로써 그들에게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빛의 존재가 사람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이제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하게 한다.

빛의 존재는 자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즉 영적인 대화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돕는다. 왜냐면 빛의 존재가 이제 제한이 없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대화의 내용은 항상 인간의 성숙한 상태에 맞게 조정이 될 것이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혼은 항상 대화로부터 유익을 얻을 것이다. 왜냐면 빛의 존재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모든 선물은 건설적이고, 지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힘의 발산이기 때문이다. 빛의 존재는 항상 단지 사람들의 조연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고, 영적 대화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로 인해 성장 정도가 증가되는 불가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 한번 생각으로 영접한 지식이 사람이 자신이나 이웃 사람에게 영접한 지식을 활용하도록 자극할 것이고, 두가지 활용이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 대화를 자주 해야 한다. 이런 대화는 개인의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영의 나라로부터 오는 힘의 전달이고, 항상 영적 요소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면 영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은 사람들의 혼에게 직접 전달이 되고, 혼의 영적 요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인간을 높게 성장시켜야만 하는 힘을 공급해주는 일이다. 생각의 교환은 또한 영의 나라로부터 오는 가르침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사람이 비록 빛의 존재가 항상 사람 주변에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분명해야 하지만, 그가 말로 표현된 생각의 기원을 깨닫지 못하면, 생각을 교환하는 일이 항상 가르침의 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한다면, 단지 영적인 질문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사람들에게 보낸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질문하고,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준다. 왜냐면 모든 생각의 교환은 질문과 대답이지만, 진리를 향한 열망에 따라 이런 질문과 대답이 진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깨우쳐주기를 구하는 긴밀한 기도를 먼저 드릴 때, 사람은 비로소 진리를 진리로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영적인 생각의 교류.

B.D. No. 4710

1949년 8월 10일

너희가 진리를 갈망하면, 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가운데 믿을 수 없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영의 존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영의 존재는 너희의 대화에 참여하고, 너희가 깨닫도록 지원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비록 너희의 생각을 이성의 활동을 통해 얻은 것으로 여길지라도, 이런 생각은 영의 나라에서 주어진 생각의 파장을 너희가 영접한 것이고, 이제 너희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 너희가 붙잡은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이 영을 추구하고 같은 성장 정도에 있다면, 영적인 생각의 교류는 항상 일치될 것이다. 또는 성장 정도가 서로 다르면, 질문과 가르침이 될 것이다. 이런 대화는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도 항상 축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대화는 대부분 이런 대화를 하게 만드는 빛의 존재의 참여를 통해 대화하는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고, 빛의 존재들이 이 땅에서 섬기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혼들인 자신의 보호대상자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어, 이런 대화가 이뤄지고 자신들로부터 영향을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론하는 사람이 대적자라면, 싸우는 논쟁이 일어난다. 논쟁의 해답은 빛의 존재의 역사로 인한 것이고, 빛의 존재는 항상 대적하는 편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영적인 토론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 자극을 받고, 혼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된다. 혼은 이제 스스로 영적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이로써 비로소 토론할 수 있게 되고, 그는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대화를 피하는 사람은 빛의 존재가 돌봐주는 일을 막는다. 그는 모든 가르침에 도달하지 못하고 절대로 지식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영접하거나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지식의 한계.

B.D. No. 5702

1953년 6월 20일

너희는 모든 영역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이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너희에게 제공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진리에 합당하게 너희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유일하게 너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은 너희가 절대로 스스로는 얻을 수 없고 내가 성숙하게 되려는 진지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제공하는 능력이다.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지만 사람이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 왜냐면 그가 단지 이성적으로 알지 못하는 영역을 탐구하고, 이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사랑을 통해 나와 연결을 이루면, 그는 언제든지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아직 영적 지식이 없는 너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심장의 길을 통해 너희의 이성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게 들릴 것이고, 심장의 느낌이 가장 예리한 이성의 생각을 능가할 수 있다는 말이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게 들릴 것이고,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는 사람에게 모든 영역을 열고, 사랑이 없는 가장 영리한 과학자가 절대로 그런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설명은 간단하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 자신이 그에게 임재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과 나와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이뤄져서, 이런 연합이 나 자신의 일부인 사람 안의 하나님의 불씨를 깨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불씨는 이제 사람이 알기를 갈망하는 모든 것을 계시하고, 동시에 사람이 이제 인간의 이성에게는 닫혀있는 영역에 관련하여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 내면에서 답변을 준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단지 심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 길을 가고, 그 안의 영의 불씨를 통해 나 자신이 그를 가르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다. 그는 이제 전적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식을 진리로 대변할 수 있다. 왜냐면 그에게 지식과 함께 깨달음과 판단할 능력이 동시에 제공되고, 나 자신이 사람을 가르치면, 내가 진실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는 또한 나 자신을 그의 선생님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반복해서 말한다: 너희가 진리 안에 서기 원하고, 광범위하고 세상적인 이성의 지식을 뛰어 넘는 지식을 얻기 원하면,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가 일반적으로 너희 사람들에게 닫혀 있는 영역을 살펴보기 원하면,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내가 사람들의 지식에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사랑이 없이 살고, 때문에 내 영의 역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면,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한계를 정하게 된다.

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B.D. No. 6633

1956년 9월 1일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상상하는 일에 한계를 정하지 않았고 너희가 믿는 것처럼 상상하는 범위에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왜냐면 너희가 세상적으로 도달할 수 없게 보이는 것을 영적인 방법으로 항상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의지로 이런 영적 길을 가야만 한다. 영적으로 나와 연결을 이루려는 의지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 길은 닫혀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힘이 모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의해 현재 그들이 그러한 것처럼 창조되지 않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었고 따라서 제한을 받는 상태로 만들었다.

사람은 "아무도 이를 알 수 없다." 또는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헤아려 볼 수 없다."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단지 그가 아직 나와 밀접한 연결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더 낮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들 자신이 아직 빛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직 죄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즉 그가 그에게 영의 어두움을 준 원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지 못한 동안에는 그의 내면이 빛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뤄졌다면, 사람 안의 내 영의 역사가 가능하고 그러면 모든 한계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유일하게 그의 이성으로는 그에게 줄 수 없는 지식을 내 영이 그에게 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영적이지 못한 이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는 또한 넘치는 힘을 소유할 수 있고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일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길을 통해 빛과 힘을 얻는다. 모든 사람이 자연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지만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연의 경계를 넘어선다. 제한을 받는 상태는 단지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이런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이 땅에서 이제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너무 적게 찾아볼 수 있고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의 한계와 그들의 힘의 한계를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일은 단지 그들의 성장 정도를 다시 증명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그러므로 너희가 또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늘의 너희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이미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 추구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제한된 상태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한계를 넘어섰고 영적인 길에 들어섰고 나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 자신이 세상 밖의 일에 대한 지식과 너희가 아직 영이 역사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래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동안에는 단지 너희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을 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진리임을 의심한다.

그러므로 구속의 사역이 먼저 너희에게 완성돼야만 하고 한때 너희의 영을 어둡게 했던 죄짐이 해결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 내면이 다시 빛이 될 수 있고 너희에게 더 이상 어떤 한계도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한계는 원죄의 죄짐에 의해 설정되었고 원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이 되고 사람이 이제 내 영에 의해 다시 깨우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가 원래 초기에 나와 가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면, 이런 한계는 언제든지 다시 제거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일이 그들의 상태를 증명하고 그들이 아직 원죄로부터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죽은 믿음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고 내 이름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의 눈이 완전히 먼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산다. 이런 사람들을 영의 힘을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은 어렵다. 영은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알리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룬 내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속 사역을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활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되고 한계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아멘

새로운 세계관. 기초 벽. 기초.

B.D. No. 1388

1940년 4월 22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착각에 빠진 세계관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일과,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못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새로운 영적인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획적으로 생각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완전히 잘못된 세계관을 목표로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의 영적인 행복을 섬기던 것을 이제 가능한 한 없애려고 하고,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가능한 한 지금까지 인간의 영적인 행복을 섬기던 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든 물질적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로써 인간의 삶에서 세상 일을 최고의 활력으로 행하도록 자극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유일하게 귀한 가치를 가진 일로써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인간은 이 전부터 자신의 영에 대해 너무 적게 생각했고, 항상 이 땅의 삶과 모든 육체에 유익한 것이 그의 전체 생각을 지배했다. 그럴지라도 인류는 항상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 영은 영원한 신성으로부터 항상 점점 더 분리되고 있다. 사람은 신성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익숙해졌고, 영원한 신성을 거부하는 일이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익숙해졌다. 인간은 또한 신성이 없어도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까지 자유가 없고, 자신의 느낌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존재에게 자신을 묶어 놓은 실을 끊으려고 한다. 그는 가장 깊은 내면에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를 믿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고 한다.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상태가 그에게 더 갈망할만하게 보인다. 그는 더 높은 존재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에게 접근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것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기존의 기초벽이 없는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은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역사를 시도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영적인 방향을 향한 사람의 모든 생각의 과정은 오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굳은 건물을 지지해주는 기초 벽이고, 건물 전체가 견딜 수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기초이다.

이런 기초에 돌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영원한 창조주를 영원한 창조주로, 모든 인간의 운명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존재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신의 피조물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은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은 결코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건물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건축자는 자신을 조롱하거나, 자신을 무시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기를 원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그들의 오류를 깨닫게 해준다면, 가장 크게 의지할 대상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영의 상태. 사악한 행위.

B.D. No. 1446

1940년 5월 31일

인간이 다가오는 자연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만들려면, 기존의 삶의 방식 때문에 개혁해야 하는 영의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우선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면 인류가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 산다는 판단 외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인류가 실제 전통적으로 아직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개념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항상 단지 결정적인 것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바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단지 아주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을 헤아려 보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기 위해 단지 희귀하게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청한다. 이 길이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적으로 이미 신성을 인정할 때, 그들이 비로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신성을 인정할 수 없는 동안에는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이 없고, 가장 잘한 경우에 믿음을 이성적인 연구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한다. 단지 하나님을 긍정하는 태도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내적으로 느껴야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는 자신의 기원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다가 가기 위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느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에 인간의 생각은 올바른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히 먼 존재이거나 또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전혀 가능성이 없는 빛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런 입증되지 않은 존재와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자유롭게 되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산다.

사람이 영원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연합하려는 노력을 할 수 없다. 어떤 일로도 거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그가 인정하지 않는 바로 신성이 보낸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영원한 신성의 존재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점점 더 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이로써 혼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의심스럽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한다.

(중단)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

B.D. No. 4069

1947년 6월 25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또는 거부하기 위한 학문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특별히 날카로운 이성이 필요하다. 학문적인 방법으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인류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일이 또한 종말의 때의 징조이다. 그럴지라도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원하여 이 논쟁이 되는 문제에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를 따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은 단지 자주 연약하고 이런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 단지 가장 작은 자극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있는가?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다. 구하는 사람이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면, 나는 그에게 설명해줄 준비가 되어있다. 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깨달음에 진실로 만족할 것이고 그는 이제 또한 확신을 가지고 대변한다. 그러나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 알기 원하고 단지 자신에게 편한 답변을 인정하기 원하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실제 많은 결정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진리 합당한 결과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권좌에 앉아 나를 물리치기 원하는 대적하는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는 종말의 시작이다. 왜냐면 그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를 전적으로 물리치려고 시도하는 일이 해당이 되는 주어진 경계선을 넘어서면, 영원한 법칙에 따라 내가 내 대적자의 권세를 빼앗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이 싸움은 극심한 싸움이 될 것이다. 사람이 권세 있는 말들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환상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주려고 시도할 것이고 모든 종교적인 믿음의 내용과 가르침들이 해체될 것이고 전적으로 확실하게 서있지 않은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고 그들 자신이 영의 눈이 먼 가운데 살고 그러므로 그들이 또한 스스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대적자의 오류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속하지 않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깨우침을 구하는 사람이 공의와 진리에 대한 선한 의지가 있을 때 기꺼이 깨우쳐주는 깨우침을 나에게 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흔들리고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 이런 가장 큰 문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잘못된 길을 갈 것이다. 왜냐면 그가 거짓 빛을 따르고 세상 지혜자의 확신에 찬 말을 따르고 그들의 날카로운 이성과 그들의 논리에 경의를 표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포기하고 자신을 스스로 심판한다.

내가 영원으로부터 이런 싸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하는 사람들과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이 전에 이미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진리에 열심을 드리고 진리를 받을 정도로 자신을 합당하게 만드는 사람과 자유의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 지혜자의 날카로운 이성을 넘어설 것이다. 그는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의 영은 깨우침을 받을 것이고 어떤 것도 그로부

터 그의 믿음과 확신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와 내가 모든 내 피조물들을 영원을 위해 얻기 원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나에게 신실하게 머물 것이다.

아멘

종교. 논쟁의 대상. 서로 다른 교파.

B.D. No. 2529

1942년 10월 30일

사람들은 종교를 항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 땅에서 인간의 과제와 영원한 신성 자신을 아주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모든 교파는 다른 교파를 거부하고, 자신이 유일하게 올바른 교파로 인정받기 원한다.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침투하는 일을 자신들의 과제로 삼았고, 서로 다른 교파들이 성공을 했고,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대항하여 싸웠다. 사람은 자신의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영의 역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유일하게 그에게 가장 완전한 깨달음을 주는 상태에 자신이 빠지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런 동안에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의 깨달음 없이는 진리에 합당한 깨달음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이 서로 다툼을 할수록, 그들의 생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들이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 때가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때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혼란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순수한 진리는 아직 은밀하게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순수한 진리를 인류에게 전해주면, 그들은 순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므로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견해가 진리를 가장하고 자신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하면,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를 자원하여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오류는 아주 무섭게 퍼져 나간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의를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오류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오류를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고, 깨우침을 받지 못한 영으로 연구하려고 하고, 그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진리로 제공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한다. 왜냐면 사람의 의지가 연약해졌고, 이로써 의지가 순수한 진리를 충분히 간절히 바라지 않고, 오류에 대항할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오류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의 혼이 높은 성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높은 성장을 이루는 일이 실제 이 땅의 과제이다. 단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 수 있고, 진리를 추구는 일에 또한 사랑이 함께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랑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랑이 없이는 진리 자체이고, 유일하게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분과 연결을 이루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사랑이 부족하고, 이로써 진리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절대로 인간의 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없다. 왜냐면 자신이 이웃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으로 믿지만, 그러나 사람 안에서 영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행조건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정리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97/186

너희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단지 너희에게 유용할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을 영접하도록 너희에게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런 일은 단지 너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너희의 혼이 성숙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여 너희를 위해 너희가 영적 지식을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 변개된 영적인 지식을 제공하거나 너희가 근본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양식을 주는 일보다 너희를 무지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일이 더 낫다. 왜냐면 교사들 자신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웃에게 가르치는 능력이 없고, 그들이 제공하는 양식은 영향력이 없고, 단지 올바른 양식을 향한 올바른 굶주림을 억제하고 혼에게 부담을 주고, 이로써 혼이 높이 성장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이 알 필요가 있고, 너희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분량은 아주 적다. 내 사랑의 계명은 너희에게 내 뜻을 알려주는 간략하게 요약된 가르침이고,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유용한 지식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왜냐면 올바른 지식은 사랑의 삶의 결과이고, 진리에 합당한 올바른 지식은 사랑을 행하는 삶이 비로소 얻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사랑을 설교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혼에 적합한 양식인 올바른 양식을 받게 되고, 너희 모두는 이런 설교를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설교는 단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일을 성취시키려는 너희의 의지를 요구하고, 나는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너희에게 요구한다. 나는 심장이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면, 단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너희가 이성을 통해 증가시키려고 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은 모든 영적 지식이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올바른 지식이 되는 것을 이해하라. 사랑의 삶이 없는 지식은 내 눈 앞에 가치가 없고, 너희 자신에게도 가치가 없음을 이해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이웃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단지 진정한 사랑의 삶의 축복을 알려주라. 그들에게 나를 사랑과 지혜와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어, 이로써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향한 사랑에서 이웃 사랑을 행하게 하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끊임 없이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해주는 일을 완수하면, 너희는 진실로 최고의 스승이 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간접적으로 그들이 지식을 얻도록 도왔고, 이제 사랑의 효력으로 그들에게 지식이 제공된다. 왜냐면 그들 안의 영이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사랑이 그들의 영을 밝게 해서 사람이 이제 쉽게 단지 이성만으로는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영이 유일하게 지식에 생명을 주고, 영이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친다.

(1951년 7월 4일) 그러므로 내 말씀을 나로부터 직접 받는 사람들과 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제공할 때 이런 내 말씀을 영접하는 너희를 너희는 확신을 가지고 내 제자들로 여길 수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르친다. 왜냐면 내가 내 선물에 대해 누가 옳은 자세를 갖는 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또한 개인이 내 선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하는 지를 알고, 이런 점이 유일하게 그가 받는 것을 정한다.

내가 이제 내 제자들에게 선물을 받아드릴 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 따라 선물을 제공하면, 너희는 이런 일을 통해 머리가 이성적인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웃 앞에서 안다는 인정을 받는 일 외에는 전혀 가치가 없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왜냐면 그가 이런 이성적인 지식을 전하면, 받는 사람의 심장이 고귀하게 되지 않고, 혼이 영적인 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적인 양분은 단지 혼이 성장하도록 혼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지식이고, 이성적인 지식은 진실로 적게 이런 지식에 속하지만 올바른 지식은 이런 지식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조상들의 책을 가장 철저하게 연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심장보다 너희의 이성이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성공하는 일은 비록 그 일이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혼을 적게 섬기는 일이고, 세상을 더 많이 섬기는 일이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더 많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단지 너희의 영적인 회복을 목표로 하는 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기보다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조상들의 책에서 지식으로 얻는 것은 영적인 회복에 적게 적합하다. 그러나 사랑이 항상 유일한 영적인 회복의 수단이다. 이런 사랑은 조상들의 책에서 얻은 지식이 없이도 행할 수 있고, 사람이 올바른 지식과 진리인 영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조상들의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나를 섬기려는 열심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열심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 옳은 열심이다. 왜냐면 그러면 비로소 영의 거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의 거둬들이 유일하게 너희를 모든 진리 안에 거하게 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 행한 모든 일을 나는 나를 위한 사랑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랑이 이웃에게도 향하면, 이런 사랑은 비로소 증명이 되고, 그런 가르침은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모든 곳으로 전해야 한다. 왜냐면 그런 가르침에 모든 것이 즉 모든 깨달음과 혼의 성숙함과 또한 영원한 생명이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의미로 내 말씀을 해석한 일에 모든 깨달음과 혼의 성숙함과 영원한 생명이 의존되어 있지 않다. 단지 내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 너희 사람들을 목표로 인도하고, 내 뜻은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고 사랑 안에서 사는 삶으로 머무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이다.

아멘

책 중의 책인 성경. 이성을 이용한 연구.

B.D. No. 6929

1957년 9월 27일

너희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너희 안의 영이 역사하게 허용하면, 너희의 이성이 절대로 헤아려 볼 수 없는 것을 너희 안의 영이 설명해줄 수 있다. 너희는 크거나 적게 연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는 너희는 연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진리에 합당한 결과를 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너희는 비록 사람의 이성이 아주 높게 발달되어 있고 세상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능력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그가

긴밀하게 나에게 나 자신이 그가 들여다 볼 수 있게 문을 열어 주기를 구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영역은 그에게 닫혀 있을 것이다.

내가 없이 이 영역을 연구하는 일은 그에게 불가능하다. 누가 나로부터 이런 지식을 받을지 내가 누구를 진리로 인도할지 내가 누구에게 비밀을 알려 줄지 내가 누구에게 영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해줄지 유일하게 내가 결정한다. 왜냐면 나 만이 누가 이런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할지 누구에게 이 지식이 축복이 될지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아직 숨겨져 있는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이 실제 축복받았다고 환호할 수 있다. 그러나 빛은 왜곡되는 일을 막는 선명하고 깨끗한 그릇이 필요하다. 지식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성장 정도가 요구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식은 사람에게 전적으로 가치가 없을 것이고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성장 정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면, 날카로운 이성도 이 영역에서 제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영이 그에게 밝음을 줄 수 없는 동안에는 그의 내면이 어둡게 머물 것이다. 자신이 설명해줄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항상 단지 순수한 이성의 결과를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지혜를 즉 순수한 진리에 관한 지식을 구하면,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단지 책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책 중의 책이라 할지라도 실제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들어 있는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읽는 사람에게 그가 성경 안의 모든 문자를 안다고 할지라도 일곱 개의 봉인 된 책으로 남는 있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알려 주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여기고 이에 합당하게 사는 모든 사람이 실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단지 믿으면, 이런 모든 사람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위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초기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의 혼의 상태가 성장하고 작은 빛의 여명이 이미 그 안으로 비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을 통해 실제 깨달을 수 있는 내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이 그에게 최고의 깨달음을 준다고 믿는 사람은 학습을 통해 문자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음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큰 오류에 빠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시도를 자주 해보았지만 항상 더 큰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왜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과 사랑으로 나에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영을 밝게 해주고 이제 나 자신이 내가 약속한 것처럼 진리로 인도해줄 수 있고 그들이 개관해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결과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문이나 죽은 믿음으로 나 자신이 열어 주는 것을 관리하는 영역을 연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부여 줄 수 있는 그릇으로 자신을 만든 사람이 항상 단지 빛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진지하게 추구하는 일은 먼저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는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근거를 둔 내 뜻을 너희에게 항상 단지 사랑의 삶을 요구하는 내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 성품을 내 성품과 같게 만들고 그러면 내 영이 너희에게 흘러가는 일이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사랑의 삶을 살라. 너희는 이제 내 영을 통해 사랑이 없이는 모든 사람에게 닫혀진 영역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을 통해 비로소 너희가 내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것도 절대로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대로 나 자신이 내 자녀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성경은 종료되었는가?

B.D. No. 8054

1961년 12월 3일

기록들과 조상들의 책으로 내 말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나 자신이 경계를 정하고 이제 더 이상 계시를 하지 않음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음을 너희가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오류인가? 누가 이런 주장이 옳다고 판정할 권리를 주었는가? 누가 내가 아버지로서 항상 또 다시 내 자녀들에게 말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가? 누가 사람들에게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세우고 이것이 옳다는 권리를 보장하는가?

모든 새계시를 거절하는 너희는 아직 깊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런 어두움 가운데 너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너희에게 아직 닫혀진 책이다. 왜냐면 너희는 문자 속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 안에서 너희들도 내가 계속하여 계시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으로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나 자신이 내 제자들에게 말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자신이 변경이 되었는지 점검해 볼 수 없는 것에 만족해야 하면, 너희 자신이 진리 안에서 움직이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너희에게 위로부터 오는 순수한 진리가 계속하여 제공되지 않으면, 너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오직 조상의 책들만 유효한 것으로 여기려는 너희 자신들이 말씀 안으로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너희는 단지 이 책을 이성으로만 읽고 안에 있는 너희를 가르치며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영에게 듣지를 못한 것이다. 너희는 문자에 매달리고 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직접 진리 안에서 인도하려고 하면, 너희는 내 역사를 부정한다. 너희는 내 종들이 내 대적자와 교류한다고 의심한다. 너희는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나에게 전적으로 제공하는 이 때문에 자신 안에서 내 음성을 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과 내가 말하려는 의지와 권세를 비난한다.

너희는 고집스럽게 너희도 내가 나를 계시한 유일한 책으로 인정하는 성경과 함께 내가 말하는 것이 종료되었다는 관점을 주장한다. 이는 너에게 해를 끼친다.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내 말을 거절함으로써 너희가 죽은 그리스천이란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생명력 있는 기독교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의 영을 깨우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위험한 때에 내 특별한 도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성경의 말씀과 나 자신이 너희에게 준 나 자신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을 알려주는 약속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너희가 모든 새로운 계시를 부인하면, 너희는 이 내 약속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모

든 진리 안에서 인도할 내 위로자를 미리 알리면, 너희는 나 자신을 거짓말하는 자로 처벌하려느냐?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한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성취 돼야만 할 이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너희는 왜 믿으려고 하지를 않느냐? 너희는 교만한 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의 내적인 생명력과 영이 깨어남을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나와 내 역사를 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너희가 학업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내 말을 거절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믿는 지식을 얻었을지라도 너희는 오류 가운데 있다.

너희는 거만한 영으로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으로부터 계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왜냐면 겸손한 자에게 나는 내 은혜를 선물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겸손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다. 너희는 이 가운데 벗어 날 수 없다. 너희가 빛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면, 너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빛을 너희가 거절하기 때문이다. 내 피조물들에 대한 내 사랑은 절대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잊지 않는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가진 나를 생명력 있게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내 말이 올릴 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들에게 임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약속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나는 나를 나타낼 수 있다.

아멘

복음서는 진리에 합당한가?

B.D. No. 8963

1965년 4월 15일

너희가 진리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면, 너희가 관심을 갖는 질문은 이해할 만한 질문이다. 모든 곳이 변경 된 일은 부인할 수 없다. 왜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번역을 통해 또는 부분적으로는 모든 곳에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는 아주 다양한 해석들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을 시키기를 원하면, 내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강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원본으로 돌아가 비교하면, 원본의 기록들도 서로가 다르다. 그러나 내 가르침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내가 말한대로 내 말을 다시 나타내 준다. 왜냐면 내 말은 사라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게 머물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누가 나로부터 내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과 내 사랑의 삶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는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대답할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고 그는 이 사명을 수행했다.

마찬 가지로 기록을 잘 하는 내 사도 마태도 기록을 남겼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더 많이 기록했다. 이로써 그는 나에게 신실한 종이었고 그의 기록에는 어떤 틀린 점도 없었다. 모든 기록자들이 한가지 일어난 일을 다르게 보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왜냐면 내가 자주 같은 일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복음서가 사라졌고 같

은 이름을 가진 나중에 그들이 나로부터 들은 것과 내 구속사역을 기록한 누가와 마가와 같이 영의 인도를 받은 제자들이 갱신했다.

너희는 이제 그들이 내 영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신뢰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런 기록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난 아주 작은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상 내가 직접한 어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말이 변경되는 일로부터 내 말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미 내가 말한 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행한 것처럼 비록 너희가 이런 내 말을 잘못 해석할 수 있을지라도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일을 오류로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염려 없이 모든 복음서들을 내 영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단지 서로 다른 시간에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요한복음이 실제 내가 첫 번째로 준 복음서이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직접 체험했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도 염려할 것 없이 신뢰해도 된다. 왜냐하면 서로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기록되는 시간이 흐름에 따른 아주 작은 변경은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번역자가 원본을 따라 엄격하게 번역하고 그들이 스스로 현재 쓰고 있는 언어에 맞게 변경시키지 않았다면, 복음서가 순수하게 남은 것으로 영접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에 맞게 변경시키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의미가 전적으로 변화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닫기 위해 깨어난 영이 필요하고 비록 세상적인 공부가 영의 영역에 속할지라도 세상적인 학습은 깨닫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상 또 다시 올바른 생각에서 유도된 해석들이 있어 왔고 어떤 곳에서는 단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곳을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해석한 곳들이 있다.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이를 막지 않았다. 그러나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너희가 올바른 설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가능한 한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말했던 내 말을 보호했다. 진지하여 근원을 알지 못하는 책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는 이런 질문을 통해 그가 단지 순수한 진리를 사랑하고 이로써 영원한 진리인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멘

구속사역에 대한 올바른 설명

B.D. No. 8731

1964년 1월 20일

너희가 단지 진리를 향한 길을 통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나는 항상 너희에게 설명한다. 이를 위해 내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부터 진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보여주는 길을 잃지 않고 너희의 길을 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왜 이당 위에 살고 있는지를 어디가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는 너희의 근원과 한때 영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을 알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을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 삶 가운데 한가지 목적과 목표를 깨닫게 되고 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오류가 들어가게 되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종류의 질문을 줄 것이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오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대부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오류 가운데 붙잡고 있는 자가 너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진리를 진지하게 갈망하는 것을 항상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아야 하는 근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것이고 이것으로 남을 것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설명을 받으면, 너희는 너희의 완성과 나에게 귀환은 보장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은 은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의지의 연약함을 벗어 날 것이다. 너희는 진지하게 너희의 완성을 위해 추구할 것이다. 이전에 너희를 땅으로 짓누르는 그래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었던 원죄의 죄짐은 너희들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너희에게 항상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내 노력이 될 것이다. 이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너희의 큰 죄짐을 사해 주는 예수의 피가 너희를 위해 흘러져야만 함을 너희는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은혜를 요청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신적인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하고 그에게 너희의 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나는 그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 때 나를 대적하였었다. 한때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제 너희는 예수 안에 나 자신을 너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해야만 하고 나와 다시 하나가 되길 갈망해야만 한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순수한 진리만이 너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한다. 단지 진리를 통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희가 왜 이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 만약에 단지 내 대적자의 역사로 인하여 이 진리가 오류가 섞인 영적인 내용과 함께 관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잘못 설명되고 이로써 잘못 이해되게 됨으로 내 대적자의 목표대로 구속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든다.

대적자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올바른 길을 깨닫고 이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진리가 오류와 함께 관철되게 노력을 한다. 그의 목표는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이에 관한 깨달음을 빼앗는 것이다.

예수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지도자처럼 처신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의 목표는 모든 영적인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명에 관한 믿음을 빼앗고 사람들이 그의 십자가 아래로 향하는 길을 택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인류에게 생각할 수 없는 불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왜냐면 그만이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멀리 하면, 그들의 이 땅의 삶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머물

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대적자인 내 원수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그가 역사하는 곳에서 나도 계속하여 역사를 한다. 그거 진리에 대적해 싸우는 곳에 나는 순수한 진리를 계속하여 이 땅에 보내 준다. 순수한 진리는 항상 이 진리를 갈망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대적자가 이를 막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진리를 향한 갈망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렀고 나로부터 선물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은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항상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한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단지 진리가넘치는 축복을 주는 성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면 거짓 된 영적인 지식은 사람들의 혼이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진리만을 갈망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출처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내용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에게 너희가 올바르고 진리 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거짓 된 영적인 내용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시게 부탁을 해야 한다. 진실로 내가 항상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안전하게 너희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적은 수가 택함을 받는다.

B.D. No. 5604

1953년 2월 17일

만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다. 너희 모두 **나**에게 자신을 내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는 과제가 주어졌고, 너희 의지가 이 과제를 추구하면, 너희는 이 과제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즉 자유롭게, 나에 의해 정함을 받거나 또는 올바르게 행하도록 정함을 받지 않는 너희 의지에 달려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 땅의 과제를 진지하게 여기고, 그들은 자신의 심장을 내 뜻대로 형성을 시켜, 내 영이 자신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 택함을 받은 일은 이제 진정으로 이 과제를 성취시켜야만 하는 일이고, 이 과제는 단지 내 영이 역사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이 성취시킬 수 있다. 그는 나와 내 이름은 세상을 앞에서 대변해야 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고, 내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주는 내 말을 선포해야만 한다. 내 택함을 받지 못한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왜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먼저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을 공부하는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없다. 왜냐면 머리의 지식으로 내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내 영이 먼저 머리에 있는 지식을 생명력이 있게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식은 비록 영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순전히 세상적인 지식으로 머문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분을 위해 내 택함을 받아야만 하고, 자신이 택함받은 것을 증명해야만 하고, 영의 은사를 가진 것을 증명해야만 하고, 그 안에서 내 영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한다. 이는 그가 그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닌,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증거로서 그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들 중 하나는 내가 준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즉 내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사람이 아주 오랜 동안 연구하는 일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영이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을 이성의 지식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고, 게다가 내 영은 선행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영이 역사하는 곳은 이성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나 자신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이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게 영적인 진리를 심장 안에 넣어 주어, 충만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게 한다. (1953년 2월 17일)

그러므로 내 영이 역사하지 않는 동안에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될 것이다. 이로써 왜 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지, 왜 단지 문자적인 의미만을 해석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말한 내 모든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이성이 해석하고, 영적인 의미는 나로부터 온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면, 영이 해석해주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온 영이 선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이성이 참여할 필요가 없이 내 말을 해석해주면, 무엇 때문에 이성이 역사할 필요가 있는냐?

그렇지라도 사람은 이런 해석을 전적으로 자연스럽게 마치 이성이 작업한 결과인 것처럼 다시 전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그가 말하는 깊은 지혜는 영의 역사를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반면에 이성을 통한 해석은 이웃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주지 못하고, 확신을 줄 수 없다. 영이 단지 밝혀줄 수 있고, 영이 진리를 전하고, 영이 단지 심장에 말한다. 반면에 이성은 단지 이성에게 말하고, 심장에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내 영은 항상 베푸려는 준비가 되어있는 곳에서, 도우려고 하고, 구속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위험이든 영적인 위험이든 위험을 줄여 주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곳에서 항상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베푸려고 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곳에서 항상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모든 사랑의 역사가 나 자신을 끌어들이고,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나와 긴밀하게 연합되기 때문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영이 역사하고, 내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영을 통해 나 자신을 나타낸다. 이 나타남은 빛과 깨달음을 의미하고, 이 나타남은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소유하는 일을 의미한다.

아멘

별들.... 자연의 법칙.... 헛된 연구....

B.D. No. 0254

1938년 1월 10일

사랑하는 자녀야.... 주님의 뜻에 따라 중단없이 우주에서 행성들은 항상 태양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두고, 영원히 똑 같이 반복되는 궤도를 도는 일은 원래 초적부터의 법이다.... 우주 안에 창조된 모든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에 의존되어 있다. 태양의 빛을 발산하는 힘이 없이는 어떤 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하늘의 행성들이 각각 자신의 사명이 있고,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이 행성을 거주지로 사용하고, 각 행성들의 상태는 서로 다르다.

너희가 이를 헤아려보고 싶으면, 지금까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법칙을 기대해야만 한다.... 지구는 다른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행성이다.... 또는 지구를 위해 특별히 결정된 자연의 법칙을 가진 다른 행성과 격리된 행성이다. 너희는 단지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따라, 너희가 하늘에서 보는 별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너희가 진리에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지구의 법칙은 지구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지구의 법칙은 다른 별들의 법칙과 다르다.... 따라서 너희가 우주의 법칙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별들에 대한 가르침과 규정을 세울 수 없다. 이는 마치 너희가 동물들에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다. 모든 영이 자신의 생명을 형성하고, 이 생명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사람이 동물처럼 이 땅에서 살지만, 동물이 사람이 거하는 영적인 영역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각 별이 비록 한 우주에서 움직이고, 한 의지 아래 있을 지라도, 모든 별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마지막 해답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과 질문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설사 너희가 해답을 얻었을지라도, 이 해답이 올바르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너희는 항상 단지 지구에 적용되는 법칙에 따라 계산하게 될 것이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우주에는 아주 많은 비밀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비밀을 연구하는 일은 헛된 수고이다.

누가 너희에게 주님이 창조한 모든 별들이 같은 방식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장해주느냐? 누가 이 땅에서 헤아려 보고, 증명하는 일이 자신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것을 주장하려고 하느냐? 한 별이 다른 별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각각 별이 자신에게 배치된 존재를 위한 사명이 다르다.

이런 별들이 따라야만 하는 법칙들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주어졌다. 그러나 이를 이 땅의 거주자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 모든 존재가 이러한 창조의 작품을 통해 주님의 크심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한번 그가 단지 창조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땅의 성질을 근본적

으로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에게 우주의 광활함에 대한, 창조주의 무한한 위대함에 대한 작은 예감이 들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되었고, 사람이 이 창조의 작품의 일부분으로 배치되었고, 동시에 과제를 성취하는 일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인 과제를 받은 것이 그에게 선명하게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세상의 주님을 섬기려는 원함이 지구와 그 주변의 별들을 탐험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주는 말할 수 없게 크고, 인간은 작기 때문이다. 아멘

빈 공간.

B.D. No. 0832

1939년 3월 28일

이 땅의 밖에는 공기가 없는 공간이다. 그의 목적은 그들이 탈출하기를 원하는 형체를 다시 받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이 땅의 바로 근처에 머물러야만 하는 영적 존재를 추방하는 일이다. 이 공간은 여전히 물질 안에 남아 있는 물질로부터 온 모든 것과 물질 외부에 있는 영의 나라와 분리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이 땅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나 이 땅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의무의 법칙에 따라 사는, 우주의 모든 창조물과는 외적으로는 순수하게 격리되어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이런 공기가 없는 공간을 정복하고 어떤 종류의 발명품을 통해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의 임무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시 이 땅으로 밀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공간에는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의 삶에 필요한 유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정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시도하는 자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일의 끝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와 물질이 바로 그런 생명체와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이 땅의 영역에 거할 때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역의 밖에는 그런 생명에 필요한 요소들이 없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현명하게 보살피는 창조주의 보살핌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의 정화의 길을 단지 끝없이 연장한다.

공기가 없는 공간을 지배하는 영의 세계는 다시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에 있다. 이 세계는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존재들이 더 성장할수록, 그들의 과제를 향한 책임은 커진다. 그러나 그들의 과제는 항상 돌보는 존재의 행복을 위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 과제는 열심과 사랑으로 수행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이 땅의 본질과 완전히 모순되어 생명의 가능성을 조금도 제공하지 않는 지역을 이용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 이 분야의 모든 연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연구하는 사람의 육체적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땅과 태양의 충돌. 연구하는 사람. 이 땅의 내부.

B.D. No. 0945

1939년 6월 3일

트 정한 시간에 이 땅이 태양에 접근함으로써 이 땅의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제공될 것이다. 이 증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영적인 연결을 통해 모든 사건의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108/186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영적인 소식을 통해 받은 이 지식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 내에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과학은 새롭게 다시 그런 증상의 해명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인류가 이런 계시를 믿지 않는 동안에는 인류는 같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학자들의 계산은 한편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언제 일어나게 될지를 알아내려는 거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모든 진리를 알려주는 지식의 원천을 활용하지 않는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건너 갈 수 없는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사람이 의식적으로 이 경계를 거부한다면, 그는 절대로 전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창조의 질서를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관계없이 항상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모든 창조물의 계속되는 성장과 성숙을 향한 지식을 제공한다. 단지 이런 계시들이 진리로 간주 받지 못한다. 반면에 과학적 진술과 계산은 결정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계산한 시간이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어떤 특별한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없다고 완전히 확신한다. 사람은 심지어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태양과 태양의 역사를 이용하여, 태양의 힘을 감소시켜, 이 땅과 태양의 충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모든 순전히 세속적인 시도와 결과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분명한 지식을 얻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생각을 혼동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항상 어떤 인간도 창조물의 출현에 기여할 수 없다는 증거이고, 사람이 단지 이 땅의 표면을 개조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지혜, 전능함이 이룬 것이고, 인간이 오랫동안 존재해온 법을 바꾸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없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런 짐작하는 재앙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이 땅의 중심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반란을 일으켜, 연구자들의 모든 계산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세상의 연구자들의 계산과 과학적 결과에서 최근에 예견된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지혜가 충만한 영원한 신성에 의해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분화. 창조의 역사. 과학자.

B.D. No. 0957

1939년 6월 10일

그 그러나 이런 무수히 많은 타락한 혼의 귀환을 목적으로 한 영원으로부터 예정된 사건을 피할 수 없다. 이 땅의 가장 깊숙한 곳의 상태는 동시에 영의 힘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할 때 화산 분출이 일어난다. 이런 허락은 다시 인간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인류가 완전히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일은 인류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재앙이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의 의지 자체가 완전한 소멸의 원인이 되거나, 혼이 가장 깊은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원인이 된다.

하나님이 원래 초기부터 가장 깊은 지혜로 정한 일이 세상에 숨겨져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주님이 자신의 뜻을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사람을 택한 것처럼, 이 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드문 경우에만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제 세상의 연구자들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잘못 들어선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이성적으로 헤아려볼 수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모든 종류의 계산을 통해 자연법칙의 결과를 예측하려고 한다. 그들은 심지어 잘못된 길을 멀리 가서, 세상의 종말의 시점을 시간적으로 정하려고 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계산에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인간은 창조의 작품에 비하면 아주 작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이 영적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전적으로 멀리 있는 일들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교만을 부린다. 인간은 유일한 올바른 길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반대로 과학적으로 자신에게 제공된 것을 매우 빠르게 믿는다. 가장 높은 이성이 진실로 진리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의 깊은 믿음이 창조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 반박할 수 없는 지식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세상의 연구자들의 이러한 탐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관한 것이라면, 이런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제출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그들이 영적인 방법으로 통찰력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현재와 모든 시대에 이 땅의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멘

창조물의 다양성.

B.D. No. 1119

1939년 9월 27일

인간이 보는 창조물은 창조의 작품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인간의 눈에는 숨겨져 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숨겨져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에 대해 추론해보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일은 항상 그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조정되어 있다. 그러나 창조물 전체는 이 땅과 종류와 형태가 완전히 다른 수많은 기적의 작품들을 보여준다.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무수한 창조물을 볼 때, 이렇게 형성된 것이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별이나 천체에 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같은 창조물도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야만 한다. 다른 별이나 천체에 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같은 창조물도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해야만 한다. 천체는 셀 수 없이 다양하게 창조되었다. 각각의 천체 그 자체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다양한 피조물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창조물이 다시 혼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돕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천체가 어떻게 법을 정한 분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어디에나 있는 생물들은 그들의 외형을 변형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피조물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별에서 살고, 원래 초기부터 그들에게 부여된 그들의 과제를 수행한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창조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이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다가오는 때에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들이 창조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또한 다가오는 변화를 영적인 측면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 허용이 된다.

(중단)

연구 작업.

B.D. No. 1120

1939년 9월 28일

별. 금성.

가장 지칠 줄 모르는 연구는, 동시에 영적인 측면의 지원을 구하지 않는 한, 목표에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구원이 깨달음이 없이 단지 영적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밖의 모든 창조물은 동일한 물질적 법칙을 가져야만 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자연 법칙을 따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하고 출현하는 일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째로 모든 창조물은 이제 다른 자연의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고, 둘째로 물질적인 면에서 또한 모든 각각의 창조물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창조물의 세계에 거주하는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한 기본 조건은 아주 서로달라, 인간의 학문이 순전히 과학적으로만 창조물을 연구한다면, 인간의 학문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는 완전히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 과학이 진리에 아주 적게라도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각과 이해력과 판단력은 이 땅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창조물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지 적다. 인간이 기본 원소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 원소가 다른 별에서는 완전히 의미가 없고, 이런 기본 원소에 대한 지식을, 사람이 해명하기 원하는, 어떤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창조물의 비밀을 꿰뚫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사람은 저세상의 영의 세력과 영적으로 연결을 이뤄야만 하고, 처음 온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받아드려야만 한다. 이제 이런 일이 너에게 가능한지 시도해보라.

말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별은 너희가 금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별이다. 너희는 절대로 이 땅과 같은 구성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 금성에 일정한 간격으로 밝은 영역이 있어 보는 사람에게 다양함을 선사하고, 아주 매력을 느끼게 한다. 이 지역에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한 종류의 존재들이 살고 있다. 존재들이 이 지역에 단지 일시적으로 머문다. 왜냐하면 이 별도 또한 존재들이 계속 성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행성 전체의 표면은 사랑스럽게 보이고, 주민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행복한 거처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처를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이 땅에서의 이해와는 아주 다르다. 때문에 단지 영적 체험이나, 보는 일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받은 인상을 이웃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전해주는 일은 말할 수 없게 어렵다. 그러나 금성과 이 땅의 사이에 영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연결이 가르침을 받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단지 부족한 인간 지식을 대체해주는,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에게는 달린 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으로 침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특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필요하다.

아직 탐험 되지 않은 영역은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인간의 눈에도 보이는 태양 빛의 광도이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영접하고 있지만, 아직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찾지 못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이 땅과 이 땅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직 이 땅의 영역에 속해 있는 한, 헤아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은 이 땅의 모든 곳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자연 법칙을 근거로 하지만, 이 땅 밖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더 이상 이 땅의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알려지지 않은 창조물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없고, 결과적으로 연구 결과는 완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가 잘못된 기준 하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깊이 생각한다면, 모순을 만나야만 하게 될지라도, 사람들은 인간의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확신한다. 그들은 깊은 믿음이 없거나 또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의 오류를 설명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진실과 비교하여 완전히 틀렸다고 해야만 하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표면에 생물체가 존재하고,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태양은 지속적으로 이 땅으로 빛을 보내는 불타오르고 있는 물질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거의 순진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불타고 있는 굳은 물체는 그의 견고함을 잃고, 이로써 모양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불타고 있는 물체는 가연성이 있는 근본 원소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불에 붙잡혀 불에 의해 소진되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만 함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태양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의 물질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마찬가지로 이 땅의 조건이 필요한 원소와 불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기본 원소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 물질과 원소가 소진되게 되면, 빛을 발산하는 천체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간의 이성은 단지 이 땅의 자연 법칙을 통해 이 땅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만을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물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는 진실로 불충분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현명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은 무한에 비해 단지 아주 작은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든 창조물의 작품에서 일어나는 일과 성질을 남김 없이 파악할 수 없다는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들은 당연히 인간의 이성의 지식을 벗어난 것들이다.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자연 법칙을 고려하면서 계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자연 법칙에 합당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자연의 법칙의 효과를 상상할 수 없고, 또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산해낼 수도 없다.

그렇지라도 영적으로 인간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는 단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세상의 연구자들조차도 그들의 결과를 증명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단지 믿어야만 하고, 믿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잘못된 결론을 깨닫고, 거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의 전체 구조가 그런 오류를 바탕으로 구축되고, 이제 확립된 가르침으로 세워지게 된다.

사람들에게 이 땅의 세상적인 관점이 퍼져 있다. 태양의 빛이 생성되는 과정을 아주 잘못되게 설명하는 주장이 세워졌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 설명에 만족한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잘못된 관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혼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다면, 그런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일어나는 일처럼,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세상적인 역사로, 다시 말해 자연적인 역사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가 더 나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지혜를 받아들여 이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이 그에게 그런 인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면 그는 이 땅의 밖의 창조물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여긴다. 그렇게 하는 일이 진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고정된 의견을 갖는 일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질문자”는 알고 있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 올바른 설명을 아직 항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에 관한 올바른 깨달음에 많은 것이 의존되어 있다.

아멘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힘이 빛을 발생시킨다.

B.D. No. 1824

1941년 2월 22일

빛 과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별들과 태양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모든 별에 있는 각각의 창조물이 낮은 저항을 받는 일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므로 이런 창조물 중 하나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거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마찰을 통해 빛이 생성된다는 사실은 모든 창조물에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이다. 반면에 태양은 어머니와 같은 별이고, 태양의 과제는 원래 태양에 속했던 모든 별들에게 열과 빛을 제공하는 과제를 가진 창조물이다.

이 땅의 눈으로 바라본 태양은 불덩이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태양 광선의 빛과 열로부터, 태양 자체가 불이고, 빛과 열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런 견해는 태양에게 그런 불의 근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오류이다.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르고, 태양이 자연의 힘을 다시 발산한다. 인간이 태양의 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빛의 빛나는 과정을 이 땅의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런 자연의 힘이 이 빛을 발산하는 근원이다.

그러나 세상의 연구의 결과가 인간이 세상적인 과정을 더 효과적 일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가 절대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빛과 광채의 기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한,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빛과 광채의 기원은 자연의 힘과 법칙에서 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진 성숙된 상태로는 그들에게 지식을 줄 수 없다.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은 맞지 않고, 인간의 영이 더 높은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때까지, 태양에 관한 모든 설명은 받아드릴 수 없다. 인간의 영이 더 높은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그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사람은 이런 설명을 받아드릴 능력이 없다.

아멘

연구되지 않은 자연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의 원소적인 역사.

B.D. No. 2744

1943년 5월 17일

사람들은 실제 자연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자연의 힘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힘의 도움으로 사물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연의 힘을 남김없이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런 자연의 힘이 서로 간에 어떤 연관관계 가운데 있는지는, 실제로 자연의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그들에게 숨겨져 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한 정보를 절대로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은 순수하게 연구를 통해 알아낼 수 없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의 힘의 근원은 영적인 존재에게서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길을 택하지 않고, 영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는 한 설명할 수 없다. 진리에 합당한 설명은 피할 수 없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영적 영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단지 세상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이 나타내는 것에 더 가까워지고, 이를 세부까지 관찰할 수 있고, 따라서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자연의 힘들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힘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연의 힘들이 실제로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사람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이고, 사람들이 영적인 길을 따르지 않는 동안에는 수수께끼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연의 원소들이 역사하면, 이를 연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역사의 기원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의 원소가 역사하는 시간과 유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제 태양의 영향을 추론하고 따라서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자연적인 힘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들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특히 이 분야에서 큰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연의 힘들이 나타내는 효과를 계산하고, 수치로 정할 수 있는 정도로 실제 연구하는 측면에서 성장을 했지만, 원인은 절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놀라게 될 것이고, 이런 자연의 힘들이 역사할지 안 할지 또는 언제 역사하게 될지를 미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의 원소를 무력화시킬 수 없고, 억제하거나, 시간을 정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자연의 힘들이 나타나는 시간과 유형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의 힘들의 강함과 격렬함을 정할 수 없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어떤 과학적인 연구 없이 시간과 장소를 모두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일이 사람의 성장에 도움을 줄 때 단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일이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자연의 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모르게 한다. 왜냐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고, 혼의 더 높은 성장을 촉진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이 세력들의 원소적인 분노를 알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로 갖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대략적인 지식을 준다. 하나님이 이런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이미 아주 성숙해서, 그들은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힘들의 근원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시를 올바른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한 올바른 믿음을 전파한다. 그러나 이성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연구자인 그들에게 근원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가 영적인 설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견자의 계시는 영적으로 받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통해 증명이 될 것이다. 반면에 이성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면 자연의 힘이 나타나는 근거가 그들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의 힘이 나타나는 근거를 전혀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것에 대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존재와 영적인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설명을 해주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은 단지 영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주. 달.

B.D. No. 7957

1961년 8월 4일

가장 작은 불분명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이런 가장 작은 불분명함이 사람들을 의심에 빠뜨리고 그들의 심장을 밝혀줄 빛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도록 심장을 열면 항상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모호한 부분이 있는 곳을 명확하게 설명해줘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기 원하는 사람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단지 진리를 섬겨야 하는 곳에 오류가 퍼지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가 단지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전하면, 너희가 오류가 퍼지는 일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너희 자신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희를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온전해지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 생각이 아직 제한되어 있고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과학이 발견했다고 믿는 영역에 대한 설명을 조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도 우주에 아직 탐험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부

인할 수 없다. 과학이 연구했다고 믿는 것은 어떤 증거도 없다. 왜냐하면 과학이 제시하는 증거가 오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구와 달의 위치에 따른 거리를 계산한 결과는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지식을 얻은 너희 사람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해주는 일은 어렵다. 너희가 지구가 자전 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회전하는 일을 고려한다면, 너희는 달이 지구의 위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와 동일한 태양의 영역에서 공전하는 완전히 독립적인 별이고 계속해서 태양 빛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지구는 이런 빛의 비추임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제한을 가할 수 없다.

그러나 지구의 거주자들은 지구가 자전하는 위치에 따라 달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볼 수 있다. 빛의 비추임은 법칙을 따라 일어나고 별들도 법칙을 따라 자신의 궤도를 움직인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낮과 밤이 동일하게 번갈아 나타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모든 우주에 정지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법칙을 따르지만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하늘에 고정되게 보이는 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이 순전히 자연적으로 지구가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이런 일은 너희 사람들이 결코 알아낼 수 없는 영원한 창조자의 비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항상 증거가 있다고 추측하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증거가 절대로 올바른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법칙과 완전히 다른 법칙을 가지고 있고 이로써 인간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외부의 별을 점령하는 일에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 별의 생활 형편이 다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존재들과 그들의 영적 상태에 알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모든 법칙을 알고 내가 이런 지식을 제공하는 모든 빛으로 총명한 영적 존재들이 모든 법칙을 안다. 그러나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로써 너희 생각이 더 이상 제한되지 않게 되면, 너희 사람들도 또한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행성의 고립.

B.D. No. 6323

1955년 7월 31일

너희가 하늘에서 별로 보이는 창조물들 사이에는 아주 큰 간격이 있고 너희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고 그러므로 극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각각의 별이 그 자체로 하내 세계이고 이런 세계들이 이런 세계 자체와 그의 거주자들에게 합당한 완전히 서로 다른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서로 밀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창조주인 내 영이 충분히 다재 다능한 것들을 창조하고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같은 삶의 형편을 다른 별에서 찾게 될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앞으로 이런 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별들이 너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같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너희에게 제공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각을 통해 다른 별들에서 전해주는 영적인 길을 통해 일어나지 않으면, 다

른 별의 영역에 들어가려는 일은 헛된 일이고 절 대로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길을 통한 전달은 항상 단지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인간이 계획한 세상적인 질문에는 절 대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은 진실로 너희 안에서 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창조하는 일과 조성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는 자연의 힘을 헤아려보고 모든 면에서 너희를 위해 활용할 수 있고 너희의 이성의 힘으로 자연의 법칙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이제 너희의 모든 깨달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활동 분야는 항상 단지 이 땅이고 이 땅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웃의 축복을 위해 너희의 모든 이성의 깨달음을 활용하려고 시도하면, 내가 너희의 일을 축복할 것이고 너희의 역사를 지원할 것이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내 영원한 질서가 지켜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질서 안에서 머물러야만 하고 나 자신이 주었고 모든 창조물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법칙을 지켜야만 한다. 이런 법칙이 너희의 이 땅과 아주 멀리 떨어진 별들에게 해당이 된다. 각각의 별들이 다른 별들과 공기가 없는 성층권을 사이에 두고 고립이 되어 존재하는 일도 이런 법칙에 해당이 된다. 이런 법칙이 사람이 성층권 안에서 머무르는 일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희들을 고립시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너희가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을지라도 너희 사람들은 그런 시도에서 실패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달아둔 지역으로 너희가 진입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통해 너희는 단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아주 오만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너희가 이런 법칙과 입법자 모두를 깨닫지 못한 것을 증명하고 너희 사람들이 이 땅이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에 충분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면 너희에게 너희 위에 마지막 말을 하는 분이 계신다는 주 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한 분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이런 한 분을 알았다면, 이 땅의 거주자인 너희에게 허용되지 않고 너희가 전적으로 도달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게 머물게 될 다른 별을 너희의 연구대상으로 삼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모든 별은 영적인 존재가 성숙하도록 섬기고 영적인 존재의 성숙한 정도가 서로 아주 달라 모두가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다른 창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창조주인 내 영과 내 창조하려는 의지는 진실로 지혜가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이 땅의 밖에 있는 것을 절 대로 헤아려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단지 무수히 많은 별과 세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증거가 너희의 혼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나 계속되는 더 많은 지식은 너희가 단지 영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우주선의 오류 (UFO)

세상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 다른 별에 거하는 거주자.

B.D. No. 6065

1954년 9월 26일

너희 혼을 위해 최선이 되는 지식이 단지 너희에게 주어진다.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 너희의 의지인 동안에는 너희는 절대로 너희 혼에게 해를 끼치는 영역을 들여다 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사탄의 힘의 도움으로 불법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내 대적자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내 영의 가르침을 받고 너희가 성장하도록 돕는 지식을 받는다. 너희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뜻을 따라 어둠 속으로 빛을 전하는 일을 도울 수 있고 너희가 빛을 전파하려는 의지를 가진 동안에는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받는 지식은 너희가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어둠 속에 거하는 혼에게 빛을 밝혀주기 위해 지식이 너희에게 제공되고 너희가 더 많은 질문을 받고 너희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를 원할수록 너희는 나로부터 더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고 영적인 성장에 절대로 필요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지식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나에게 답을 구하면서 질문하면 내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를 신뢰해야 하고 그러므로 그는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려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아주 자연적으로 설명이 되는 비밀이 있고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역사할 수 있는 법칙과 자연의 힘들이 있다. 즉 특별하게 발달된 사람들의 지능으로 이런 효력을 계산해낼 수 있고 이제 그들의 계산을 시험해볼 수 있고 이로써 드러나게 자연의 힘이 그들을 섬기게 하고 사람이 이제 깨달은 효력을 그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자연의 힘들의 주인이 된다.

이런 역사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초자연적인 나라의 영역으로 치부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들은 영적인 성숙을 목적으로 영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추천을 받은 것처럼 자원하여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인간의 이성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은 양보해서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합시킨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다.

어떤 사람도 영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땅 밖의 존재들과 소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에 저세상의 거주자들과 영적으로 연결을 이루는 일이 영적인 지원을 위해 일어나면 인간은 실제 저세상의 거주자들과 영적으로 잘 연결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결은 절대로 저세상의 거주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영역이 각각의 생명체에게 맞게 주어졌고 마찬가지로 원래의 법에 따라 정해진 서로 다른 영역에 거하는 생명체에게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더 혼란스럽게 하려는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잘못 된 결론은 사람들의 영적인 추구를 지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것을 대하려고 시도하고 이로써 또한 소위 다른 별들의 생명체에 대한 증거를 단지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존재의 영적인 성장이나 이런 존재가 계속 성장하는 일을 믿을 준비되었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영원의 법칙에 따르면 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가운데 머문다. 왜냐면 혼의 성장이 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혼의 성장이 각 별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조건 아래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잘못 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힘의 역사가 아직 설명되지 않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희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면 특별한 힘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런 힘들의 근원을 알 수 있게 하는 힘들이 사용되는 일이 종말의 징조에 속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도 또한 종말의 때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는 이 권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한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전에 알려지지 않은 힘을 이웃의 축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에 성공하면 그들의 노력에 내 축복이 또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목적이 저 차원 적이면 너희를 멸망시키기 원하는 세력의 역사이고 이런 세력은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지 않고 감출 것이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신적이고 선하고 참된 것이 드러나고 비밀로 머물지 않게 된다.

아멘

별들 사이의 통신. (UFO)

B.D. No. 7208

1958년 11월 16일

세상의 물질 세계의 주민이 생명을 잃지 않고 순전히 육체가 자신의 물질 세계를 떠날 수 있는 세상의 물질 세계는 없다. 세상의 물질 세계가 이 땅이거나 굳은 지속적인 생명체가 사는 다른 별이든 마찬가지이다. 별의 성질에 따라 생명체가 이에 적응하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한 별의 거주자가 다른 별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왜냐면 이런 일이 자연법에 의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또는 별이 단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런 별로 배정을 받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에 실제 영적인 연결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런 연결은 항상 단지 영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목표를 영적인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희망하는 것처럼 별의 각각의 별의 주민들이 사물을 통한 이익을 원하거나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서로 다른 별들 사이에 연결이 없다. 예외인 경우는 모든 별을 향해 빛을 발산할 수 있고 그러므로 생각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창조물 안의 존재가 사람이 이런 연결을 원하고 존재가 주는 발산에 자신을 연다면, 이뤄지는 영적인 연결이다. 그러면 빛의 존재들이 또한 실제 세상적인 일과 관련된 조언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의 모든 세상적인 고난을 도울 수 있고 진실로 신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나타나는 일은 단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아주 특별한 원인에 의해 인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들이 대거 출현하는 일을 기대하거나 또는 그런 존재들이 대거 출현하는 일을 예고하면서 이를 일반적인 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유가 곧 끝나고 그가 새롭게 묶임을 받고 그 자신이 자기에게 아직 주어진 시간이 단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는 자신의 눈이 멀어 여전히 자신의 권세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러므로 그는 잘못 예상하고 있는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를 알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신비스럽게 보이는 많은 일들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과학이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주로 선험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 밖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대적자가 바로 이런 영역을 활용하고 그러므로 그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이로써 그는 사람들이 빛으로 충만한 영의 세계에서 주는 말을 듣는다고 믿게 만들어 이제 이 말에 영향을 받게 한다. 이런 영향의 목표는 항상 사람들이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오류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막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또 다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극복해야 할 물질로 향하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임박한 일로 선포한 일인 가까운 종말과 관련된 일을 부인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갖게 하고 자신의 혼에 무관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혼이 준비되지 않은 채 종말을 맞이하고 영원히 다시 길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대적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관점과 진리를 향한 열망이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현상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은 항상 빛의 존재의 보호 아래 현혹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길을 간다. 빛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들을 점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 자신의 의지가 그가 진리 안에 거할지 그가 어느 정도까지 진리 안에 거할지를 정한다.

아멘

우주비행체에 대한 설명

B.D. No. 8698

1963년 12월 13일

내 신적인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모든 영역에 빛이 주어진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질문에 관해 설명해줄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 가운데 나에게 가져오는 어떤 질문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것도 설명을 받지 못하고 남을 필요 없다. 너희는 단지 스스로 진리에 합당한 답변을 받기 위해 질문을 하기만 하면 된다. 항상 또 다시 너희 안에 의심이 일어난다.

왜냐면 너희가 소위 다른 별에서 이 땅으로 온 우주비행체의 존재를 자칭 증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진지하게 이런 현상을 조사하면, 너희는 일백 퍼센트 확실한 증거를 낼 수 없고 이런 주장의 근거가 항상 단지 추측이거나 자기암시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사기와 기만을 행하고 할 수 있는 대적자의

역사에 희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 스스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을 원하고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환상을 주는 것이 없고 그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혼돈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각 행성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없다는 것과 한 행성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영역을 떠나 다른 행성으로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공허한 것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행성의 거주 자들과 접촉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적자의 거짓 역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환타지를 통해 대적자로부터 나온 그러나 대적자에게는 물질적인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사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았다는 실제적인 물질적인 물체에 관한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 지구에서 나온 것 들이다. 이것은 지구 밖에 우주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더욱 강하게 드리며 연구하는 사람들의 시험 물체이다. 전파되고 있는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외계인 존재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왜냐면 이런 소위 행성에 거주자들과 대화를 했다는 것을 어떤 사람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동의하는 자세를 가진 무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다. 왜냐면 그들은 명백하게 내 대적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내 대적자를 섬기는 자들이다. 대적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세상의 시험물체가 아니라면 영이 깨어나지 못했거나 또는 대적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다른 행성에서 온 물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행성들 간에 어떤 교통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너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소위 다른 행성에서 온 사자들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그들은 내 사명을 받고 너희를 위해 일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다고 하면, 그들은 항상 나에게 속한 사람들인 내가 종말의 때에 휴거를 시키려는 자들과 연결을 시키고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속한 사람은 이런 물체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자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나는 그들에게 오류에 관해 설명하고 순수한 진리로 가르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믿고 내세우는 자의 영은 깨어날 수 없다. 그들은 항상 단지 순전히 세상의 목적을 추구한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종말의 때 유일하게 구원의 보장을 해주는 나와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나 진실로 나에게 모든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땅의 종말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종말의 때에 휴거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이를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나 절대로 이전에 미리 이들을 다른 행성의 거주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순수한 진리를 이 땅에 보내 주면,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것이 진리에 합당하다는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항상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세상적인 역사를 활용하거나 또는 생각으로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내 대적자의 술수에 대해 경고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항상 순수한 진리를 줄 진리를 향한 갈망을 충족시키지 않는 동안에는 대적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착각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맹신하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의 전환은 세상의 끝이 아니다.

B.D. No. 5807

1953년 11월 17일

세상의 전환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내 창조물들은 깊은 곳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돕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 이런 창조물들이 필요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영화가 되면, 세상 끝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앞두고 있는 일과 너희가 모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고, 내가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 너희에게 선포한 일은 전환이고, 이 땅의 주민들에게는 실제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적인 변화이고, 존재하던 것의 변화이고, 이 땅의 창조물이 전적으로 변형되는 일이다.

이 일은 한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삶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과 같다. 모든 창조물과 함께 이 땅의 표면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동시에 이 땅의 물질적인 성장이 중단이 된다. 모든 학문의 영역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장과 이룩한 모든 결과들이 파괴되고, 모든 경험들이 그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영적인 추구를 잊은 사람들이 전에 아주 중요하게 인정했던 것들을 활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되고, 옛 땅을 경험하고, 옛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새 땅에 거주하게 될지라도, 그가 어떤 것도 새 땅으로 가지고 갈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어떤 것도 새 땅에서 쓸모가 없을 것이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휴거 된 작은 무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새 땅의 사람들은 이제 왜 전환이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절대로 세상의 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옛 땅과 같지 않고, 변화된 땅이라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변환을 깨달을 수 있지만 훨씬 더 영적인 변화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영적인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일의 원인과 목적이다. 옛 땅이 끝나기 전의 영적인 상태가 돌이킬 수 없게 해체를 불러온다. 왜냐면 영적인 죽음은 또한 영이 굳어지는 일을 의미하고, 참된 생명은 단지 영적인 생명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죽은 환경에서 생명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이 땅에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이 명백하다 (1953년 11월 17일) 왜냐면 사람들이 점점 더 세속화되고, 점점 더 물질적인 재물을 추구하고, 그들 안에 사랑이 식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식는 일은 굳어진 영적인 입자를 의미하거나 또한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내 사랑의 힘을 거부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와 힘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로써 활동하지 못하고 굳어지는 일을 의미한다.

아직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의 희생양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묶여 있는 존재는 최종적인 자유를 목표로 위를 추구할수록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에게 전환점이 임했고, 모든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걸형체를 바꾸고, 따라서 일반적인 성장이 보장된다. 왜냐면 부정적인 세력들이 아닌 단지 긍정적인 세력들이 역사할 수 있고, 부정적인 세력들이 묶임을 받고, 전적으로 힘이 없게 되고,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단지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멘

확실한 멸망. 예언은 성취 된다.

B.D. No. 6675

1956년 10월 23일

사람들은 신체적 감각에 호소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람들은 혼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나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은 동시에 내 대적자의 역사이다. 내 대적자는 혼이 모든 빛을 멀리하게 하고 혼의 걸형체를 강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육체는 혼의 걸형체를 강하게 하는 일에 자원해서 동의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의 삶의 목표인 자신의 혼의 성숙이 성숙하게 되는 일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그는 육체에 관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조심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고 이를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은 이를 싫어하며 거부한다.

그러나 종말의 때까지 남은 시간이 아주 짧고 성공하려면, 특별한 도움의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런 수단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다. 나에게 아주 많은 그런 수단들이 있고 이런 수단은 여러가지 위험한 상태와 운명적인 일들이나 또는 기대치 않은 일들이고 육체적 욕망을 버리고 영적인 영향에 자신을 열게 하는데 적합하지만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 수단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절대로 신비한 현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런 현상들은 사람들이 영적인 추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구하려는 충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은 단지 사람의 이성에 양분을 제공하고 혼에게는 양분을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에 내 대적자는 신비한 현상을 사용하고 이런 현상은 이미 영의 세계와 연결을 이뤘지만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또한 영향을 받는다. 그들의 생각은 아직 많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그들에게 해가 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또 다시 나를 붙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신비한 현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얻는다. 왜냐면 그들이 신비한 현상을 헤아려 보기 위해 이성이 더 많이 활동할수록 그들 안의 영을 더 많이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사람들이 이성의 활동을 증가시키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종말의 때에 셀 수 없이 많이 일으킬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들이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다. 그는 또한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이 땅의 물질이지만 그러나 수수께끼와 같은 일을 일으키게 하고 그는 이런 일을 마찬가지로 단지 사람들의 생각이 오류에 빠지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런 현상으로 인해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알지 못한다. 영원한 질서의 법칙은 변하지 않고 머문다. 왜냐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 유일하게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나온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 기원인 것은 항상 빛이 될 것이고 빛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줄 것이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고 머무는 일과 수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항상 추측으로 머무는 일은 내 대적자로부터 온 일이다. 그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단지 사람들의 행동과 자세에 의해 강하게 될 때 큰 권세를 얻는다. 그러면 그는 또한 자신을 볼 수 있게 나타내고 그의 사탄적인 의지에서 나온 유령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내가 종말 전에 혼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다른 종류이다. 왜냐면 내 수단은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의 목표는 수수께끼와 같은 현상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에 강요하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일이다. 그가 강요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용하고 진리 된 소리보다 스스로 내 대적자에게 더 잘 귀를 기울인다. 내가 조용하고 진리 된 소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아멘

이 땅이 계속 존재함을 더 잘 믿는다.

B.D. No. 7040

1958년 2월 11일

너희는 우선 단지 작게 역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세상이 아직 너희보다 더욱 강해 너희가 나서려고 하면, 너희를 물리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 단지 세상의 즐거움으로 되어 있는 생명을 향한 의지는 강하다. 이런 의지가 지배적인 곳에서 너희는 비록 너희가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할 지라도 너희를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 땅이 종말을 앞두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이 땅이 계속 유지 된다는 생각을 더 잘 받아들인다. 이로써 위로부터 내가 준 내용과 전적으로 다른 것을 믿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부터 희망과 확신을 구하고 찾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너희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경고와 권면보다 이런 내용에 더욱 자원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전하는 사람은 훨씬 더 큰 영접을 받을 것이고 사람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에게 대적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내가 너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정도로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드러나야만 한다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상은 내 대적자의 나라이다. 세상은 내 대적자의 나라로 남을 것이다. 세상에 자신을 열고 열광하는 사람은 단지 세상을 위해 일한다. 이로써 내 대적자를 위해 일한다. 항상 단지 작은 무리들 만이 나와 내 나라를 위한 결단을 함을 세상에서 큰 것은 모든 것이 대적자의 역사임을 너희에게 말해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내 말이 실제 전파되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축복한다. 내 축복은 영적인 일 가운데 임할 것이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심장은 감동을 느낄 것이고 이로써 영적인 성공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사명을 절대로 큰 범위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같은 상태일 수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 세상적으로 유익한 점을 제공하면, 대부분 동의하는 대중이 모여 역사하는 곳에 대적자가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본다. 인류는 그들의 학문적인 실험을 통한 큰 위험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위로 한다. 그들은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세력에 대항하는 역사를 통한 도움을 믿는다. 인류는 이 가운데 선명한 관점을 잃어버린다. 인류는 자신을 속이는 모든 것을 원하지만 단지 빛 가운데 사람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나를 향한 길을 택할 수 있는 빛이 비추기 원하지 않는 그물에 빠진다. 그러나 너희는 위로부터 이 땅에 비춰지는 빛으로 어두움을 밝혀야 한다. 너희는 많은 사람들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 다시 가까운 종말과 종말 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경고를 알려줘야 한다.

너희는 열심을 내야하고 내 말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조용히 일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공개적인 일을 통해 적게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에 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의 양심에 감동을 주는 그들이 언젠가 입장을 정하게 만드는 옛 진리를 항상 단지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말이 오기 전에 진리를 향한 의지가 심장을 내 말씀을 향해 열 것이다.

아멘

하늘에서 나타나는 빛. 그리스도의 십자가.

B.D. No. 4073

1947년 6월 30일

너희는 종말의 때의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곧 자연의 변화를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향한 올바른 태도로 바라 보면, 너희가 생각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특별한 힘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창조주인 내가 나타나게 하는 현상이다. 너희는 나를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적은 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이 모든 일을 세상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또한 특별한 현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낮 동안에 일어날 빛이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고, 어떤 사전의 징후가 없이 하늘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알려주는 일 외에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빛이 나타나는 현상은 틀림 없는 구세주의 얼굴의 형상과 십자가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빛의 현상이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나의 종들은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현상이 시작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다르게 관찰하고, 얼마나 적게 이런 현상을 이해하느냐!

나는 하늘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준다. 그럴지라도 너무 적은 관심을 얻는다. 나는 그들의 눈 앞에 구속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되게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거의 사라졌고, 이런 빛의 현상을 통해서도 더 이상 믿음을 갖게 되거나 믿음이 강하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믿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책임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빛의 출현은 다시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징조이고, 종말의 때의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내면이 불안하게 되지만, 그러나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불안할 것이고, 긴장된 주의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단지 그들을 위한 현상이다. 그들은 가까운 종말이 이런 현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지 않고, 그들이 종말을 대비하게 가까운 종말에 대한 예언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믿는 사람들은 단지 적게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나의 나라를 위한 역사를 줄여서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기회들은, 초자연적인 세력들이 특별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원하는 일은, 사람들이 종말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설명을 할 것이고, 이런 설명은 영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는 가까운 종말로 인해 기뻐하며 환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지만, 그의 심장은 죽음 후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구름을 타고 와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듯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원할 마지막 시간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의 고난이 증가하고, 이 땅에서 도움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때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에게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 날을 줄일 것이다.

아멘

수수께끼와 같이 빛이 나타나는 현상.

B.D. No. 6134

1954년 12월 13일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 대부분이 어둠 속에서 사는 일을 더 선호할지라도 이 땅에 퍼진 어둠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빛이 필요하고 위에서 내 빛이 아직 그들에게 제공이 된다. 무수히 많은 빛의 존재들이 이 땅의 사람들 가까이에 거하고 너희 안에 빛을 비출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너희가 사랑을 행하도록 조용하게 너희에게 촉구한다. 이로써 너희 안으로 빛이 임하게 하고 너희의 영을 밝게 한다. 나는 내 군대에게 그들의 사랑을 행하기 원하는 열정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지시한다. 그러면 내 의지가 또한 그들의 의지이다. 특히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어둠이 항상 더 깊어지는 곳에서 빛의 존재들이 이 땅을 둘러싸고 그들은 그들의 힘을 이 땅으로 흘려 보내고 모든 곳에서 그들이 빛을 줄 수 있는 열린 심장을 찾는다.

종말이 오기 전에 그들의 사랑의 의지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이 가운데 특별한 역사를 행한다. 빛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들의 이런 역사를 증명한다. 이런 현상은 사탄이 속이는 빛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권세를 알게 해주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럴지라도 어떤 것도 믿기를 원하지 않는 내 대적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단지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할 것이다. 내 빛의 사자들은 그들의 힘을 내 뜻대로 사용하도록 지시받았고 구원하는 일을 성취해야 하는 곳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 힘을 합쳐 일한다. 이로써 그들의 활동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그들의 풍성한 빛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 땅에 비추게 된다.

사람들이 종말 전에 수수께끼 같이 빛이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일은 비록 자연과학자들이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수수께끼 같이 빛이 나타나는 현상이 또한 완전히 잘못 된 가정을 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빛을 구하는 사람은 빛을 찾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나라의 거주자들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깨닫고 선한 의지로 연구하고 빛을 갈망하는 사람을 돕기 때문이고 하늘과 땅이 나에게 복종하고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나에게 복종하고 빛으로 충만한 온전한 모든 존재가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돕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또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구원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모든 도움을 주는 일이 내 뜻이기 때문이다. 모든 빛의 존재는 항상 도움을 줄 준비되어 있다.

아멘

너희는 머지 않아 우주에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사건이 너희를 걱정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 사람들이 어떤 설명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많은 추측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과 말씀을 통해 선포 된 일과 어느 시대이든지 선견자와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말한 일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단지 진리에 가깝게 될 것이다.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일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목적을 성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목적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일이고 임박한 심판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과학은 또한 이런 목적에 기여할 것이다. 왜냐면 과학자들이 먼저 자연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변화와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 중요한 현상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 후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현상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거라는 유일한 올바른 답을 영접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를 믿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경과 옛 예언을 알려주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의 견해를 듣거나 또는 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가까운 종말을 알려주면, 그들은 항상 그런 가르침에 반대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내 개입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은 어렵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은 항상 더 확신 있게 종말을 가르친다. 나는 그들의 경고와 권면의 말을 드러나게 지원하여 과학자들도 곧 염려하는 가운데 그들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땅 가까스로 다가오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법칙을 벗어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런 궤도를 관찰하면, 그들은 항상 새로운 특성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 땅이 처한 위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파괴를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런 일이 전에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을 허용한다. 왜냐면 영원한 구원계획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줄 어떤 특별한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런 특별한 일을 뒤 따라 일어날 파괴가 구원시대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법칙을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알게 되어 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한 내용과 선견자와 선지자가 예언했고 진리라고 주장 된 내용이 일치하는 일을 통해 놀라게 되어 하기 때문이다. 내 영이 이제 이 땅의 내 종들을 통해 가까운 종말을 다시 선포할 것이고 종말 전의 큰 소리로 말하는 내 천둥과 같은 음성에 대해 선포할 것이고 모든 현상들이 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일어나는 일이 항상 단지 종말을 알려준다는 것을 보라.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를 알려준다. 왜냐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무 강력해서 너희에게 선한 의지가 있다면, 너희가 때가 다 되었고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너희 사람들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방어할 수 없는 권세를 두려워하게 되고 너희는 정확한 설명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각 개인이 그의 판단에 따라 자세를 취하는 일이 내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내가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해 유익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의 혼을 위해 유익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의 불안은 특별하게 강할 것이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크거나 적게 나를 의지하고 내 보살핌 아래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큰 공개적인 토론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이런 일에 대해 생각할 것이고 또한 그의 이웃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게 되고 한동안 세상적인 관심사가 뒷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끝나면,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받은 인상을 유지하고 이런 인상이 같은 과정이 우주에서 반복되어 사람들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 이전에 전혀 관측해보지 못한 심각한 위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포를 일으킬 때까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고 또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의 효력의 판단에 대한 견해가 서로 크게 다를 것이고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볍게 여기고 염려 없이 그들의 삶을 즐길 것이다. 사람들이 전혀 쓸모없는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생각으로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겨 두고 나는 단지 사람들의 생각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올바르게 처신하고 그들의 실제 사명을 위해 살고 내 안에서 안식하고 이제 그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 내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별자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 별들이 다른 궤도로 향할 것이고 별들과 이 땅과의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별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한 별은 이 땅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별의 궤도가 이 땅과 충돌하게 될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자연의 법칙이 변할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종말을 앞두고 있고 너희 자신들이 더 악한 영향을 미치도록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행하는 일이 이 땅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뜻을 통해 일어나는 이 일은 단지 종말의 징조일 뿐이고 너희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이다. 나는 너희에게 더 높은 권세가 존재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고 너희 모두가 이 권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이로써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해 올바른 유익을 얻는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향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 뒤에 오는 일은 온 땅과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내가 그 전에 특별하게 나 자신을 나

타낸다. 그러나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고 너희가 나 자신이 강력한 효력을 가졌지만 이 땅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자연 법칙과 그의 효력을 알고 또한 모든 사건을 피하게 하거나 그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일어나게 하는 일은 항상 너희의 구원을 섬기는 일이고 이 일이 너희가 나에게 향하게 해야 하고 너희 사람들이 도피해야 할 하나님을 깨닫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징조이고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내 사랑과 긍휼의 마지막 시도이다.

아멘

우주의 변화

B.D. No. 8780

1964년 3월 15일

나는 항상 너희를 더 깊은 진리 안으로 인도해 너희의 나와 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가만히 있지 않을 내 대적자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의 지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리고 단지 나만이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너희는 더 많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들의 모든 이의와 반론들을 의미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항상 단지 깊은 의미와 가치가 없는 빈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안에서 빛이 강하게 되길 원한다. 너희가 항상 밝은 영으로서 모든 연관 관계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떠한 이의도 더 이상 너희를 흔들리게 할 수 없게 한다. 나는 너희가 너희에게 전해지는 오류를 수정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한 진지한 군사가 되길 원한다. 너희가 오류를 만나게 될 때 너희가 입술의 검으로 싸우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전하게 빛의 전달자로 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지구의 종말이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이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바로 마지막 파괴의 역사는 엄청난 일이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없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최대한으로 뒤돌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이와 유사한 역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이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모두가 이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들의 사랑의 삶으로 인해 내적인 빛이 주어져서 이 땅의 종말을 의식적으로 기다리던 적은 무리의 사람들도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아주 작은 세상적인 생각이라도 지배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소원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지 못한 곳에는 이 땅의 종말에 관한 믿음이 아주 약하거나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런 모든 경고를 잘못 된 예언으로 여기고 항상 반박하며 바람처럼 흘러 보낼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아주 거창한 설명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예언에 믿음을 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의 영은 깨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는 종말을 대비하게 하

기 위해 나 자신이 영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에 대해 아주 적은 의심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빛의 전달자인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항상 더 강해져야 한다. 너희는 내 사랑과 내 지속적인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 너희는 사랑으로 감사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는 큰 은혜 선물을 받아야 한다. 왜냐면 너희는 나에게 신실하고 나를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와 내 이름을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단지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접하게 될 계시를 전한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도 아주 빠르게 이 계시를 확신을 할 것이다. 왜냐면 큰 우주적인 변화의 첫 번째 증상이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게 될 때까지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과학자들도 어떠한 이성이 날카로운 사람들도 설명할 수 없어서 진지한 염려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너희는 다가오는 불행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갖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단지 기다리는 가운데 아주 큰 격앙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우주적인 현상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때에 우주가 높은 곳으로 성장하려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하고 있는 지구상에 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에게 반항을 하기 때문이다.

빛이 충만한 영적인 존재들과 어두움의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 강력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을 양쪽 편에서 특별하게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인간의 혼을 위한 이런 영적인 싸움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지구와 연관되어 있는 우주 가운데 여러 행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내 허락 하에 이런 행성들도 그들의 거주 자들과 함께 이 땅의 마지막 싸움에 참여한다. 행성들은 지구에서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흔들림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행성들의 궤도를 관찰하고 그의 궤도가 변경되는 것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모든 예건을 해 볼 때 이로 인해 지구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가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불안을 주게 될 것이다. 단지 자연 과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영적인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연 과학적인 관찰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에 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선한 의지를 가진 경우에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큰 선지자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종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하게 된 위험을 깨달을 수 있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 창조물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 내가 질서를 바꾸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특별한 목적으로 내가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한 내 법칙에 속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최악 된 삶을 지속하며 자신을 멈추지 않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고 내 빛의 전달자들이 그들에게 준 설명에 열린 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에게 신실하게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다시 강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믿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신실하게 남는 모든 사람을 심판의 날에 도와주고 본향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내 약속을 굳게 붙들기 때문이다.

아멘

우주 안의 변화

B.D. No. 8781

1964년 3월 16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일은 특별한 사건이다. 너희는 속았다고 믿을 것이다. 항상 또 다시 너희는 똑같이 땅이 흔들리는 일들을 체험할 것이다. 이는 화산의 폭발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행성들과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있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흔들림은 거의 느낄 수 없어서 단지 소수의 사람만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비로소 최고로 악한 상황을 두려워해야 할 근거를 알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일어나는 일이 강해져서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평안을 벗어나게 만들 것이고 사람들은 행성인 지구가 다른 행성들에 의해 위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면 자신의 궤도에서 벗어난 행성이 지구를 향해 접근하고 행성들이 항상 또 다시 새롭게 이런 지구의 흔들림을 주는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가까이 다가오는 종말을 앞두고 사람들은 그들의 편안한 가운데 깨어나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생각하고 자신의 무상함과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자신이 남김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어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관해 경고받아야 하고 만약에 그들이 혼이 계속 산다는 것을 믿으면, 그들이 맞이해야 할 운명에 관해 경고를 받아야 한다. 종말의 때에는 수많은 자연을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행하는 일과 생각하는 일이 자연을 거역하는 일이고 이로써 가장 불행한 결과를 일으킨다.

사람들은 교만해 그들에게 허락 된 범위를 넘어 우주공간을 연구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연 법칙을 존중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들의 행하는 것과 원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늘 그들 자신에게 돌아간다. 종말은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 스스로 생각해 자신들의 큰 책임을 깨닫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도 그들에게 특별한 역사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역사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에 알맞게 자신을 대비하려는 그의 의지는 항상 자유하다.

인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조주 자신에게 달려 있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기에 법칙을 벗어난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이런 일도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을 위해 계획이 된 이런 특별한 역사를 다가오는 때에 체험할 것이다. 왜냐면 이 역사는 아주 특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책임감이 없이 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설명을 찾으려는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말의 때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아주 낮아져 특별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한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 큰 자극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이 버림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편에서 혼들을 새로운 파문을 받는 운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선포한대로 행할 때마다 희생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지 않고 서로 간에 스스로 속았다고 비난을 할 것이다. 피해상황은 여러 곳에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자연 과학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찾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아주 계속하여 자주 반복되어 사람들이 이에 대해 스스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우주 안에서 일어난다는 증거를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결과를 당할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크심을 증명하게 되고 모든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비록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에게 항상 또 다시 선행되는 자연재해들을 알려 주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아주 적게라도 전혀 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본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이 오게 되면 물질에 묶여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영원으로부터 미리 계획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게 된다. 이를 위한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이전에 이를 알아야 한다. 왜냐면 모든 일이 미리 예언된 것처럼 일어나기 때문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너희에게 직접 주어지는 이에 관한 진리를 항상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믿음이 없고 생각이 없이 사는 너희 이웃들과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첫 번째 과정이 일어난 후에야 이에 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전에는 아무도 너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불러 일으키는 큰 재해가 일어난 후에야 너희는 열린 귀와 심장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말을 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들이 일어나는 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을지는 각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아멘

지구의 자전. 이 땅의 흔들림.

B.D. No. 4348

1948년 6월 23일

지구는 오랫동안 아주 높은 속도로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끊임없는 회전은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회전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사람이 단지 이 땅에 거하고 있고, 단지 이 땅 밖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변화로 인한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비록 육체는 편안하고, 단지 가장 세심한 움직임만을 느낄 수 있지만, 더 약하거나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규칙적인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땅이 완전히 분해시킨다. 그러나 이 일은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종말은 비록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인간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종말이다.

이 땅 자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땅의 존재는 무한한 시간 동안 보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의지가 정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일을 행하도록 허용한다. 그의 지혜와 사랑에 따라 영원부터 그의 계획에 우주의 모든 변화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학문으로 양육을 받은 인류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변화를 전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항상 일어난다.

이런 아주 빠르게 지구가 회전하는 변화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단시킨다. 이런 일은 구원시대 초기부터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제 다시 계시가 된다. 이 과정을 인간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 지구의 회전이 증가하고 몇 초 동안 멈출 것이다. 이런 일은 이 땅의 흔들리는 일로 알 수 있고,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믿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이와 유사한 일은 찾아볼 수 없다. 왜냐면 이런 일은 우주에서 발산하는 힘의 역사이고, 이 땅의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행성들의 성질이 이런 힘을 일으키고, 이 땅의 내부가 이런 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 땅이 동시에 변칙적으로 움직인다. 이는 항상 파괴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럴지라도 이 일은 가장 굳은 물질을 분해시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한 일이다. 이로써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 존재가 자유롭게 된다.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단지 몇 초간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전에 징조를 동반한다. 이전의 징조도 또한 이미 재앙으로 간주해야 한다. 왜냐면 이런 재앙이 사람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공황을 유발하고 그러므로 재앙의 기간에 일어나는 재앙으로 간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영원부터 미리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기록이 된대로 성취가 된다.

아멘

너희는 이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라: 이 땅이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한번 회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짧아지고, 그럴수록 움직임을 통해 방출되는 기압이 더 강해진다. 일반적으로 지구의 표면에서 이런 기압을 느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고, 이 땅에 유효한 자연의 법칙이 이 땅 밖에서 법칙의 효력을 잃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지라도 이런 급속한 회전은 이 땅의 표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써 식물이 번식하기에 적합한 지각이 형성이 되어, 계속되는 자전을 통해, 지면에 영향을 미치고 외부로 분산되어 사라지지 않고 외부에서 지구 내부로 역사하는 힘을 생성시키는 일을 통해 지구 표면이 생물로 가득하게 하는 일이 지속되는 일이 가능하게 한다. 이 힘은 생명이 깨어나게 한다. 그러나 이 힘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다. 왜냐면 바로 이 힘이 법칙 밖에서 발생하고, 법칙을 벗어나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 땅이 이 땅의 속도를 멈춘다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정체시킬 것이다. 반면에 증가된 속도는 특별한 성장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곳에서 지구의 핵을 위협하게 하고 계속 존재하는 일을 위협하게 하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증가된 속도가 이제 분명하고 나타나고, 곧 그의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마지막 효력을 방지하려면, 과도한 힘이 활동 영역을 찾아야만 하고, 이 힘은 여러 장소에서 폭발하는 역사를 일으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자연 재해의 형태로 일어난다.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 회전 속도가 다소 감소하고, 이제 생성된 힘이 식물과 동물을 살아 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할 것이고, 인간의 의지가 인간이 아직 헤아려 보지 못한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효력을 가진 이 힘들이 다시 발산되게 하기까지 잠시 동안 이 땅이 계속 존재하는 일이 보장이 된다. 왜냐면 이 힘들은 어떤 의미에서 대적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고, 두 힘이 충돌하는 일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1948 년 6 월 27 일) 영적으로 성숙한 과학자들은 이런 과정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더 이상 초자연적 힘의 역사를 그렇게 불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이 땅 밖의 영역은 세상적인 이성의 생각으로는 헤아려 볼 수 없는 영역이고, 이 땅에 적용되는 법칙과는 다른 법칙이 이 땅 밖의 영역에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별은 그 자체를 위한 세계이고, 모든 별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려는 의지가 다르게 표현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통해 하나님의부터 무수한 생각이 실행이 되고, 모든 각각의 생각이 가장 깊은 지혜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존재할 수 없다. 왜냐면 상상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의 생각에 제한이 없고 그의 창조능력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기 때문이다.

무수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의 거주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을 이성을 통해 완전히 파악하는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즉시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에게는 항상 가능한 일이다. 이 땅의 움직임과

이 땅의 궤도와 이 땅의 성질에 대해 시간의 관점에서 계산하고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이 땅에 적용되고 인간에게 알려진 자연 법칙에 근거하는 정도로 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성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과학이 이 땅의 최종적인 파괴가 어떤 이유로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히 정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이 땅의 과학은 이런 진술을 할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이 땅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과학의 반대가 된다. 과학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믿음이 긍정하는 것을 부정한다.

하나님은 이 땅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이 땅의 위와, 안과,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죽음과 함께 이 땅의 표면의 완전한 변화를 선포한다. 과학은 이런 일은 전혀 모르고 있다. 즉 이는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징조이다. 하나님때문에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어난다. 사람들은 모든 자연 법칙과 모든 힘을 알지 못하고,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모든 힘들을 보여줄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가 진리에 합당한 결과물을 제시하려면, 믿음을 기반으로 연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단지 연구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닫혀 있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돕는 존재가 그와 함께 하고, 그에게 설명을 하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에게 일반적으로는 그의 이성이 거부했을 많은 것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영접할 수 있게 보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땅을 분해시키는 원인과 능력..... (원자력)

B.D. No. 3950

1947년 1월 2일

옛 땅이 분해되기 전에, 새로운 땅을 창조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이 땅의 겉 형체가 전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 땅이 묶음을 받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어떤 의미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체험해야만 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창조물 안에서 새로운 형체를 입을 수 있게 하고,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이 계속하여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런 마지막으로 파괴는 일은 아주 강력하여 물질이 전적으로 분해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마지막 파괴의 역사는 아주 강력하여, 단지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내부에서 분출이 일어나, 모든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로써 모든 지구 표면이 영향을 받고, 이 전에 존재하던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가장 작은 조재까지도 분해가 된다. 이런 일의 원인을 사람이 제공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연과학의 영역에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그들은 이런 영역을 연구하기 위한 자연의 법칙과 법칙의 효력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세력들에게 분해를 일으킨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막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의 이런 의지를 영원한 나의 구원계획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고, 그러면 또한 영적인 존재들의 구원을 위해 보장된 시간이 다 됐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파괴의 역사는 실제 사람의 의지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나의 뜻에 합당하다. 왜냐하면 아직 굳은 형체 안에 묶임을 받고 있고, 일하기를 갈망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확실하게 성장하는 일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의 의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실험을 실패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이 지역적으로 이뤄지지만, 그러나 제한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된 힘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고, 그러므로 모든 방향으로 격렬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 땅은 제한적인 공간을 가진 반면, 폭발된 힘은 제한을 알지 못하고, 이 힘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희생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너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이다. 게다가 너희가 그들의 눈 앞에서 마지막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에게 속한 소수의 사람중의 하나가 아닌 동안에는, 이런 역사가 너희의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땅의 종말의 증인이 되는 일이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떠한 결합도 계속 결합된 상태로 있게 하지 못하는 폭발이 일어난다고 상상한다면, 이로써 모든 것이 남김없이 파괴되어, 가장 작은 원자가 되는 일을 생각하면,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작은 개념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짧은 시간이 필요한 이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지진과 화염이 분출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 만으로도 사람들이 가장 큰 공포의 빠지게 하기에 아주 충분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확실한 죽음을 눈 앞에 보기 때문이다. 어떠한 창조물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단지 가장 작은 원자로 크기로 분해된 물질만이 남고, 나에게 의해 새로운 형체가 되어, 나의 의지의 힘과 나의 권세로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창조물이 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굳은 정도를 가진 창조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으로 옛 땅에 살았던,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영적인 존재들이 가장 굳은 물질 안에 거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혼이 영의 나라에서 계속 성장하는 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가야만 한다. 즉 때가 되면, 사람의 의지가 아주 잘 못되어, 세력들을 분해시키기 원하게 되면,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런 세력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번 구원 시대의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이 소유한 것과는 다른 혼의 성장 정도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절대로 건설적이지 못하고, 단지 파괴하는 일로 나타날 것이다.

아멘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 자연 법칙에 대한 무지와 자연의 법칙의 영향.

B.D. No. 3951

1947년 1월 3일

너희의 혼이 어느 정도 성숙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을 제한된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든지 나의 도움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정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영역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지식이 열리고 모든 연구하는 일이 너희에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나 자신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 인간의 지적 활동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너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되기 위해 영적인 성숙함에 도달해야만 하고, 생각과 행동에서 나와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부족한 동안에는,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없고, 그러므로 세력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세력들을 사용할 수 없다. 너희는 실제 언제든지 실험을 하고, 걸음으로 보기에 지식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나의 작품을 파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의 힘의 지원을 받아 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시도가 순전히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고통받는 인류를 도우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그런 시도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힘들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고, 너희는 그런 힘들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또한 옳고 참된 생각을 하도록 보장하는 일정한 영적인 성숙한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이제 연구자들이 내가 없이 연구하고, 그들이 단지 이성으로 일하고, 단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자연의 권세를 복종시키려고 추구하는 저조한 상태에 도달했다. (1947년 1월 4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나와 물질을 향한 잘못된 태도로 인해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했다. 따라서 비록 그들이 그들의 정확성을 확신하고, 이를 근거로 실험할지라도, 그들의 연구와 계산은 오류가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너희에게 단지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의 발산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나의 힘은 무한의 전체를 향해 흘러가고, 실제 임의대로, 목적이 없이 흐르지 않고, 영원한 나의 기본 법칙에 따라 모든 창조물에게 분배가 되어, 창조물이 자신의 영적인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동안에는, 창조물들의 존재와 유지가 보장이 된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힘에 제한이 있고, 그 힘은 창조물의 크기에 맞게 조정되고,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유지하고 건설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힘의 정도를 임의대로 높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파괴적이 된다. 영원의 창조주로서 나 자신이 실제 효과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창조물의 출현시켜 살게 하여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효과를 분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무지로 인해 자유롭게 해준 힘이 인간 자신에게 돌아 간다. 다시 말해 이 힘이 나의 자연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을 단지 파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혼을 그 안에 가진 사람을 파괴한다.

나는 현명한 자들의 지혜를 무기력하게 하고, 날카로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버릴 것이다. 그들이 내가 없이 연구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생각은 흐려질 것이고, 결과에 오류가 있게 될 것이다. 그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은 효력이고, 창조작품의 멸망이다. 창조의 작품이 유지되면, 창조작품에게 올바른 정도로 유지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를 목표로 하지 않고, 단지 물질을 목표로 하는 인간의 의지를 통해, 이 땅이 최종적으로 파괴되는 일이 나의 방해

를 받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 왜냐면 때가 되었고, 나에게 속한 작은 무리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연의 법칙이 무력화되는 일. 종말의 때의 사탄의 권세.

B.D. No. 4472

1948년 10월 29일

너희가 진리 안에 서기 원하면,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기 원하면, 내가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기 원할 때,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설명하기 위해, 항상 너희와 대화하기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오류에 빠져 있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법을 제정한 영원한 분에게 이 법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자신의 영원한 구원계획에 도움이 되면, 이를 통해 혼을 영원히 얻을 수 있으면, 이 법을 무효로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나는 희귀하게 이 권한을 사용한다. 왜냐면 나의 지혜가 혼들을 나의 나라를 위해 얻는데, 나의 법이 얼마나 유익하게 역사하는 지, 영원으로부터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법을 무효화시킬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 하늘의 세력들이 움직여, 이러한 징조를 통해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한 것처럼,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법을 무효하게 만든다.

너희는 이러한 때에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체험할 것이고, 연구하는 사람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내가 자연을 다스리고, 내 뜻대로 자연현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나의 대적자도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럴지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왜냐면 그가 사람들이 나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똑같이 강하고 권세가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때를 활용한다. 나 자신과 나의 영원한 구원계획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람들 너희 자신을 이런 대적자에게 넘긴다.

(1948년 10월 30일) 그는 항상 너희의 생각에 역사하여, 너희가 나를 떠나게 하려고 시도하고, 나를 향한 모든 깨달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는 혼자 너희를 지배하기 원한다. 그러나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를 허용한다면, 너희 모두는 버림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그의 권세에 절대로 제한을 가하지 않고, 너희 사람들 자신이 너희가 그에게 너희 자신들에 대한 권세를 부여하기 원할지 또는 너희가 그에게 저항을 하고, 나에게 속하려 할지 결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운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싸운다. 나는 너희에게 빛을 주고, 너희가 가기 원하는 길을 너희 스스로 정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 길을 밝혀주고, 너희가 어두운 길을 가고,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의 대적자도 빛을 번쩍인다. 그러나 이 빛은 단지 너희 눈을 부시게 하고, 그럴수록 더욱 어두움에 빠지게 하고, 너희가 아주 큰 위험에 놓이고,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짓 빛이다.

그러나 진리는 밝고 선명하게 빛난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준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너희가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에 대한 권한을 나의 대적자에게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대적

자를 꿰뚫어 보고, 그의 성품을 알고, 그의 악한 계획을 알고, 너희가 그에게 빠지면, 영원 가운데 처할 너희의 운명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를 피하고, 나의 품으로 도피할 것이다. 왜냐면 진리가 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단지 사랑하는 나의 성품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너희 사람들에게 정해진 바를 너희가 전적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너희를 나의 대적자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의 피조물인 너희를 전적으로 지배하면서, 너희를 나로부터 강제로 멀어지게 하면서, 절대로 권좌에 권세를 부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강제적으로 너희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받게 할지, 이로써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받을지, 자유롭게 결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그의 권세를 벗어날 것이다. 왜냐면 그도 너희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나는 그를 대적하도록 순수한 진리를 전해 주면서 너희를 돕기 원한다. 순수한 진리가 너희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너희가 나에게 향하고, 그를 떠나려는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1948년 10월 31일)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는 크다. 너희는 이 시대의 종말의 때에 너희에게 그의 능력을 증명해주는 일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능력은 아직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가지고 있는 창조물들에게까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실제로 사람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지원으로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사람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도 마지막에 가서 그의 권세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 말해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특별하게 나를 나타낸다.

나는 분명하게 자연의 법칙에 개입하고, 법칙을 무효화시키고,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를 창조주요 운행자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해주기 위해, 이로써 그들이 종말의 때가 임했음을 믿고, 알게 하게 위해, 법칙을 무효화시키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 때가 되면 나는 나를 알려주고, 나타낸다. 전에 전혀 관찰해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나에게 의해 가능할 것이다. 학자들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나는 자연의 법칙을 무효화시킨다. 이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 전에 체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종말의 때에 나의 권세와 힘과 대치하는 일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어떤 권세의 신하가 되기 원할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나의 영원한 구원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왜냐면 이제 다시 사람의 능력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서기 때문이다.

아멘

무책임한 실험이 이 땅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B.D. No. 4708

1949년 8월 9일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는 뒤집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 세계의 질서에 저항할 수 있지만 단지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법칙들이 있다. 왜냐면 이 법칙들은 이 땅의 자연의 성질에 개입하고 또한 다른 창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이 이 법칙들을 헤아릴 수 없지만 영접해야만 한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만든 이 법칙들이 역효과를 내지 않게 하려면, 이 법칙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실제 어느 정도의 창의성이 부여되었고, 사람은 이런 창의성으로 모든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아직 영적인 힘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동안에는, 인간이 지식과 이 땅의 힘들을 사용하는 일에 제한이 있다. 이 땅의 힘들은 항상 일정한 법칙에 따라, 정해진 질서대로 발산시켜야만 하고 사용해야만 한다. 이 법칙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즉 이런 힘들이 질서에 따라 발산되게 하지 않으면, 모든 물질이 완전한 파괴되는 일이 피할 수 없게 일어나고, 인간의 의지로 멈추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이제 이런 힘들과 연관이 있는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행성들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행성들이 함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전혀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 땅에서 휴거되고, 이미 영적 힘을 소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이 사람들이 이런 파괴의 희생자가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이 땅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인간의 의지는 이런 힘들을 연구하려는 교만을 부릴 것이고, 실험을 통해 파괴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힘들이 발산되게 할 것이다.

(1949년 8월 9일) 왜냐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연구를 하는 동기가 고귀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웃 사람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일에 주는 축복을 그들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여 인간의 생명을 사용하여 연구한다. 즉 그들은 인간을 인간의 생명을 희생해야만 하는 시험 대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죄이고, 게다가 또한 이를 통해 멸망당하는 인류 전체에 대한 죄이다.

그런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깨달음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실험이 아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시기상조이지만 그들은 이런 실험을 행한다. 이런 무책임한 실험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창조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즉 물질을 파괴하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일도 성취하지 못하는 실험자들은 반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파괴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형체를 해체하는 일이고, 모든 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해방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이 땅을 파괴하는 일을 행할 것이고, 인류 전체가 이를 통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과 지나친 명예욕과 물질적인 재물에 대한 탐욕이 인간을 무모한 투기꾼으로 만들지만,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 이웃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면서 실험을 행한다. 그들의 이전의 체험과 경고와 권면이 이런 실험을 자제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처벌받게 하는 범죄이다.

아멘

나의 창조주의 영이 생성되게 한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행동에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목적을 부여한 자연의 창조물을 바꾸려는 거만을 피운다면, 사람들의 나에 대한 자세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 지혜와 내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면서 내 지혜와 내 권세를 과소 평가하는 일이고, 이로써 나 자신에게 반항하는 죄를 짓고, 또한 내가 창조한 것에 대항하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런 일은 내가 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고, 이로써 인류는 자신을 파괴한다. 왜냐면 인류의 현자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실험의 결과가 재앙적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갖기에 성숙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들에게 숨겨둔 모든 것을 사람들은 연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구 중심에 있는 것은 인간이 연구할 수 없는 것이고, 종말의 때까지 연구할 수 없는 것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구의 중심에는 이 땅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내가 엄청나게 강한 세력들을 묶어 두었고, 이런 세력들이 단지 짧게 분출되도록 허용을 받아 때때로 분출이 발생한다. 이런 일은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자신을 형성할 수 있는, 즉 자신의 위를 향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허용된 일이다. 이런 세력은 나의 동의 아래 풀려난다. 그러므로 그의 결과는 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예정된 일이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일어나는 분출은 그의 규모가 항상 한정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절대로 멈추게 할 수 없고, 인간의 의지가 절대로 이런 분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원인과 결과를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람들이 유익하게 사용하고 원하는 자신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힘을 촉발시키기 위해 연구 목적으로 이 땅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는 교만을 부린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이성의 활동이 이런 실험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1949년 9월 2일) 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창조 작품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순전히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닫힌 영역으로 침투하고, 연구하기 원하는 일은 순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제 넘는 일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은 가장 낮은 차원의 영들의 나라에 침투하는 일을 의미한다. 내가 묶는 일이 필요하다고 깨달은 묶음을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풀어준다. 그러므로 나의 영원한 질서를 어기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조작은 이 땅의 힘들의 줄어드는 저항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작이고, 이 저항력을 모든 실험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힘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분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의지와 이성으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이런 힘들의 권세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한번 연다면, 절대로 다시 닫을 수 없는 문을 연다. 왜냐면 사람들이 들어가기 원하는 영역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영역의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중심은 이런 방식으로 연구할 수 없고, 이런 모든 시도는 피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킨다. 즉 실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내가 정한 한계는 나의 영원한 질서에 따라 침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나의 영원한 질서는 항상 건설하는 일을 지원하고, 절대로 파괴

하는 일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일은 역효과를 내야만 한다.

사탄은 자신이 종말의 때에 사람들 안에 이 생각을 넣어주고,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실행하도록 이끈다. 왜냐면 사탄이 창조물의 파괴가 영적인 존재의 성장을 중단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추구하는 모든 영적인 존재를 향한 눈이 먼 증오로 창조물을 파괴하기 위해 추구한다. 이런 계획이 악마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게 섬기는 일을 하고, 이 계획은 영원한 구원계획을 따르고, 새 땅이 생성되게 한다. 새 땅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의 성장을 계속 이루는 반면에 모든 악마적인 존재들은 새 땅의 창조물 안으로 묶임을 받는다.

아멘

이 땅의 구원시대 끝에 이루는 성공. 과학자.

B.D. No. 6081

1954년 10월 17일

성 장 시대의 끝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개입할 수 있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믿지 않고 자신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창조의 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유산을 크게 늘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지원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일을 위해 힘을 얻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단지 세상적으로 세우고 창조하는 권세인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이제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자체를 시험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자의 수단으로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을 자신의 목표로 삼으면,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 세상은 항상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차게 된다. 과학은 모든 영역의 열쇠를 찾았다고 믿고 단지 희귀하게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보여준 영적인 길로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길은 위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결과는 의심스럽고 사람들이 크거나 적게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간다. 왜냐면 사람들이 건설을 원하지 않고 파괴를 원하는 자에 의해 이끌림을 받기 때문이다. 이 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을 파면서 건설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옛땅의 멸망에 기여한다.

왜냐면 과학의 진보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이고 그는 하나님의 지원이 없이 사람들이 최고의 이성의 활동을 하도록 이끈다. 사람들이 자연의 권세를 활용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활용하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영원으로부터 예견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항상 또 다시 알려준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 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잘못 된 사고 방식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권세에 자신을 의탁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는 자신의 대적자의 영향력에 대해 경고해주기를 원한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도록 조언해주

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돕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대항하는 권세를 설명해준다.

아멘

대적자의 목적은 파괴이다.

B.D. No. 6971

1957년 11월 18일

내 뜻에 의해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들이 이미 생성되었고 아직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들이 생성될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을 위해 이 세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한때 타락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면, 그들을 다시 일해야 하는 과정에 참여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비록 내 의지가 우선 결정적이고 깊은 곳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서서히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돕기 위해 영적인 존재에게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일을 지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각각의 세계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모든 세계들은 단지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귀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섬긴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들은 내 뜻을 의해 다스려진다. 이 세계들은 질서의 법칙 아래 있다. 이 세계는 내 사랑과 내 지혜와 내 권세를 증거한다. 그럴지라도 이 세계의 원래의 성분은 나를 떠나 타락한 내 대적자에게 아직 속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나 내가 이 세계를 창조할 때 내 대적자의 권세를 빼앗지 않았으면, 영적인 존재들의 영원히 더 이상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가진 그의 권세를 빼앗았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깊은 곳까지 자신을 따라간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안다. 이런 지식이 나에게 대한 그의 대적하는 자세를 강하게 했고 나를 언젠가 권좌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강하게 했고 그의 미움을 강하게 했다.

왜냐면 내가 그의 추종자의 큰 부분을 빼앗아 그들이 창조의 작품 안으로 묶임을 받고 귀환의 길에 들어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파괴하는 영향을 행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가 파괴를 통해 자유롭게 한 존재들을 다시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가운데 가능한대로 많은 창조의 작품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가 스스로 이런 창조의 작품을 파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그가 창조의 작품에 대한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여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나를 위하는 또는 내 대적자를 위하는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이 다시 자유의지를 갖게 된 기간 동안에 내 대적자도 그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파괴하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단지 사람들을 다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 내 사랑으로 영적인 존재들의 나에게 귀환을 돕기 위해 생성된 창조물을 파괴시키게 하면서 아직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다시 지배하려고 한다. 대적자의 영역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다. 그는 이 영역에서 진실로 사탄적으로 역사한다. 그가 역사하는 목표는 사람이다.

왜냐면 그는 단지 사람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우주 안의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창조의 작품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창조의

작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만 그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혼돈 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는 사람들이 다른 세계를 소유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시도를 한다. 그는 자신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이런 일을 추구하는 섬기는 종을 얻는다. 그는 그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세계들을 연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존재하던 제한을 없애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시험을 하게 한다.

대적자는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게 한다. 그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의미가 없는 종류의 연구를 하게 하면, 그는 이를 따르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이런 모든 연구들은 영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가 이 땅 밖에서 생성되게 한 창조물의 작품에게 더 적게 파괴하는 효과를 줄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런 창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창조물의 작품에 대한 내 뜻은 나 자신이 창조물의 작품의 목적이 성취한 것으로 여길 때 까지 다시 순수한 영적인 입자로 분해되기까지 계속해 존재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957년 11월 18일)

그러나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대적자의 역사는 항상 더욱 위협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런 시험이 이 땅에서 이뤄지고 이 시험이 이 땅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목표는 비록 이 땅 밖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하는 것은 사탄의 영향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뜻하던 바와는 다르게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해가 되게 공기가 변화 된다. 이 땅 자체가 언젠가 희생자를 요구하는 화덕이 된다. 왜냐면 이 땅을 파괴하는 일이 내 대적자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대적자에게 이미 강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대적자는 파괴하는 일을 성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에게 가장 작은 유익도 주지 못한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추종자를 다시 얻지 못하고 더욱 확실하게 잃기 때문이다. 그의 목표는 내가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을 위해 생성시킨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는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 많은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나에 의해 창조된 다른 세계에서는 파괴하는 역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에게 이렇게 할 권세가 없고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동안에만 그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로써 대적자가 우주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일에 도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능의 힘으로 우주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실제 시험할 수 있고 항상 또 다시 이런 시험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의 영역 밖으로 나가면, 피할 수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내 대적자가 목표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창조의 권세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고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자연의 법칙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과 나 사이의 간격이 더 커지게 하는 일이다.

그는 많은 것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 창조 계획과 구원계획에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단지 이미 자신의 권세 아래 거하고 있고 자신의 지시를 헤아려보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에 구원받을 수 없는 혼동을 일으켜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 스스로 이 땅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그들이 나 자신을 그들의 생각해서 전적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재해를 일으키게 하는 시험을 행하게 만들고 이 땅의 종말과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종말을 의미하는 시험을 행하게 만든다.

이 전에 나는 가장 진지한 경고를 통해 유일하게 이 일 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계획이 무의미함을 의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나는 우주로부터 그들에게 경고를 할 것이다. 나는 이 땅이 사람의 영향으로 일어나지 않은 위험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행성이 궤도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유일하게 세상과 세상에서 거하고 있는 창조물들을 다스림을 보여주기 위한 이 일을 막을 수 없고 무기력하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아직 이 일을 통해 깨닫고 너희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아주 깊이 내 대적자에게 빠져 있다. 그러므로 예언이 된대로 종말이 닥칠 것이다. 이 땅이 불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 땅이 불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자를 따르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 사랑없음. 자기 사랑.

B.D. No. 8712

1963년 12월 31일

사람들의 영적인 저조한 상태의 가장 큰 증거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 사이에 볼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것이다. 자기 사랑은 항상 더욱 강해졌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은 거의 아무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땅은 영이 떠난 상태가 돼야만 한다. 이는 항상 하나님의 대적자가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이 그에게 자원해 향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하는 상태이다. 영적인 어두움은 항상 더 깊어져 갈 것이다.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단지 드물게 일어날 것이고 종종 심지어 이를 비추이는 능력이 없는 거짓 빛인 것처럼 가장한다.

사람들의 사랑의 정도를 기준에서 볼 때에 분명하게 종말의 때가 온 것이다. 드러나게 후퇴를 나타내 주고 있다. 사람들은 물질에 강하게 집착한다. 그들에게는 단지 육체와 육체의 안락함,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세상 재물을 증가시키는 것 만이 유효하다. 그들의 혼이 아주 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혼이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자신 안에 혼이 있다는 것도 부인한다. 그들이 다르게 생각 하게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죽음 후의 그들의 운명을 만들고 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자신의 가까이에 환경을 관찰해 볼 때 그는 이런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왜냐면 이 상태가 날마다 나빠지기 때문이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항상 더 커지기 때문이다. 어떤 영적인 추구도 관찰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는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모두가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 사랑이 없고 사람들의 심장은 강 팍해졌으며 항상 단지 몇몇의 사람들만이 위험이 닥쳤을 때 도울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무리이다.

왜냐면 한번 사랑을 하려는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곳에 영원한 사랑과 연결이 이루기 때문이다. 이 연결은 자유의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과 떨어질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은 사랑 행함의 축복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만약에 단지 사랑을 행하면, 이로써 너희 혼을 위해 항상 더 많은 것을 받고 너희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것을 받으면, 얼마나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쉽게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단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는 한 삶 가운데 얻으려고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으며 그에게 죽음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이든지 이 땅에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가 이 땅에서 소유한 어떤 것도 저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그러나 그는 그가 이 땅에서 자신의 혼을 굶주리게 했고 이제 유일하게 남는 것은 혼이고 이 혼이 가장 비참한 가난 가운데 영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자신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보여 줄게 없기 때문에 벌거벗고 불행하게 저세상에 도착 함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의 사랑이 없는 상태는 단지 아주 적게라도 영적인 성공을 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지 혼의 영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사람은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산다. 이 목적은 성취되지 못했다. 하나님 편에서 강력한 간섭이 아주 큰 책망과 경고가 있어야만 한다. 이는 단지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종말 직전에 서있는 이 땅에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이다. 운명적인 사건을 통한 자연재해와 모든 종류의 불행한 일을 통한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낮은 소리로 부르는 부르심에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해야만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장에 영접하는 자는 복된 자이다.

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자연의 요소를 통해 말한다 할지라도 그를 깨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요받지 않고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고 이 길을 가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긍휼을 구하면, 그들은 가장 안 좋은 것으로부터 즉 굳은 물질 안으로 가는 새로운 파문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나 종말이 오게 된다.

왜냐면 이 지구는 자신의 목적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구는 더 이상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지구를 단지 육신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모든 사람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지배하는 것으로 믿고 이 지구의 마지막 파괴를 일으키는 시험을 벌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스스로 가장 큰 파괴를 행한다. 그러나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되길 원했고 말씀과 성경에 선포가 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생성될 것이다. 영원으로부터 그의 구원계획에 예견 된 것처럼

럼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귀환하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적인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아멘

"하늘나라의 세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는 일. 휴거.

B.D. No. 5029
1950년 12월 28일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은 하늘나라에서 오는 힘이고, 이 힘은 하늘의 빛의 나라인 영의 나라에서 온다. 이 힘은 지옥에서 나와 아래로부터 오는 힘의 나타남과 대조가 된다. 그러므로 영의 나라에서 제공되는 것에 자신을 열고, 영적인 선물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행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되면, 빛의 나라의 존재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한다.

하늘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그들은 종말 전 마지막 때에 특별하게 역사한다. 그러므로 이런 설명이 먼저 종말의 징조와 자신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만 한다. 그가 한 이 말은 강력한 말이었다. 왜냐면 그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자연의 법칙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의미하는 변화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는 항상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영적 의미에 더해 두 번째 의미가 밝혀질 것이다. 왜냐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런 자연의 법칙들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연 법칙일 뿐이고, 이런 과정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표현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태양과 달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설명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빛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그들의 지식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아무도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왜냐면 이런 역사가 단지 한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물질적인 걸형체의 해체가 필요할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는 자연의 법칙과는 상반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계획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이고, 영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할 수 있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법칙을 벗어난 일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전능함에 제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 왜냐면 이런 역사를 판단하는 일이 사람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의심하는 일은 주제를 넘는 일이다. 왜냐면 이런 의심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해 얻기 원하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필요하고 좋은 대로 자신의 뜻을 실행할 것이다.

종말 전에 인간이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특별하고, 실제 거의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예고하는 말씀은 단지 사람들에게 암시를 해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순수한 진리이고 때가 되면, 성취가 된다. 그러면 우주에서도 가장 이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인류는 단지 초기에만 그런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은 휴거 되어 이 땅과 이 땅의 주민들이 파멸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옛 형태와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새 땅에는 단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살고, 그들은 이 땅의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의 모든 원인을 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아주 큰 사랑과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

아멘

휴거.

B.D. No. 6681

1956년 10월 30일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말씀을 통해 너희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설명이 주어질 것이다. 내 영이 개입을 해야만 하는 곳에서 너희 생각이 올바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진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유일하게 진리가 축복된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나 잘못 된 생각은 너희 혼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고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걸 형태를 더욱 굳게 한다. 왜냐면 잘못 된 생각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대적자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항상 순수한 진리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들은 어린 아이처럼 그림과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림과 비유들이 전적으로 진리에 합당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내 대적자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는 일을 막으려는 개입을 시도하고 그림과 비유를 왜곡시키려고 시도한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숨겨져 주어지는 것과 내 사명을 받은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 또는 스스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이제 영을 통한 깨우침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숨겨서 묘사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만든다. 왜냐면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 땅의 존재목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숨겨지지 않은 진리가 전적으로 믿을 만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기록 된 말씀인 조상들의 책을 전적으로 버릴 것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진리를 숨기지 않고 제공해준 결과가 그들이 전혀 믿지 않고 이로써 내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든지 숨기지 않고 마지막 일들을 설명해주는 일을 방해하였지만 그러나 설명해주는 일이 필요하면, 항상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써 여러 가지 의견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합당한 의견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깨어난 영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할 것이고 숨겨진 진리를 드러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과정들은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새 땅에서 다가오는 인류에게 내 권세와 영광을 알려줘야 하고 옛 구원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구원시대가 열리는 일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종말이 임하면, 이런 적은 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들어 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원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휴

거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이 일이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게 놀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멸망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내 대적자에게 속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행복해하고 찬양하면서 내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그들의 이웃들이 보는 가운데 들어 올릴 것이다. 몇몇의 적은 수의 사람들이 깊은 위험 속에서 나에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깨달음과 가장 깊은 후회로 나에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알고 항상 또 다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의 저항을 포기하게 하고 그들 자신을 그들의 심장 안에 거하는 나에게 드리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단지 깊게 흔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을 벗어나기 위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사람들이다. 왜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의 심장을 알기 때문이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는 부름을 알고 그들이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덤이 많은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즉 무덤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죽은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 땅의 흔들림이 무덤의 문을 여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지 무덤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종말 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죽은 혼들이 깨어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면 지옥이 가장 악한 영들을 이 땅으로 뱉어내기 때문이다. 빛의 나라로부터 높은 존재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사람들의 혼을 얻기 위한 싸움이 분명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에는 그들에게 숨겨서 전해진 것을 깨닫게 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싸움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아 멘

그리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이전에 그들에게 숨겨졌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전에 그들에게 숨겨졌던 일의 의미를 이해하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의 사람들이 특별히 물질에 집착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는 내 구원의 계획을 적게 안다. 숨겨져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계시를 여는 열쇠는 내 구원계획이다.

사람들이 칭의와 최후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을 믿을지라도 구원시대의 단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대로 종말에 관련 된 계시를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그들이 이성으로 더 많이 일할수록 결과가 더 혼란스럽게 된다. 그러나 내 영은 종말의 징조와 과정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알려준다.

파괴 전에 즉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멸절시키는 일과 이 땅의 걸형체가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일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휴거되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오랜 시간은 뒤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믿어야 한다는 강요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제 어느 누구

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도록 강요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휴거시켜 데려가면 종말이 임하고 이로 인해 공포에 남겨진 사람들이 확실하게 맞이할 죽음의 공포가 더해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땅이 열리고 불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지 나를 깨닫고 최고의 괴로움 속에서 나를 부르고 자극을 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얼어붙어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적은 수의 사람들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들의 혼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맞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람들에게 단지 비유를 통해 예언해줄 수 있다. 왜냐면 그들에게 내 영원한 구원 계획을 설명할 수 없는 동안에는 그들이 결코 내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영적인 상태가 이해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설교되었고 내 말씀은 사람들이 사랑을 행하도록 격려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고 내 사랑의 계명을 따르면, 너희는 내 구원 계획을 깨닫도록 인도받았을 것이고 또한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사랑의 삶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도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이성이 이제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비유가 더욱 혼란스럽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단지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그들에게 직접 말한 것을 고수해야 하고 내 말씀을 자신 안으로 영접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빛이 되고 그들이 전에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영이 이제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부지런히 연구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항상 더욱 깊이 잘못 된 생각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자신이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는 이를 다시 버려야만 하게 될 것이고 자신 안에 빛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 사랑의 계명과 이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이 유일하게 너희가 올바른 생각하는 일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말씀과 모든 예언과 종말에 대한 모든 언급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영이 너희를 깨우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영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너희를 항상 진리로 인도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학문....

B.D. No. 0242

1937년 12월 30일

너에게 제공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구세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논쟁은 영원한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깨달음을 갈망하지 않거나 또는 혼자서 위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패배할 것이다. 그가 성공하려면, 그는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도록 간청해야만 한다. 깨달음이 반드시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사람은 이 땅의 영역을 연구할 수 있고, 그는 또한 많은 것에 도달할 수 있다. 아무리 성취해도, 그가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와 다른 하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심장이 모든 세상의 것에서 자유 로워지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그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멀리 있고,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는 모든 갈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를 연구하고, 그가 자신의 심장을 단지 유일하게 아버지에게만 향할 때,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영역에 침투하려는 많은 시도가 이미 있었지만, 그러나 만약 많은 지식을 가진 그들이 성공했다면, 만약에 그들 만이 유일하게 그들의 지식을 통해 진리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는 인류를 다시 섬기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나라를 준비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의 자녀들의 심장을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고, 단지 유일하게 지식으로만 평가한다면, 얼마나 지극히 작은 일부분 만이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는가! 그분의 왕국이 얼마나 작은 부분을 차지할 것인가!

주 하나님이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이 그의 나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면, 단지 이 땅에서 학문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명령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모두는 후보자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도달하는 일은 단지 유일하게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학문은 확실히 축복을 받는 데 훨씬 더 큰 장애물이다.... 학문은 너희를 이 땅에서 위대하고 강하게 만들지만, 너희가 작고 겸손하게 주님과 연결을 이루는데 자주 적합하지 않다....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너희는 항상 단지 오직 너희 눈앞에 창조물의 본질을 헤아려 보려는 하나의 목표만을 본다.... 너희는 달한 모든 영역에 침투하려고 한다. 이로써 인류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너무 무지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장 단순한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주님이 너희를 돕지 않으면, 너희가 작다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우주의 의미와 목적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을 때, 너희는 진정한 깨달음에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의 모든 명성을 기꺼이 버린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의 것에 도달하려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무가치함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너희를 영원한 진리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단지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를 가장 깊은 심장으로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주님께 도달하려는 의지가 너희를 모든 학문보다 훨씬 더 높인다....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창조의 비밀을 풀려고 할 때, 너희 안에 소원이 있고, 너희가 신적인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에게는 하룻밤 사이에 창조의 비밀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

이성의 한계.... 세상의 현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B.D. No. 0589
1938년 9월 19일

이성의 한계에서 영적인 힘의 작용이 시작되어야 만한다. 왜냐하면 영의 힘이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들어가는 입구를 쉽게 찾게 해주는 자연의 수수께끼에 관한 지식을 너희 인간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지식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주위에 있는 영들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 생각을 인도하여 너희가 진리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한다. 너희 안에 더 많은 믿음이 있을 수록 너희가 너희 안에서 신성의 존재를 더 많이 느낄 것이고, 그럴수록 이런 생각이 더 밝고 더 분명하게 너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만물의 아버지께서 아직 감추어 놓은 것을 자신의 힘으로 헤아려 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단지 오랫동안 지식을 얻기 위해 투쟁에서 실패할 것이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성공을 완전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자신 안에 세운 진리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그에게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지식이 부적절함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내적 연결은 그에게 모든 지식의 열쇠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가장 완전한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보장을 해준다. 사람 안의 영의 생명이 순전히 이 땅의 노력과 완전히 분리되고 살아가고, 영적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과 처신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깨달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다리로 들어서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 연구하고 고민하게 하라. 주님은 자신의 도움 없이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했다. 이 도움은 다시 완전히 의식적으로 요청을 받아야만 한다.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잃게 될 길 가운데 있다. 그러나 만물의 아버지께 긴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영적인 힘으로 일하고 있고, 이제 잘못 될까 두려워해야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청하는 도움은 청하는 순간부터 그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에게 이제 그가 단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되고, 그에게 연구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이제 열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쉽게 든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하면, 항상 유일하게 자신 만이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적대감과 거절을 만나게 된다. 만약에 주님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가진 세상의 현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겸손 속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에게 올바른 정도의 진리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로써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항상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스스로 지식 분야에서 얼마나 적게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세상에게 절대로 갖게 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오히려 이런 올바른 노력에 반대하고 진리의 소유자를 공격하고 그들을 모함하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진리를 통해 역사하는 동안에는 진리의 전달자에 대한 모든 조치가 소용이 없다. 세상 사람들의 권세는 작지만 그들은 단지 자유의지를 통해 부끄러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녀가 이러한 대항하는 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에 의해 그의 효과가 약해질 것이다. 최종 결정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 단지 사람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그는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망치려는 사람들의 독한 침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 자체 내에 혼란을 불러 일으켜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자연의 법칙은 항상 잘 계산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신성이 영원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법을 뒤집는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 당황하는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유일하게 그들의 지식 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아주 많다는 증거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로써 여러 세대들이 항상 또 다시 새롭게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그들은 결코 순수한 이성을 통해 최종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가능한한 최단 시간에 남김 없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깨달음을 구하면, 너희는 결코 어둠과 잘못된 길을 걷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길은 너희를 확실하게 영원한 고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발명품. 자연의 힘. 믿음.

B.D. No. 1011

1939년 7월 19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능력과 지식이 소용이 없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의 기술을 가진 시대에 자연의 힘이 특히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확신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힘과 자신의 하나님의 힘에 대한 의존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에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들이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 생성이 되고, 이 일에 창조주 하나님이 축복을 베푼다. 기술의 발명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영은 인류의 높은 곳을 향한 추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 그러나 오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세력은 연구되지 않은 세력이다. 바로 이런 세력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를 일으킨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자연의 힘을 활용하고, 뭘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예상치 못한 자연의 세력이 나타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쓸모없게 만든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럴지라도 사람은 항상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알맞게 받는다. 모든 자연의 힘 속의 하나님 자신을 깨닫고, 동시에 인간의 유익을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모든 종류의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성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연구와 실험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발명에 함께 할 것이다. 반면에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비범한 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실제 또한 하나님으로 오는 능력을 요구하면, 이 능력이 그에게 금지되지 않을 것이지만) 불법적으로 이 힘을 소유한다. 왜냐하면 그가 신성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즉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교만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곧 역풍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길을 장애물 위에 장애물이 막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장애물은 자연의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모든 일은 그 결과 그대로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어려움을 다양하게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연 원소의 역사에서 자연의 모든 힘이 창조주 주님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가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수행할 의지를 갖은 후에, 그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보지 않는 한, 항상 퇴보한 상태에 머문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연구와 도움이 없이 하는 연구. 진리.

B.D. No. 1609

1940년 9월 13일

이성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진 해결책이 진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 그러나 영적인 탐구를 통하는 방법보다 순수한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땅의 과학자는 가장 작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믿을만 하지 않고, 스스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서로 다른 것처럼, 그들의 연구결과도 매우 광범위하게 다르게 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 영적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견해를 확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오류에 빠지고, 오류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다시 말해 그들이 같은 영을 가진 경우에만 단지 일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부터 올바른 해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길을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의 세상이 영적으로 얻은 것보다 정확히 과학적으로 얻은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진리를 끈질기게 거부한다. 말할 수 없게 중요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깨닫지 못하고, 활용되지 않고 머문다. 단지 소수의 신자들만이 영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지식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유일하게 진리 안에 머문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아드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담

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성을 통해 얻은 지식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제공할지라도, 아주 빈틈이 많고, 절대로 남김없는 만족을 줄 수 없다.

과학이 바로 진리와 크게 또는 적게 모순이 되는 가설을 내놓았다. 인류가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대신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인간의 의지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쌓는다.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 연구하기를 거부하고, 이제 비로소 영적인 결과를 대한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설명을 얻기 위해 훨씬 더 이성적인 사고를 활용한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파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깊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에 합당한 결과를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주 저항에 부딪히고, 단지 자신의 이성만이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결과는 전혀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결과를 여전히 유일하게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추론을 하고, 따라서 항상 계속하여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때문이다.

순수한 진리는 가장 깊은 믿음이 모든 영적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요청하는 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만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진리 자신에 의해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오류 가운데 머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둘 때, 하나님 자신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핵심은 항상 영원히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진리와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히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지라도, 그의 견해는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사람의 견해와 현저하게 다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가 서로 다른 출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단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원천에서 진리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올 바르게 사용된 이성. 의지.

B.D. No. 3137

1944년 5월 29일

선물로 받은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은 혼이 높이 성장하는 일에, 절대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성은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해 생각하여, 그가 의식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에,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 안의 자유의지가 이성을 통해 활발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이성이 자신에게 알려 줄 때, 비로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는 항상 어떤 생각의 결과이다. 이제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은, 다시 말해 선을 원하고, 악은 미워하는 일은 피할 수 없게 혼이 성장하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이성이 악한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이끌어 가면, 이성을 바르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없고, 이성이 잘못 사용된 것이다. 사람들이 진지하고, 섬세하게 생각한다면, 아주 쉽게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생성하고,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지혜로운 창조자의 능력이 역사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사람이 비로소 이런 생각에 도달하면, 이성이 창조의 능력과 연결을 이루도록 의지를 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겨야만 하고,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창조주를 최고로 온전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인정해야만 하고, 이런 의식이 창조주와 연결을 이루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이성을 활용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생각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가 의식하는 가운데 창조주와 연결을 이룬다면, 그런 후에 그의 생각이 올바르게 인도받는 일은 나타나는 창조주의 역사이다. 이성은 이런 연결을 이루는 순간까지 스스로 일하도록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목표로 인도하는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성은 자유의지에 부가적으로 주어졌다. 단지 인간이 내면으로부터 선을 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세운다면, 그의 이성이 하는 일이 그를 반드시 목적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 이성은 의지가 하나님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도록, 쓰임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 전에 의지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단순히 이성적으로 그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모든 진지한 사고하지 않고, 이성이 하는 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생각하는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이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것이고, 절대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의심하거나 또는 오류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에 따라 그는 선한 세력이나 또는 악한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성을 진지하게 사용한다면, 심지어 악한 의지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일이야말로 이성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물로 받은 이성을 잘못 사용할 때, 그가 이성을 진리에 가까이 다가 가게 하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하나님은 열심히 생각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진리를 숨기지 않는다. 사람이 올바른 의지를 가질 때, 그는 가장 크게 성공할 것이고, 진지하게 생각할 때, 그는 또한 진리에 가까이 다가 가게 하는 같은 목적을 추구하도록 자신의 의지를 정할 것이다.

아멘

깨달음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

B.D. No. 6456

1956년 1월 21일

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넓은 영역이 열린다. 이런 영역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넓은 영역에 대한 너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런 영역을 탐험하려고 하고 그들이 영을 통해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그들도 이런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영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연결을 이루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비로소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다. 이런 장애물은 너희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너희의 이성이 무너뜨릴 수 없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나와서 긴밀한 연결을 통해 너희는 세력들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라. 너희 모두가 실제 이런 세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냥

거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연결이 이런 세력들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만든다. 왜냐면 그들이 원래 초기에 너희 안에서 역사했고 나와 분리가 해결이 되면, 항상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사랑의 힘이 너희를 충만하게 비추게 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한때 빛과 능력으로 충만했고 최고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한이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너희 자신이 동인이 되어 내 사랑의 힘이 너희에게 다시 충만하게 비추게 하면,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 나와 연결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너희에게 이전의 충만한 빛과 힘이 줄어들지 않고 너희에게 제공 된다는 말을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들어야만 한다. 빛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일은 또한 한때 그랬던 것처럼 가장 완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내 사랑과 내 영이 너희를 충만하게 채워주고 너희의 생각을 깨우쳐주고 모든 가림막이 너희의 눈 앞에서 사라지게 되고 제한되었던 이성의 지식이 확장 된다. 또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영역이 너희에게 열려 있다. 너희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설명도 얻을 수 없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너희는 영적인 질문과 너희와 창조물의 존재 의미와 목적과 온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능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존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너희 모두가 이런 지식을 갈망해야만 하고 또한 너희 모두가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연결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 안에 가장 작은 빛의 광선도 타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이 한때 얼마나 힘과 빛으로 충만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처한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 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전달되는 일도 이해하기 위한 빛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이 없는 상태인 자신의 영의 어두움을 변화시킬지가 인간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 일에 큰 영적 위험이 있다.

고도로 발달된 이성의 사고를 하는 사람도 심지어 단지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연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일하게 축복을 주는 존재하는 목적과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들의 날이 끝날 때 그들은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할 때와 같은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헤아려 보지 않은 나라가 단지 실재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나와 연결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결이 그들이 내 나라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빛과 힘이 없이 세상에 임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사랑이 너희에게 비추게 하면, 너희는 빛과 힘이 충만하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다. 나에게 대한 모든 질문은 이미 너희에게 빛의 광선을 줄 것이고 빛의 광선이 너희가 나와 연락을 취하도록 이끈다. 그러면 또한 너희에게 충만하게 사랑의 힘을 받는 일이 보장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밝은 영의 상태에서 이 땅의 삶을 떠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땅의 세상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은 곳은 빛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고 이 땅의 세상이 오히려 어두움을 더 깊어지게 할 것이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의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 깨달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빛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헤아려볼 수 있도록 너희가 입구를 구한 영역으로 내 영

이 인도한 너희는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빛 안에 거하고 더 이상 어두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의 지혜와 거짓 빛. 진리를 구하라.

B.D. No. 6628

1956년 8월 26일

세상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씀은 항상 영원히 머물고 나에게서 발산하여 어두움 속으로 비추는 빛은 항상 영원히 머문다. 그러나 인간은 어두움을 통과해야 하므로 거짓 빛과 올바른 빛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올바른 빛은 진정한 깨달음을 준다. 눈을 부시게 하는 빛인 역광은 이성적으로 얻은 모든 지식이다. 역광은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지혜이다. 너희는 이런 역광들을 빛의 광선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빛의 광선은 모든 것을 비추고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보여준다.

이런 올바른 빛은 실제 인간적인 형태로 즉 이성적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너희에게 제공될 수 있다. 그러면 이성이 깨우침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이 나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또한 순수한 진리를 대변하는 빛의 전달자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이성적인 모든 지식이 내가 인류에게 직접 제공한 영적인 내용과 일치하지만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런 지식은 세상 지혜로 여겨야만 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같이 이런 지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을 확신시키지 못할 것이고 세상은 세상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고 있다. 자녀들이 긴밀하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내가 없이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올바른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전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를 고백하고 올바른 인도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이 내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믿기 원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너희의 손을 잡으면, 너희가 이에 저항하지 않으면, 사람은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된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 항상 계속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섬기는 것을 제공한다. 너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한 은혜의 흐름이 헛되이 흐르게 되고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이 헛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 혼이 올바른 양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적합하지 않은 양식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이다. 그런 양식은 혼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또한 혼이 성장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너희 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또는 너희가 스스로 얻은 운명을 짊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너희 자신을 위해 즉 너희의 몸이 죽은 후 너희 혼에게 영광스러운 운명을 마련하도록 너희에게 주어졌다.

진리가 유일하게 혼을 위한 올바른 양식이다. 너희가 사람들을 통해 너희에게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면, 단지 나 자신이 진리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너희는 이전에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고 내가 순수한 진리에 합당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너희를 인도해주기를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

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해줄 단지 하나의 길과 하내 수단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려면, 진리가 내 내면에서 나와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나에게 진리를 구해야만 한다. 이런 일이 유일하게 너희가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일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이 땅의 자녀의 이런 요청을 듣지 않은 채로 놔두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어떤 방식이든지 나 자신을 계시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를 영으로 진리로 나에게 드리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의해 오류에 머물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순수한 진리가 제공될 것이고 그는 또한 진리를 진리로 느끼고 축복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단지 피조물로 생각하고 그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아직 맺지 않은 동안에는 진리의 빛이 아직 그에게 비추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빛이 사람이 영원한 자신의 창조주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고 이런 빛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버지께 도달하기 위해 가기만 하면 되는 짧은 길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달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서 관계를 이루는 일이 어렵다. 그는 끝없이 먼 길을 가게 되고 목표가 그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에 의해 모든 것을 성취하지만 그러나 피조물은 한때 자신이 스스로 만든 나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이 없이 하는 학문적인 연구 1.

B.D. No. 6942

1957년 10월 12일

먼저 너희 내면에 질서가 세워지게 돌보라. 그러면 너희는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기적적인 해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알려질 것이다. 너희는 창조의 작품이건 또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연구를 하고 시험을 하게 만드는 자연의 법칙이건 연구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밝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안의 질서가 비로소 올바른 생각을 보장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보장하고 너희의 이성의 생각의 결과가 진리에 합당하다는 보장을 한다.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시험해볼 수 있다. 너희는 잘못 계산하고 잘못 된 계산은 잘못 된 결과를 가져온다.

너희가 인간으로써 너희 자신이 아직 영원한 자연의 법칙 밖에 있는 동안에는 자연의 법칙을 연구할 수 없음을 너희에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동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대적자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절대로 너희에게 빛을 주는 일에 관심이 없고 너희의 생각을 항상 더욱 혼란스럽게 하기 원한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이 실제 그들의 이 땅의 과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그의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창조물에 관한 문제를 다르게 해석해주는 일이다. 자신이 굳고 긴밀하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창조물의 비밀을 해석하기를 원하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단지 잘못 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불신으로 인해 대적자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적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일이 이 땅이 종말 가까이

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 뿐만 아니라 우주도 활용하려고 하고 우주로부터 답변이 오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아직 많은 일을 체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옥의 모든 세력들이 마지막 때 역사할 것이고 너희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역사가 지옥의 세력의 도움으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사는 너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대적자의 영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와 강함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적 성장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원을 받지 못한다. 사랑이 전혀 없이 사는 인류의 의해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워지지 않는다. 인류는 평화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지 않는다. 미움과 지배욕 만이 사람들의 행동을 정하고 모두가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고 하고 그러나 사랑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단지 권세와 지식을 자랑하려고 한다. 모든 생각과 모든 추구하는 일이 단지 세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일을 완성하거나 또는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게 허용할지라도 대적자와 그의 역사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대적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에게도 제한이 있다. 사람이 창조한 것은 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원래 성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사람의 의지를 통해 모아진 잘못 된 방향을 잡은 능력이거나 또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자연의 능력을 잘못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로 이 전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을 영적인 성장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일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자신의 성품이 역사하게 하여 사람들이 자원해 대적자를 섬기는 종들이 되는 일을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는 일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대적하는 영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는 일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이 없이 하는 학문적인 연구 2.

B.D. No. 6943

1957년 10월 13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짧은 동안에 성장하기 위해 너희는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성장 정도에 합당하게 이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 너희는 이 땅이 너희를 섬기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가 모든 것을 질서에 합당하게 활용하고 너희 자신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따르면, 모든 것이 너희 삶을 유지하게 돕기 때문이다. 이 땅은 성장하기 위해 거하는 장소로 너희 혼에게 주어졌다. 너희는 단지 모든 감사함으로 이런 은혜의 선물을 활용해야 한다.

왜냐면 이 땅의 과정을 가야만 하는 일은 비록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크게 성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단지 이 땅에서만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이 땅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큰 은혜를 활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현혹이 되어 이 땅의 삶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으로 믿는다.

그들은 이런 관점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산다. 그들은 진실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에게 그들 자신을 받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권리를 준 의미로서가 아니라 항상 단지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이 땅의 물질적인 재산을 증가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의 소유물이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불의하게 얻은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 행한다.

사람들의 이런 자세는 진전이 되어 곧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준 창조의 작품 밖에 있는 영역에까지 잘못 들어간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창조주는 이런 일을 원래 초기부터 미리 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사람들이 향하는 의지의 방향을 기초해 자신의 구원계획을 세웠다.

이 구원계획은 사람들의 의지가 원인을 제공하면, 항상 단지 실행 된다. 사람들의 혼이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전적으로 잊어버릴 진지한 위험에 있으면, 혼의 성장이나 또는 성숙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면, 이 땅의 목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조건 하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한 구원시대를 끝마친다.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실제 목표를 더욱 벗어난다. 그들은 혼의 성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지나친 열심으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일한다. 이런 자세를 통해 무엇보다도 다음 한 가지를 알 수 있다. 지배하기 원하는 원칙이 항상 더욱 전파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드러나게 역사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대적자의 말을 듣는 섬기는 자들이 되는 일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께 귀환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세상 물질을 향해 있다. 그들의 목적은 권세와 권력에 있고 명성과 영광에 있고 높은 위치에 도달하려는 데 있음을 아주 잘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일은 사람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이 땅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의 관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도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력을 증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을 미리 보았다.

그는 이 땅이 이 땅의 목적을 더 이상 성취하지 못함을 알고 구원시대가 끝나게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 된 생각과 추구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증거를 나타내고 그들의 성공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동안 성공을 기뻐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적자가 큰 권세를 갖는다. 그는 이 권세를 열심히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빠질 필요 없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제공되어 그들이 대적자와 그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잘못 깨닫는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을 현혹되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말이 다가오면, 결과를 짊어져야만 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B.D. No. 4480

1948년 11월 7일

너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영적인 가르침이 제공이 되든지 간에 너희가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너희 안에서 나의 영이 역사해야만 한다. 너희가 직접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이는 너희 안에서 나의 영이 역사한 결과이고, 역사한 증거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섬기는 종을 통해, 진리를 가르침 받은 사람들을 통해 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외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가 이 받은 가르침에 대해 너희 안의 영을 통해 설명을 받으면, 즉 나의 일부분인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으면, 이로써 너희가 신적인 선생님을 갖게 되면, 너희는 비로소 외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신적인 선생님에게 너희 자신을 의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온 모든 가르침은 너희에게 소용이 없을 것이다. 신적인 것은 영에 의해 이해되기 원한다. 사람의 이성 만으로는 신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 안의 영의 도움이 없이, 이성 혼자 자신 안으로 영접하려고 시도하면, 이는 사람의 작품이 되고, 번개가 되며, 이해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순수한 진리와 더 이상 같은 점이 없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는 상태가 되지 못하고, 오류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면, 너희는 나에게 어떤 저항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진실한 기도를 통해 나와 연결을 구해야만 한다. 너희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안에서 답변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생각은 벗어난다. 이로써 그들이 나에게 헌신하고, 내면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가르침을 받는 일이 그들에게 불가능하게 한다.

긴밀한 기도와 올바른 답변에 대한 갈망이 그가 선명하게, 진리에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나를 부르고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의 영을 깨우쳐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나는 진실로 그가 내가 직접 주는 말을 받는 사람으로써 그를 가르치고, 다르게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의 영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항상 모든 곳에서 똑같기 때문이고, 진리는 절대로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진리를 구하면, 너희 모두는 너희를 위해 순수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언제든지 올바른 선생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갈망하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저세상의 영적인 지식과 이 땅의 지식의 가치.

B.D. No. 1966

1941년 6월 24일

영적인 모든 것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기쁨과 슬픔이 사라지고, 이로써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취하거나, 무시한 일은 영원 가운데 머무르는 일에 결정적이고, 따라서 인간의 혼에 중요하다.

영적인 추구가 이제 항상 인간의 내면의 삶과 이 땅의 물질과 분리된 모든 것을, 그러므로 즐거운 이 땅의 삶이나, 육체의 욕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육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지 영적인 질문과 영적인 체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영적인 추구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이고, 즉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과 관련된 모든 일이다.

왜냐면 이 땅에 속한 것만이 단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해당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도 소멸되는 것이다.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한, 이로써 인간에게 가치가 있던, 획득한 지식이 어떤 지식이든, 인간이 저세상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완전히 가치가 없게 된다. 이런 지식은 다른 세계에 속하므로, 새로운 세계에는 쓸모가 없게 된다.

이제 사람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재물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그는 자신이 왜 이 땅에서 영적인 재물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영적인 보물을 모아야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서 동시에 영적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면, 가장 크게 빈곤한 상태에 처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 땅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질문에 적게 신경을 쓴다. 따라서 영적 재물이 부족한 가운데 저세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혼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만 하게 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쓰라린 일이다.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세상지식이 없는 여러 혼들은 넘치는 영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혼들이 혼의 성숙에만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세상적인 질문이 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혼의 소원이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지식을 향한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혼은 이 땅의 삶에 이룬 성공을 저세상에서도 유지한다. 이런 혼은 어떤 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혼이 모은 것은 영적인 재물이고, 이런 재물은 불멸한 것이고, 혼에게서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땅의 지식은 저세상에서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고, 영적인 재물을 소유한 혼은 영적인 재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 혼은 무지한 혼에게 영적인 재물을 줄 수 있고, 가장 빈곤한 상태에서 저세상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세상 지식을 추구했던. 또한 이 땅에서 그에 대한 상급과 명예와 명성과 세상적인 부를 얻은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 왜냐면 그들이 어떤 것도 영원으로 가져갈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쾌락을 누리는 기간이 얼마나 짧은가! 죽음 후의 삶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가! 사람들이 어떤 겉모양의 행운을 위해 그들의 생각을 향하게 하는가! 사람들이 영적인 추구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잃는가!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다루면,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세상 지식을 추구하면, 그에게 쉽게 세상 지식이 전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이 땅의 지식을 통해 이웃 사람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세상 지식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고, 동시에 영적인 재물을 얻게 한다. 왜냐면 이웃 사람을 섬기려는 그의 의지가, 이 땅의 지식이 쓸모 없게 되었을 때,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세상 지식을 얻은 사람의 영적 고난은 영원토록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몸으로서 있고,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환경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가 사랑하는 혼으로부터 부족한 것을 받으려는 결정을 하기까지, 그들이 자신들처럼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줄 수 있기 위해, 이 땅에서 했어야 할, 영적인 재물을 모으는 일을 하려는 결정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멘

이 땅의 삶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또는 저세상에 들어간 후 얻은 깨달음.

B.D. No. 4795

1949년 12월 10일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성공은 깨달음이 증가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의 상태가 항상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고, 혼이 그 안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사람이 죽은 후에 비로소 의식하게 된다. 이로써 비록 혼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경험해보지 못했을 지라도 혼은 높은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인간은 이런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그런 지식이 없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풍성한 보물을 얻었고, 영의 나라에서 혼이 이 보물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축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무의식적으로 또는 그들에게 계시된 내 뜻대로 행한 결과로 사람들은 그들의 초기의 무지한 상태를 바꾸는 지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영적으로 관심을 가진 모든 것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들의 깨달음은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지식으로 이 땅에서 이미 일할 수 있고, 빛을 줄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전하고, 아직 가장 깊은 어두움이 있는 곳을 밝게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에게 인도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저세상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이미 높은 빛의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 높은 빛의 정도가 그들이 행복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위험에 처한 저세상의 잘못된 혼들을 도울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무지는 위험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원래 초기에 빛 가운데 거하던 존재에게 어두움은 항상 불쌍히 여길 만한 상태이다. 무지는 나를 떠나 타락한 결과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서 멀어짐에 따라 나의 사랑의 흐름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완전한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고, 존재가 영의 나라에서 고통으로 깨닫는다. 존재는 이 땅에서 자신을 쉽게 빛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왜냐면 열심히 사랑을 행하는 일이 가장 밝은 빛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사랑을 행해야 하고, 대부분의 존재가 실패한다. 왜냐면

아직 자기 사랑에 너무 많이 갇혀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힘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힘은 영을 밝혀주는 일로 즉 깨닫는 상태가 되게 하는 일로 나타난다.

사랑은 항상 사람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랑은 지식을 얻기 전에 항상 사람 안의 사랑이 깨어나야만 한다. 비록 그가 이 땅의 삶에서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사랑은 항상 그에게 어느 정도의 빛의 정도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모든 오류를 즉시 깨닫고 혐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류가 없는 영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에게 순식간에 깨달음이 임한다. 빛은 행복이고 어두움은 고통이다. 그러나 어두움은 물리칠 수 있고, 존재들이 실제 빛의 광선을 따르고, 동시에 그들의 의지를 항상 사랑을 행하는 일로 향하게 하면, 어두움 속의 많은 존재들이 변할 수 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영의 나라에서 항상 변화될 기회를 얻는다.

아멘

세상 지식이 저 세상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

B.D. No. 5801

1953년 11월 4일

너희의 세상 지식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 왜냐면 너희가 영원 가운데 세상 지식으로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 지식은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실제 너희에게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적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 세상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직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통해 얻은 다른 모든 세상지식처럼 순전히 이성을 통해 얻은 영적 지식은 또한 세상 지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너희가 조상들의 책을 외우고,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너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성적으로 파악할지라도, 이런 모든 지식을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 다른 지식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왜냐면 결국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행한 사랑의 역사가 혼에게 준 지혜가 혼의 소유로 남기 때문이다. 혼에게 단지 혼 안의 영이 혼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 남는다. 혼 안의 영이 혼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학습이 필요하지 않고, 예리한 이성적인 사고와 특별한 기억력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영이 혼에게 필요한 것을 혼에게 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저 세상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부가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너희에게 빛을 주지 않는다. 너희의 영이 너희에게 올바른 지식과 판단력을 주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심지어 이런 지식이 진리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너희 안의 영에게 접근해야만 하고, 너희는 너희 안의 영이 너희에게 표현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 안이 비로소 빛이 되고, 너희는 또한 영의 나라에 들어갈 때 밝게 빛나는 빛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

영의 가르침을 받고 동시에 자신의 세상 지식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생각이 주어질 것이고, 그가 추구하는 일이 먼저 영적인 재물을 얻기 위한

일이면, 세상 지식도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의 모든 지식이 진실로 축복을 주기 위해 사용할 것이고, 그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는 영의 나라에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또한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그와 같이 연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다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날카로운 이성이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된다.

B.D. No. 8959

1965년 4월 5일

만약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과 어떠한 연결이 없이 밖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순수하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육체를 유지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이런 것들은 모든 사라지는 것들이다.

단지 이 땅의 세상만이 삶의 내용인 자에게는 그의 이 땅의 삶은 헛된 것이다. 그의 혼은 그가 육신을 입을 당시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혼들은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이 비록 높이 발달 된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만약에 그에게 아무런 사랑이 없으면, 바로 그의 날카로운 이성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을 방해한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딱 잘라 부인하고 모든 것들이 이에 복종하는 자연 법칙을 제정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모든 창조물들을 단지 자연 법칙적인 것으로만 여긴다. 순수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인간은 높은 성장 단계에 이미 도달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최고에 도달해서 추월 당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혼에는 지극히 작은 성장도 이루지 못했고 그는 자기보다 훨씬 아래에 처한 사람보다 성장하지 못했을 수가 있다. 왜냐면 성장 정도는 그의 사랑을 기초해 하나님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사람 안에서 신성에 대한 믿음을 준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사랑을 통해 자신 안에서 영이 역사할 수 있게 허용하면, 그는 올바른 생각에 가까이 도달한다.

그러면 그는 시간과 영원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이 오류가 있는 종교에 빠져서 이를 굳게 붙잡고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그가 이전에 올바른 설명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이런 설명을 받지 못하고 죽은 후에 저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저세상에서도 이런 설명을 받게 해주는 어떤 것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의 숫자는 아주 많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만 한다. 왜냐면 진리만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진리를 특별히 날카로운 이성을 가진 사람 중에 이제 올바른 생각가운데 서있으며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에 의존하는 것을 느끼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영접하지 않고 있다. (1965년 4월 5일)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지식을 가지고 가서 다시 저세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하게 된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문제에 관해 똑 같이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아무런 지식이 없이 저세상으로 가게 되고 그들은 전적으로 빈손으로 아주 가난하게 저세상의 문 앞에 서게 되고 큰 어두움이 그를 감싸게 된다.

이 어두움은 빛의 존재에 대해 서서히 그의 생각이 바뀌어 지게 하는 것이 성공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가 더 깊은 어두운 곳으로 떨어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는 한 구원시대 마지막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파문에 다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도달한 성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인종 때문에 경시를 받는 그러나 심장에서 사랑을 불 지피울 수 있는 그가 어떻게 상상을 하던지 간에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가 이 권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믿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훨씬 아래에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깨달음을 주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에 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땅의 삶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다. 그러므로 이를 전하는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어떤 수고도 피하려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는 일꾼들의 사역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세상적인 죽음으로 생명이 끝난 것이라고 믿는 자는 자신의 날카로운 이성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쇠하지 않는다는 모든 것이 단지 자체적으로 변화가 되고 어떤 것도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고 단지 그의 외적 형체가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혼도 불멸하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혼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합당한 형태로 다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다시 죽음의 상태로 돌아 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등한시켰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아주 고통이 심한 상태이다. 그러나 항상 빛의 존재의 도움으로 이 상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만약에 자신이 스스로 강박한 입자들이 되어 이 땅을 거치는 과정을 새롭게 가야만 하지 않으면, 어떤 혼도 그냥 놔두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이다.

이 땅의 인생은 사람들이 활용해야만 하는 은혜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생명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그를 영원히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 준다. 그에게 자기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이런 축복이 주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 영이 너희에게 계시해주는 내용은 너희를 위한 영적인 지식이고, 너희가 언젠가 영의 나라에서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직 무지한 모든 존재들의 축복을 위해 일하게 되면, 이런 영적인 지식이 너희를 축복되게 할 것이다. 순수한 진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아주 희귀하게 임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빛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저 세상의 나라에서도 순수한 진리가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 빛은 지혜를 의미하고, 순수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모든 잘못된 생각은, 혼이 이미 빛이 받을 수 있을지라도, 빛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이다.

그러나 마지막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는 빛이 항상 아직 일시적으로 흐려지고, 혼이 먼저 전적으로 모두 진리를 알아야만 하고, 혼 자신이 영의 나라에서 빛의 운반자로서 역사할 수 있게 되기 전에 혼이 진리된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일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사방을 비추고 빛을 전하는 밝은 빛의 옷을 입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혼은 이제 자신의 실제적인 활동을 즉시 행할 수 있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아직 어둠 속이나 황혼 속에서 말할 수 없게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게 된다. 혼은 영의 나라에서 의심하는 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을 만날 것이고, 자신의 지식을 통해 그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다.

이런 지식은 내 영을 통해 준 계시의 결과이다. 존재가 어둠의 권세자의 대변자로서 진리를 피하지 않는다면, 존재가 희귀하게 저항할 수 있는 설득력이 이런 지식 안에 함께 한다. 그런 존재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 빛을 없애려고 한다. 그런 존재들은 빛을 없애는 일이 자신들에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런 존재들에게는 단지 나 자신에게서 지식을 받은 빛의 전달자가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내 계시인 내 말씀 안에 엄청난 힘이 있고, 이 힘은 강한 벽을 허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게 입술을 빌려주고, 너희가 내 뜻대로 너희 자신이 내게서 받은 그대로 어두운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 자신이 이런 혼들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내 말은 순수한 진리이고, 순수한 진리가 또한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했던 혼에게 확신을 준다. 왜냐하면 혼이 내면의 행복을 느끼고, 동시에 진리를 행복하게 느끼고,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혼이 나에게서 받는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내 말씀의 힘은 분명하게 역사하고, 혼은 갑자기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던 것이 갑자기 선명해지고, 혼이 선명해진 것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한다. 잘못된 가르침이 아주 비참하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진리는 아주 행복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진리는 항상 내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곳에 거하게 될 것이고, 진리는 항상 내 영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해주는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넘치게 받는 은혜를 의식하라. 이런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역사하라. 모든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라. 너희가 나 자신에게서 받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라. 영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 일하라.

아멘

세속 연구자들이 영적인 결과를 검토하는 일.

B.D. No. 3192

1944년 7월 18일

영적인 분야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단지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단지 순수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제 순전히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사람에게 영적인 계시나 영적인 결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지 조사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일을 맡길 수 없고, 이 일을 하려는 의도는 항상 실패할 것이다. 왜냐면 영적 지식은 단지 특정한 조건 아래 얻을 수 있고, 지식이 없이 시험해보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검하는 사람이 전제 조건을 갖추면, 점검한 결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동일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사랑 안에서 사는 일이다.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진리로 인도 받는다.

그에게 세상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알게 된다. 그에게 영의 영역이 친숙하고 익숙하다. 그는 비평가이자 연구자로서 영의 영역에 낯선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순수하게 영적인 나라에서 산다. 영의 나라를 탐험하려는 사람은, 그가 단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을 뒷전에 둔다면, 탐험할 수 있다. 그러나 순전히 세상적으로 연구하는 관점에서 영적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영의 영역이 낯설은 상태로 머물고, 그는 단지 기존의 결과를 수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없다. 왜냐면 그 자신에게 물질적 또는 세상적인 이익에 관심이 없이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해야만 단지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신비로운 영역을 연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교사를 배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배출한다면 심장이 참여하지 않는 단지 이성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의 영역은 단지 심장을 통해 탐구할 수 있다. 비록 이성을 완전히 제외시키지는 않지만, 심장에서 생각의 내용이 그에게 전달되고, 심장이 역사하는 일은 모든 세상의 연구가가 보여줄 수 없는 큰 사랑을 전제로 한다.

만일 사람들이 이제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지식을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항상 잘못된 결과를 기대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영적인 일에 관한 지식은 올바른 구매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진실로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지식을 숨기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최고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 추구하는 일이 사람이 이런 지식을 얻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얻은 지식을 이웃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도우려는 노력으로 이웃 사람에게 전하면, 그는 최고의 성공을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주는 분으로 머물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보고, 합당한 정도와 갈망하는 정도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나눠 준다. 하나님의 영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이 깨우침을 받고, 그가 영원한 신성과 창조물 및 피조물 사이의 연관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이런 깨달음에서 지식을 얻고, 그가 이제 또한 진리로 대변하고, 그의 이웃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그는 이런 선행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통해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명성 또는 이 땅의 소유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순수한 진리를 위해 영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가 진리를 이웃사람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단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행복한 것을 주려는 내적인 충동에 의해 행한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심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전혀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의 결과는 단편적으로 머물고, 이미 존재하는 생각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이성적으로 연관관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고,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사로 삼지 않는 동안에는 오류를 범할 것이다.

왜냐면 영의 나라는 빛의 존재가 건널 수 없는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빛의 존재들은 그런 법칙을 어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빛의 존재들의 의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받는 측에서만 아니라 주는 측에 의해서도 준수되어야만 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은 사랑 안에서 활동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는 진리 안으로,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

세상의 연구자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생각이 진리 안에서 움직일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고, 순수한 진리가 사람에게 제공되기 전에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과한 요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연구를 통해 순수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받은 지식을 살펴본다면, 그는 그런 지식을 진리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생각이 자신의 사랑의 부족함을 통해 자신에 대한 권세를 부여한 진리의 원수의 영향으로 아직 흐려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진리이고, 단지 사랑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이 끊임없이 구하고 연구할 지라도, 그는 이성적으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에게 진리에 합당한 결과를 전혀 제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의 견해는 설득력이 없게 될 것이고, 그의 견해에 대해 진지하게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의심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영적인 내용에서 결론을 내리고, 실제 영의 나라, 영의 존재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 혼이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전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지식으로는 영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영의 영역은 절대로 세상적인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없다. 세상적인 연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없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한 영역을 설명하여 인류가 전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견고한 가르침을 세울 수 있는, 즉

인류가 얻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의 깨달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는 모든 일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심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증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나라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일.

B.D. No. 5770

1953년 9월 15일

너희는 높은 곳에서 주는 말씀을 부주의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 말씀의 출처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위로부터 왔다고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거부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의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젠가 너희가 무엇을 지나쳤는 지, 너희가 어떤 보물을 얻을 수 있었는 지, 너희가 어떤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되면, 너희의 후회가 아주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무엇보다 공부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른 영적인 내용을 제공하면, 주저하지 않고 다른 영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 강의를 읽고 들으면서 많은 영적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들이 영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일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그들은 영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성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올바른 판단을 위해 모든 인간이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서 제공되는 말씀은 이성의 사람이 생각하도록 충분히 자극하고, 이성의 시험을 통과한다. 그러면 말씀이 구하는 사람에게 한 생각의 방향을 더 많이 가르쳐 주고, 그가 생각으로 헤아려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확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생각을 밝아지게 해주기를 구하고, 순수한 진리를 전해주기를 구하는 일을 통해 단지 얻을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진리이고, 모든 지식의 원천으로 깨닫게 되면, 이런 부름이 비로소 사람의 심장에서 나오게 된다.

진리를 가르침 받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고, 그들은 언젠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성의 결과를 영의 역사의 결과보다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위에서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발산되는 지, 얼마나 발산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언젠가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 위해 단지 그들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하도록 돕기를 원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돕기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본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어둡고,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도 없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

너희는 단지 위로부터 빛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깊이 낮은 곳에서는 단지 어두움이 너희를 감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내용이 위로부터 흘러왔는지 또는 깊은 영역에서 너희에게 흘러왔는지 너희가 선명한 지식을 받는지 또는 너희가 생각의 혼돈에 빠지는지 너희에게 연관관계가 선명한지 또는 한 질문에서 단지 다른 질문에 빠지게 하는지 쉽게 시험해볼 수 있다.

빛은 깨달음이고 선명한 지식이며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던 너희에게 설명한다. 그러나 영적인 내용이 깊은 곳으로부터 왔다면, 너희는 항상 선명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가 연관관계를 찾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고 너희는 항상 더욱 혼돈 된 생각을 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생각의 오류는 막다른 길로 끝나기 때문이다. 너희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설명을 찾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를 만족시키는 답변을 진지하게 얻기 원하면, 이런 답변을 얻지 못한다.

반면에 위로부터 온 빛은 모든 어두운 구석까지 밝히고 빛이 침투할 수 없는 곳이 없다. 사람은 모든 영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하나님 자신과 창조에 대한 그의 구원계획과 그의 사역과 역사에 관한 선명한 개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빛은 단지 빛의 출처인 영원한 원래의 빛으로부터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문제와 모든 질문들이 해결된다.

그는 이를 이해할 수 있고 이웃이 진지하게 설명을 받기 원하면,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이에 관해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부터 근원되어 나온 것은 항상 더욱 혼란을 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불합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인 내용의 출처를 통해 영적인 내용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분별하는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주변에 빛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두꺼운 포장을 하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빛은 존재하고 밝게 빛난다. 이로써 빛은 다른 사람을 끌어 드린다. 이 빛은 단지 저항을 받는 곳을 강제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시험해보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영을 밝게 해주기를 구하고 올바른 생각하게 해주기를 구하면, 모든 저항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 빛의 비추임이 모든 능력으로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단지 하나님 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것이다. 이 지식은 그를 행복하게 하고 이 지식을 전하게 내면에서 그를 재촉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의심은 더 이상 없고 답변을 얻지 못한 질문이 없다. 왜냐면 질문이 단지 생기면, 생각으로 또는 직접 듣는 음성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받음으로 질문에 대한 선명한 답을 얻기 때문이다. 사람은 위쪽과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

그는 낮은 곳에서 그에게 빛이 비추일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는 이 땅이 또는 이웃이 아직 깊은 영역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영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내용을 전달받으면, 진지하게 시험해봐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가

이 전에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지 않으면, 그가 위를 향해 그의 지식을 구하지 않으면, 빛이 위로부터 자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은 사람들에게 전적인 빛을 줄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창조와 비밀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체험을 이해할 수 있고 (1958년 1월 31일)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들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깨달을 수 있다. 한번 이에 관한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고 자기 삶의 길을 의식적으로 간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추구한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에게 깊은 곳에서 나온 영적인 내용이 전해지면, 이런 영적인 내용이 그를 생기 있게 해주거나 의식적으로 혼에 대한 작업을 하게 자극해주지 못한다. 왜냐면 그 자신이 이런 영적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게 했는지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새로운 설명과 이유를 제시할 것이고 항상 또 다시 이를 버릴 것이다. 그는 하나님 자신과 그의 역사에 대한 선명한 개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그는 그를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또는 불쾌하게 하는 그에게 빛을 주지 못하고 항상 그의 내면에 어두움을 확장시키는 혼돈된 개념을 얻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선명하게 볼 수 없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위로부터 빛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너희가 행복하게 느끼게 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님을 안다. 왜냐면 너희가 비록 이성적으로 깨우침을 얻고 추구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인도하면, 비로소 너희가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미로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불러야만 하고 그에게 빛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빛이 비추어 내릴 것이고 이제 진리가 태양처럼 밝게 너희 앞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너희가 소유한 영적인 내용이 전적인 선명함과 깨달음을 주는지 점검하라. 너희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모든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지 점검하라. 너희에게 제공된 지식이 너희에게 만족을 주는지 너희에게 떠오르는 사랑과 지혜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합당한지 점검하라.

너희가 어두움 속에 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빛을 주기 원한다. 그는 순수한 진리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는 너희가 다시 빛이 가장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았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항상 또 다시 자신의 빛을 이 땅에 전한다. 이 빛이 자신 안에 흐르게 하는 사람에게 영원으로부터 빛이 항상 더욱 임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축복되고 영원히 축복되게 머무를 원래의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영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데는 먼저 하나님과 내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B.D. No. 8828

1964년 7월 11일

단 지 나로부터 나온 것 만이 순수한 진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너희가 영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단지 너희의 이성만을 의존

하면, 무엇이 나로부터 근원이 되어 나온 것인지 시험하는 것은 어렵다. 선명한 답변이 위로 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데 왜 너희는 너희가 제어할 수 없는 영적인 내용을 영접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내적으로 결합하라. 그에게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라. 진실로 너희는 답변을 받지 못하고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진지한 의지를 나는 너희에게 요구해야만 한다. 영적인 내용을 시험할 때마다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너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나에게서 답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연구할 필요가 없고 이성을 통해 자신의 결과에 도달한 다른 연구자의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 없다.

영의 나라와 이 땅은 연결이 되어 있다. 너희는 나에게 설명해 주기를 구하면서 이 연결을 활용해야 한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답변을 주거나 또는 나로부터 임무를 받아 너희를 가르치는 빛의 존재를 통해 답변이 너희에게 전해질 것인데 항상 이 답변은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에게 모순이 되지 않는다.

내 말은 어떠한 변경도 없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상반되는 출처는 달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사람들을 단지 그가 이 땅에서 이룩한 그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죽어서 영의 나라에 갈 때에 만약에 그가 이 땅에서 깨달음을 아직 찾지 못했으면, 번개와 같이 빠르게 깨달음을 얻는다. 올바른 사랑이 실제로 이 땅의 그에게 빛을 보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창조한 존재가 자신을 나타낸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부족하다.

그는 내면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깨달음 가운데 있었다면 얼마나 그에게 이 땅의 삶이 쉬었을 것 인가? 그가 단순하게 그에게 모든 영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설명을 해주는 내 말을 지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유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가르침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가르침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놔둘 수 없다. 왜냐면 이에 모든 영원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사람이 이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가 자신에게 다른 해법을 주기 위해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구속에 관한 생각에서 멀기 위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자원하여 영접하는가 얼마나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생각하지 않기 위해 이런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를 완성을 이룬 선생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찾는 것을 막는다.

모든 개인이 추구하는 모든 저질적인 성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높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우는 즉 스스로 구속되길 추구하는 것은 실제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그에게 부담을 주는 원죄가 있다. 이 원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을 단지 사랑의 정도에 따라 평가를 한다. 그래서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만약에 그가 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갑작스럽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아래 두고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를 찾지 못

한 사람이 그가 단지 사랑의 삶을 살았다면, 그에게 갑자기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고 버림받을 수 없다.

만약에 그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는 순수한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왜냐면 이 땅에 빛과 어두움의 큰 싸움이 일어나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줌으로써 도울 것이다. 진지한 사람은 나를 자신들의 기원과 목표에 대해 모든 창조자의 비밀과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적인 내용을 주신 분으로 깨달을 것이다.

아멘

이해력, 이성, 자유의지. 선입견. 책임.

B.D. No. 1603

1940년 9월 8일

사람이 인간 편에서 그에게 전해지는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어떤 영적인 나태함이다. 자신의 생각이 시작되면, 그는 모순에 직면하고, 그에게 제공된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는 창조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이성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에게 제공된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검토한 다음에, 비로소 그에 대한 자세를 취하는 일이 그의 과제이다. 단지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옳다고 밝혀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일은 비난받을 일이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사용해야만 한다. 사람은 온전한 확신으로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이성을 사용한 것이다.

순전히 이성적으로 얻은 견해를 유지하려는 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것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는 반대가 되는 것도 또한 점검하려는 시도를 해야만 한다. 그는 저항을 하지 않고 자신이 영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이 반대 의견에 동참하는 경우 자신의 생각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는 항상 끊임 없이 진리를 갈망하고, 가능한 한 자신의 생각이나 선입견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갑자기 진리가 위로부터 깨우쳐주면서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는 또한 이를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일이고,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다.

그러면 사람은 진정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그에게 주는 것을 옳은 것이고, 선한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 자신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영이 말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훈계하고, 경고한다. 그는 자주 몰래 모든 사람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항상 그를 돕고 싶어하면서 접근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의 생각을 옳바르게 인도하고, 그의 심장을 자신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 이런 의지를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사랑과 진리는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사랑 없음과 거짓도 하나이다. 진실되지 않게 행하는 행동에 사랑이 없다. 그러나 단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해력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었다. 인간은 이제 이런 은사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는 인류의 행동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 그가 깨달은 경우 그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자신이 확신하는 것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하고,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신을 진리와 연결시켜야 한다.

부 분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이 없이,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밖에 서있다. 많은 오류가 제공되었고, 사람들이 오류를 생각으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였다.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입장을 정할 의무를 받았다.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었고 그러므로 그는 생각할 수 있고, 자신에게 제공된 것을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서 면제되었다는 좋은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준다. 이로써 그들은 당황하고 처음에 받은 것과 새롭게 받은 것을 진지하게 평가하게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각도 그가 자신 안에서 발전시킨 것이어야만 한다. 그에게 전달되는 모든 것은 먼저 스스로 그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의 내용으로 만들어야만 한 것이다. 만약 그가 이런 일을 소홀히 했다면, 즉 가르치는 사람이 그에게 제공한 것을 시험하지 않고 받아드린다면, 그는 스스로 활동하지 않은 채로 머문 것이고, 그는 혼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나 내적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 진리에 해당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해 그는 먼저 진리 안에 서려는 갈망을 가져야만 한다. 그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또한 그에게 전달되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가 진리를 사모한다면, 그는 또한 영원한 진리 자체인 하나님도 사모하게 된다.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는 또한 사랑 안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위를 향해 추구하는 사람의 진리를 향한 갈망은 절대적으로 성취돼야만 한다. 그는 또한 그의 생각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지 않기 때문에 오류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있는 세력에 의해 진리로 인도를 받는다. 그러나 사람편에서 그에게 전해진 생각의 내용에 대해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단지 말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을 친히 붙잡고 진실로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오류는 사람들이 큰 혼의 고통에 빠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놓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한다. 오류는 진리로 포장된 가운데 전파된다. 오류를 믿음의 진리로 퍼뜨리고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일을 막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지라도 모든 각각의 사람이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성을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지식이 이 땅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에 관한 지식이라면, 그는 이성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빛 안에 있는, 즉 지식을 가진 영의 존재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영의 존재는 사람이 영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하도록 자극해주어 이로써 그를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어떤 사람도 빛의 존재에 의해 제외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안에 자신에게 진리로 제시된 지식에 대한 생각이나 의심이나 질문 또는 관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이제 이런 생각을 붙잡을 지, 그가 이런 생각을 자신 안에서 분별해보거나 또는 즉시 거부할 지 또는 중단함으로써 빛의 존재가 오류와 진리에 대해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에게 설명해줄 모든 가능성을 박탈하는 일은 인간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과 계명에 의해 자신이 묶여 있다고 믿는다면, 그에게는 항상 아직 하나님께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믿음과 순수한 진리를 구하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가는 길이 남아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인간의 계명을 더 높게 존중하고, 그가 아버지의 올바른 자녀로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진리의 원천으로 도피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피조물 자신이 위험의 원인이거나 또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위험해졌을지라도, 자신의 피조물을 위험 속에 놔두지 않는다. 인간의 생각이 자유의지로 실패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강요받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난이 사람들에게 닥치게 하여 그들이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의심이 일어나게 한다. 그러면 그는 그들에게 생각이나 인간의 입술을 통해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 저 세상과 이 땅의 진리의 전달자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진리를 갈망한다면, 그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열고, 이 선물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한다면, 그들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의 내면이 빛이 될 것이다. 왜냐면 진리가 있는 곳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멘

생각의 방향에 대한 책임.

B.D. No. 3550

1945년 9월 16일

사람의 의지는 자신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밀치고 들어오려고 한다. 다시 말해 여러 종류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생각의 형태로 사람의 심장에 밀려들어 영접하기를 원한다. 이제 사람의 의지가 자신의 심장을 열고, 그에게 흘러오는 생각을 영접해야 하고, 그는 이 생각을 영접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임한 생각을 오래 간직하거나 또는 빨리 거부할 수 있다. 이 의지는 그 사람의 성품과 영의 성장정도에 따라 다르다.

성숙한 사람은 선한 생각에 머문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종류의 생각을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럴지라도 그에게 자신을 극복하고, 악한 생각을 끊어 버리고, 선한 생각을 영접할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 시험을 받는다.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면서, 생각의 영향을 인정하면서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이 선하고, 악한 영의 세계에서 오는 생각의 발산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의지 앞에 이런 시험은 실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실제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성의 작용이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안다. 이런 가정하에서도 생각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 왜냐면 의지가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의지는 만약에 그가 연약하고, 결정을 못하는 경우, 올바른 생각을 받기 위해 기도함으로 의지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보호없이 그에게 악한 생각을 일으키려는 영의 세력 아래 있지 않고, 단지 그의 의지가 선하면, 자신의 혼을 위해 합당하지 않은 영적인 내용에 대적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왜냐면 생각이 행동의 근원이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분별해야 한다. 그는 항상 어떤 사상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이 유도를 받는 지, 즉 선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인지, 악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악한 행동을 유발하는 생각을 대적해야 한다. 만약에 그가 연약할 경우에, 기도를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그는 항상 대적할 힘을 얻을 것이고, 그를 돌보는 영적 존재를 통해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영적인 존재는 그들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할 수 있기 위해,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나오는 선하고 귀한 영적인 내용을 전하기 위해, 단지 구하는 기도를 기다린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은 빛과 진리의 전달자이고, 이들의 생각의 영향력은, 이를 영접한다면, 영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그의 사상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의지가 유일하게 결정적이다.

아멘

의지가 생각을 정한다. 책임.

B.D. No. 5463

1952년 8월 17일

사람의 의지에서 생각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그러한대로 저세상의 영의 세력들이 역사할 수 있고, 영의 세력들의 생각의 흐름을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항상 영의 세력들의 표현이고, 인간의 의지가 영적인 제공자의 의지와 일치하는 곳에서 생각을 받아드린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형성하면, 영의 세력들이 생물학적인 기능에 개입하고, 이런 생각의 내용은 영의 세력들이 소유한 영적인 내용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이런 영의 세력들에 의해 자극을 받고, 영의 세력들은 사람의 생각에 강요하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선하거나 악한 의지에 합당한 영의 세력들이 역사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을 통해 빛의 나라에서 온 것이든, 어두움의 나라에서 온 것이든, 진리이든 오류이든, 어떤 영적인 내용을 영접할지는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다. 왜냐면 사람 자신이 자신의 의지의 방향을 통해 자신에게 생각을 전하는 존재를 정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생각을 정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사람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빛의 세계의 존재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고 이로써 그의 뜻과 생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인간은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는 동행을 받고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러면 빛의 존재들이 책임을 넘겨 받고, 빛의 존재들이 인간에게 진실로 선하고 올바른 생각을 지원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가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올바른 생각이 요구되는 모든 생각을 하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모든 선한 존재에게 보호와 도움을 구하면, 그는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의 생각은 옳바르게 될 것이다. 왜냐면 어두움의 존재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두움의 존재들이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사람들을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에게 생각이나 의지가 다시 세상을 향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선한 존재가 너희에게 전해 준 것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대적자의 세력들이 즉시 역사한다. 세상을 향한 갈망이 너희를 이런 대적자의 세력들에게 내어줄 수 있다. 왜냐면 세상을 향한 생각과 영적인 목표가 아닌 모든 소원을 통해 하나님과 빛의 세계와의 연결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아직 어느 정도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지 관찰해야 하고, 그는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가능한 모든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 봐주는 것이 없이 빛의 영의 세계에 자신을 드러야 한다. 그러면 그는 항상 자신이 빛의 영의 세계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하고 생각할 것이고 또한 그가 이런 연결을 통해 그에게 전해진 영적인 내용을 대변하면, 그는 또한 내적으로 굳은 확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적인 또는 영적인 생각의 파장.

B.D. No. 7222

1958년 12월 6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너희는 더 쉽게 영의 나라의 입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영의 나라에서 너희에게 흘러가는 생각이 더 이상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런 영적인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방해가 된다. 왜냐면 영적인 생각이 단지 전적으로 방향을 바꾼 곳에서 사람의 심장의 영접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묶여 있으면, 그들이 왜 아주 적게 영적인 생각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세상 생각은 항상 영적인 생각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왜냐면 세상 생각이 사람에게 먼저 임해 영적인 생각이 그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영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사람 자신에게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왜냐면 유일하게 자유의지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지를 결정하고 자유의지가 그의 주변에 맴도는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기 때문이다. 의지는 사람의 영적이거나 또는 세상적인 성품대로 그 방향을 향한다.

의지는 한 방향이나 또는 다른 방향을 향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의지는 전적으로 자유하다. 이런 의지 방향에 따라 모든 것이 그의 생각과 그의 행하는 것과 그의 혼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러나 끔찍하게 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람의 의지에 위협이 된다.

그러나 혼이 선명하게 되게 하기 위해 혼이 세상과 영의 나라 사이에서 결정해야만 하게 하기 위해 이 위협은 있어야만 한다.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한다. 혼은 단지 한 나라를 원할 수 있

고 이 나라를 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혼이 물질의 나라인 세상을 선택하면, 혼은 물질의 나라에 묶인다.

혼이 영의 나라를 선택하면, 이 땅의 육신을 떠나면, 혼의 이 땅의 과정을 마치면, 영의 나라가 혼의 거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두 나라는 혼을 자기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시도한다. 혼은 두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혼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

왜냐면 혼은 모든 방향으로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붙잡을 수 있게 혼 앞에 있고 영적인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실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올바르게 결정하는 일이 혼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냐면 영의 세력들이 혼에 대해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 영의 세력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또 다시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사람이 이를 깨닫고 이에 관한 자세를 정해야만 하고 그가 단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의 세력들이 그에게 접촉했고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책임을 요구하면,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이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생각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가 무엇을 생각할지 그에게 전적으로 자유하다. 생각이 올바르게 되는 일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그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선한 영적인 세력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세력들도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한 세력을 따르고 다른 세력을 따르지 않는 일을 "영적인 강요"라고 말할 수 없다. 세상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영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기 위해 내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는 의지가 이런 내적인 싸움에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 사람이 더 많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록 승리는 더 크게 될 것이다. 왜냐면 유혹이 더 클수록 저항이 크게 될 것이고 자신을 관찰시켜서 영의 나라를 위해 결정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언젠가 승리를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혼 자신이 영원 가운데 거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혼은 축복된 삶을 맞이할 것이고 항상 단지 자신에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안에서 강해진다.

B.D. No. 5407

1952년 6월 8일

나는 연약한 사람들 안에서 권세있게 되기를 원하고, 위에서 온 힘이 눈에 띄게 역사하여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너희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한다. 나는 크고 권세있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계시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 대부분은 내 은혜의 역사를 전제로 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들이 무언가를 행하면, 그들은 그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연약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나를 계시해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가장 깊은 겸손으로 내가 그들을 강

하게 해주기를 나에게 구한다. 내 힘은 분명하게 그들 안에서 역사할 것이고, 내가 연약한 자들 안에서 권세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한 것처럼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사랑스런 아버지요 하늘과 이 땅의 가장 권세있는 통치자로 믿는 믿음 이 한가지 안에서 강해야만 한다. 믿는 사람이 바라는 일을 내가 성취시키면서 나 자신이 믿는 사람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믿음 안에 너희의 강함이 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많은 말로 알려지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있게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공부를 통해 깨닫고, 나에게 의해 특별하게 지정받은 특권이 있다고 믿는 곳에는 나는 나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높은 곳과 큰 지식을 가진 무리들이 있는 곳과 거짓 경건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곳에서 나는 내 힘과 영광에 대한 증거를 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조용한 사랑에 빠진 이 땅의 자녀가 나를 생각하는 눈과 심장을 나를 향해 높이고, 어린아이의 용알거림과 자신의 연약함과 합당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단순함으로 나를 부르는 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내 힘과 사랑을 모든 충만함으로 전해 줄 것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들 안에서 권세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세상의 강하고 높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 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 나는 공부하는 길을 통해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공부한 사람을 훨씬 능가하는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다. 왜냐면 이 지식은 단지 나 자신이 나눠줄 수 있고, 또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원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당하게 되는 변경할 수 없는 조건은 겸손과 믿음을 가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과 진지하게 나에게 향한 의지이다.

너희는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져야만 하고, 너희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헤아릴 수 없다고 느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서 진리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줄 수 있고 주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믿음은 어린 아이의 믿음이다. 왜냐면 세상 지식에 있어 높은 학자는 순수한 진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의 모든 배움을 파괴하는 이런 믿음에 대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장이 또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겸손으로 채워져야만 한다. 그러면 연약한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긴밀한 기도가 나에게 올라오고, 내가 이런 부름에 응답한다. 나는 내 영을 내려보내 연약한 자를 채우고 이로써 나 자신이 연약한 사람들 안에서 권세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영이 확장되고 명백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모든 사람은 나를 깨닫게 될 것이고, 아주 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 1 장 19-21 절에 대해

B.D. No. 6469

1956년 2월 6일

세상의 현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내 영을 통해 너희에게 드러난다. 왜냐면 영이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고 영에게는 장벽이 없고 단지 인간 자신의 의지가 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하게 한다면, 영의 역사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

는 제한이 있고 인간의 이성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없고 이성에게는 모든 영역이 닫힌 채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영이 모든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숨겨져야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나를 향한 너희의 자세가 옳아야만 하고 너희의 자세가 내 영이 역사하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너희는 내가 내 영을 통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형성시켜야만 한다. 나는 항상 단지 너희의 성품이 내 성품을 닮아가기를 요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빛과 힘을 발산해줄 수 있었던 너희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다. 너희는 한때 빛으로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달았고 어떤 것도 너희에게 숨겨지지 않았고 너희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너희는 전적으로 온전한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너희의 어두운 영의 상태가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진 상태로 바뀌기를 원해야만 하고 나는 너희에게 부족한 것과 너희에게 없는 것을 너희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너희는 나로부터 제한이 없게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은 너희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고 너희가 자원하여 한때 떠난 나에게 긴밀하게 속하게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조건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해서 너희의 원래의 성품을 다시 갖게 되는 일이고 너희가 내 원래의 성품을 닮는 일이다. 그러면 너희에게서 모든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왜냐면 그러면 내 영이 너희에게 흘러 가고 전에는 너희에게 어두움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던 것을 너희가 밝고 선명하게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이성의 활동을 통해 너희는 이런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멀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했다. 왜냐면 그들이 먼저 내 영을 받기 위해 심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장 깊은 지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지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특별한 이성이 요구되지 않고 단지 사랑으로 충만한 심장이 요구 된다.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헤아려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아직 빛과 거리가 멀고 그의 연구와 구하는 일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 안에 사랑이 타오르게 한 사람은 이제 내면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그가 헤아리려고 하는 것을 자신 안에서 밝고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왜냐면 내 영이 그를 충만하게 채우고 내 영이 진실로 그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그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어두운 영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주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빛으로 충만한 가운데 최고로 높은 깨달음 안에 있다면, 너희가 너희를 비로소 다시 신적인 존재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 앞에 아무리 현명할지라도 사람이 이런 깨달음을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나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진리이고 나는 진리를 갈망하고 내 영이 그를 비추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내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은 영원히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아직 내 밖에 있고 나와 연결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연결이 한때 나와 하나가 되게 했고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은 신적인 내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신적인 내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가장 밝은 깨달음과 충만한 힘을 보장한다. 이런 힘이 원래 초기에는 모든 존재에게 제한이 없게 흘러갔다.

